코로나 시대에
요나를 생각하다

(요나서 강해)

박진호

(왜 오직 예수인가? whyjesusonly.com)

목차

들어가면서 1

코로나사태에 신자가 행할 첫째 의무 6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18

이상하게 일이 자꾸 꼬이면? 30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42

내가 쫓겨났어도 다시 주를 바라보리라. 54

복음의 네 가지 핵심과 코로나 사태 66

단답형 믿음인가? 논술형 믿음인가? 78

하나님은 불신자의 기도에도 계획을 바꾸는가? 90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 102

신자가 평생토록 행해야할 한가지 일 114

신자의 어쩔 수 없는 숙명 125

하나님께 받을 신자의 진정한 복 137

부록 - 코로나 이후에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149

들어가면서

전 세계가 아직도 코로나 사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 년여 동안 모든 이가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지금껏 전혀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 중이지만 언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전염병은 사실은 인류 역사 내내 항상 있어왔습니다. 지난 시절에는 교통수단이 미비했고 타지로 여행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최초 발생지역을 철저히 봉쇄하면서 그 지역의 모든 것들을 불에 태우면 타지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행기를 이용한 국제간 여행이 보편화되어서 세계는 거의 일일생활권으로 변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비나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모든 나라로 또 그 나라에서 모든 지역으로 번졌습니다. 쥐가 옮기는 역병이라 지역봉쇄로는 도무지 막을 수 없어 전 유럽을 오랫동안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14 세기 흑사병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직업을 잃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진데다 집에만 박혀있어야 하니까 정서적으로도 아주 피폐해져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사가 그러하듯이 이번에도 부정과 긍정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부정적 반응은 더욱 절망에 빠져서 염세적이 되고 우울증 같은 정신 질환으로까지 도지는 것입니다. 긍정적 반응은 인간 생명이 너무나 미약함을 절감하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탐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는 이유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게 지어진 흔적이 종교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이 인간이 가진 어떤 능력도 아무 소용없이 완전히 무력해질 때에는 필연적으로 영적 차원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절대자에 대해서 부인 내지 대적하는 부정적 반응이 있는가 하면 기대 내지 소망하는 긍정적 반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성경의 판매가 늘어났고 젊은이들 사이에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생겼다는 것이 통계로 증명되었습니다. 성경을 찾는 첫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연약한 인간이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또 다른 이유로는 코로나 사태가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되어있는지 궁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결말날지 그럼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에 참고해야 할 성경책으로는 요한계시록보다는 요나서가 나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는 사악한 도성 니느웨가 요나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루 만에 온 성중이 다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상이 니느웨처럼 타락했고 또 그 벌로 하나님이 코로나를 일으켰다고 말하려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역사는 니느웨에 BC 765 년에 극심한 역병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흥미롭게도 바로 그 2 년 후인 BC 763 년에는 일식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일식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신이 어떤 큰일을 일으키리라는, 주로 심판에 대한 예언적인 징조로 간주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방문한 것이 이 역병과 일식이 발생하기 전인지 후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 BC 780 년대 초반에서 750 년대 초반까지로 추정하므로 이 두 사건이 요나가 사역한 시기 중에 일어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 니느웨의 큰 회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나가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그 두 사건이 있었다고 추측하는 편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에겐 요나의 심판이 곧 임하니까 그 전에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정말로 실감나게 다가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요나의 니느웨 방문이 두 사건 이전이었을 경우도 따져봐야 합니다. 본문 강해에서 밝히겠지만 요나가 겪었던 전후 사정을 알게 된 니느웨 백성은 그의 메시지를 신중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들 식민지로 수탈당했던 약소국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단신으로 담대히 외치는 모습에서도 영적권위를 느꼈을 것입니다. 거기다 심판유예기간을 사십일이라고 확고히 못 박아 선포하니까 예사로 듣고 넘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역병이 발생했고 일식마저 일어났으니 니느웨로선 더더욱 정신을 바짝 차렸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나의 사역과 니느웨에 있었던 역병과 일식의 시간적 전후 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두 사건으로 인해 많은 신자들이 요나서에 대해 그 동안 품었던 몇몇 의심의 고리는 쉽게 풀린다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이 니느웨에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섭리하여 그들로 지난 삶을 되돌아보게 했다면 요나서 기록의 역사적 진실성은 더 확실해집니다. 요나의 사역이 잘 이뤄지도록 사전 혹은 사후에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단 하루 만에 그 사악했던 성이 전부 진심으로 회개한 일도 얼마든지 가능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때문이지만 그런 일련의 사건과 징후들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상당히 열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 역병으로 니느웨 백성들이 많이 희생당했겠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더 거룩하신 뜻은 실현된다는 진리를 새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전체가 말하는 바는 그분의 의로운 통치는 인간의 이해 수준을 뛰어넘어서는 차원에서 당신만의 방식과 시기에 따라 당신께서 완벽하게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신 29:29)

이를 코로나 사태에 적용하면 이런 혼란한 와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벽한 뜻과 계획이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실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전염병을 하나님이 주도하여 일으킨 후에 백성들로 당신께로 회개시킨다는 즉, 병 주고 약 주는 식은 결코 아닙니다. 역병은

전적으로 인간이 이 땅을 더럽힌 결과이며 하나님은 그런 사태를 간접적으로 허용만 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광대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니느웨에서처럼 이 사태를 통해서 신자는 물론 인간 공동체에 당신만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신자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원리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원리이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때와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현대의 인간의 삶은 엄청나게 다양하고 복잡해졌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뉴얼 식으로 삶의 지침을 주다간 성경 한 권을 보관하는데도 온 세상의 도서관을 다 동원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신자가 성경을 통해 실천해야 할 삶의 지침은 하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그분의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 3:5,6) 성경에서 인간 쪽의 행동 지침보다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요컨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전 공간과 전 시간을 아우르는 분에게 신자 자신의 인생과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그분의 마음의 크기에 맞게끔 적용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세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품 안에 거하고 당신을 기뻐하면서 교제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당신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고 아는 만큼 거룩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던 말씀을 코로나 사태를 지나는 오늘날의 신자들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호 4:1,6-7)

요나서를 통해 세상을 당신만의 뜻대로 섭리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현실적인 어려움 중에도 그분만의 오묘한 은혜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코로나 사태로 이전과는 사뭇 달라질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당혹해 하지 않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이 사태도 끝은 날 것이므로 미리 마음의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올해 신년 첫 주일 설교에서 살펴본 학개서 1:1-4 에 대한 강론도 부록으로 첨부했습니다.

이번에도 설교를 마치고 나면 항상 그러하듯이 미진한 부분이 자꾸 발견되어 크게 아쉽습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 사역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맡아 전하면서 겪는 피치 못할 숙명이라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이 요나서 강해를 통해 코로나 사태를 새로운 관점으로 분별 판단해서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엘에이 우거(寓居)에서

1/27/2021

코로나사태에 신자가 행할 첫째 의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 하였고 재배도 아니 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 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욘 4:10,11)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사회활동과 인간관계에 단절 내지 거리를 두는 상황이 새로운 일상(New Normal)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실제로 겪어서 잘 알고 있기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확인할 수 있는 병균 하나에 지금껏 인류가 쌓아온 모든 문명과 기술이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보호 장비가 기껏 천으로 만든 마스크라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더 무력하게 또 더 화나게 만듭니다.

반년 이상 지속된 격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크게 궁핍해진데다 삶의 단조로움을 견디다 못해 우울증으로 발전하고 폭발 일보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미국서부에선 십 수만 번의 번개로 자연 발화된 엄청난 규모의 산불로 마치 지구의 종말을 보는 듯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이상 자연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전보다 훨씬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번 사태가 끝나도 더 심한 바이러스나 자연재앙이 인류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치 지도자들은 지구온난화라는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강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서로 양보하며 더불어 잘 살려하기 보다는 자기 나라만 번창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경쟁이 격화되다 못해 강대국들은 다시 군비경쟁에 힘을 쏟고 신 냉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겪었던 재앙들은 일시적 국지적이었습니다. 이번처럼 장기간에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겪는 적은 역사상 처음이라 다들 종말론적 현상 같다고 말합니다. 자신과 가족은 물론 인간사회의 미래가 너무 암울하게 여겨져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미증유의 사태에 신자들마저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사태를 허락했는지, 과연 신자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성경적으로 분별하기 힘듭니다. 요나서를 통해 이런 상황에서 신자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요나서에 대해 잘못된 두 가지 시각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많은 신자들이 요나서에 대해 가장 흔히 갖고 있는 두 가지 잘못된 시각부터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록된 내용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 아닐 것이므로 영적인 의미만 찾아서 신앙에 적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큰 고기 아마도 고래일 텐데 배

속에 들어가서 삼일 간이나 죽지 않고 버틸 수 없고, 니느웨의 그 악독한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쉽게 회개할 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기원전 8 세기 여로보암 2 세 때에 이스라엘의 북 왕국에서 실제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왕하 14:25) 성인 남성을 삼킬 큰 물고기가 없다고 의심하지만 오래 전 해외토픽에 실제로 고래 배속에서 사람이 통째로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굴에 떨어진 다니엘을, 극렬히 타는 풀무 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머리털 하나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요나가 '삼일삼야'(三日三夜)를 고래 배속에 있었다고 말하나(욘 1:17) 이를 꼭 72 시간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요나가 고래 배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있었던 일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만 72 시간이 아니라 날짜로 따져 삼일 째에 부활했으며 요나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가 되었던 사실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도 말씀 한마디로 무덤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게 했습니다.

나아가 요나서 전체의 기록이 아주 사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실제로 체험한 요나 본인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지어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배속에서 삼일 지나서 살아났다고 하면 황당무계하다고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책에 기록된 내용과 역사적 정황도 맞아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책에 계시된 진리가 종교적 인식과 개념이 아주 발달된 현대인들도 쉽게 추론해낼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컨대 요나서 기록은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자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입니다.

둘째는 첫째와는 정반대로 고래 배속에서 삼일이나 지났어도 살아나는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나가 큰 풍랑 속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미리 고래를 예비해 놓으셨고 고래 배속에서 요나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해주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자도 하나님의 큰 기적을 소망하며 어떤 환난에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준다고 가르칩니다. 원론적으로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요나서의 부차적인 주제도 아닙니다. 어쨌든 기적 하나만 따져도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근본 이유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0,31)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당신의 당신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어서 새 생명의 구원을 받게 하려는 뜻입니다. 역으로 말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이미 믿는 신자에겐 기적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듯 기도만 하면 고난에서 구해주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진리가 단순히 전지전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의 의지를 막을 존재는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완전히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신자의 기도가 당신의 뜻에 맞지 않는 다면 당연히 응답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요나서를 신자를 기적적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적용해선 너무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수박 겉핥듯이 읽은 꼴입니다. 수박껍데기는 아무리 핥아도 수박 맛을 못 느낍니다.

공적예배를 강요하면?

그런데 요나서 강해의 첫 시간에 첫 구절이 아니라 마지막 구절부터 보는 이유가 궁금할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 바로 요나서가 말하고자 하는바 근본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진리가 코로나 사태로 신자들이 가장 크게 곤혹스러워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도 되기 때문입니다.

신자라면 코로나로 인해 지금 가장 힘든 일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공감할 것입니다. 이 사태를 하루 속히 종식시켜달라고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목사님들이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신자와 교회의 첫째 의무이므로 당장 대면 예배로 모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교회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는 신자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준다고 대놓고 장담합니다. 신자들도 설령 감염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순교이므로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공적예배 대신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한시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사태가 해결되면 당연히 함께 모여서 대면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당장 공예배로 모이라고 강조하면, 다른 모든 소모임들도 그러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살인을 교사 내지 방조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띠우고 예배 보더라도 찬송과 기도할 때에 마스크를 벗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설이 좋지 않은 중소형 교회들은 소음이 나서 예배에 방해될까봐 완벽한 환기도 할 수도 없습니다. 실내에 모여 예배를 보는 것은 언제든 누구라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하철과 비교해 불공평하다고 반발하지만 지하철에선 찬양 기도하지 않고 식사 교제도 없으며 철저하게 환기를 합니다. 단순히 서로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공예배로 모이려는 동기는 아주 선하고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인간 생각에 옳다고 하나님 안에서 다 그런 것이 아니며 반대로 하나님의 옳은 것이 인간의 눈에 그렇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공적예배를 고집하는 것은 바울이 신자들을 핍박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다는 잘못된 열심 때문에 순진한 신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가 이단이라는 자기 확신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죽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짐짓 무시하니까 더 나쁩니다.

코로나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엄연히 과학적 진리입니다. 그리고 과학에서 확정된 진리는 절대로 신앙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피조세계에 부여해 놓으신 질서와 체계를 역으로 추적하여 발견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입증된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병균이 신자를 피해간다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면 인간에 불과한 목사가 공적예배에 출석하라고 절대로 강요 주장 권면해선 안 됩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죽게 되는 것은 순교도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하며 직접적으로 신앙을 핍박하는 세력에 맞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대체방안이 있습니다. 다른 모임은 통제하지 않고 교회만 문제 삼으니 종교적 박해라고 반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잘못한다고 신자가 따라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앞장서서 사회적 격리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를 구해준 이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신앙의 직접적인 박해를 받았고 기적이 아니고는 그들의 생명을 구해줄 방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면예배금지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닌데도 기독교 쪽에서 종교적 명분을 내세워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불신 세상으로 하여금 기독교만 유독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을 내세운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기독교가 이런저런 이유로 신망을 잃고 있는 상황애선 더더욱 조심을 해야 합니다.

신앙으로 행할 첫째 의무

터키의 갑바도기아 지역에 엄청나게 큰 지하 동굴 지역이 있습니다. 예배당 학교 방앗간 등 모든 시설을 갖춘 하나의 거대한 도시입니다. 사방팔방으로 좁은 미로가 거미줄처럼 뻗어져 있고 아직도 조사 발굴이 진행 중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 숨어서 살았던 곳입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해가 AD 64 년경이고 컨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313 년이므로 박해는 250 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최소한 그곳에서 몇 세대들이 바깥세상과 절연한 채 살았을 것입니다.

몇 주 전에 TV 에서 그곳을 다시 보는데 작금의 코로나 사태와 비교가 되면서 그들의 비참했었을 상황이 추측되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들은 박해하는 세상 세력과 맞서려고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예배 보지 않았습니다. 숨어서 신앙만 지켰는데도 그 믿음은 더 성숙해졌을 것이며 매우 경건한 삶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숨어버린 이유는 오직 하나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배 때문에 목숨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순교도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자만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짧으면 몇 개월 길어야 1-2 년을 죄송하지만 더 안락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그것을 못 참고 마치 순교하는 믿음인양 공예배로 모이길 고집합니다. 교회가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생활의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고전 9:19,20)

오직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해주려는 것이 바울의 인생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상황에 따라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적 원칙의 실행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는 헬라인 앞에서도 유대인 행세를 하면서 헬라인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막상 자기 삶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처럼 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더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요나서 전체의 주제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참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또한 그런 뜻이나 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니느웨의 이방 족속은 물론 그들의 가축과 박넝쿨의 육신적 생명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모두를 당신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으며 아무리 골치만 썩이는 불효자식이라도 사랑하며 더 애틋하고 안타깝게 여깁니다.

신자로서 가장 먼저 행해야 할 바는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이웃들의 생명과 피조세계 전부를 소중하게 가꾸고 보존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목적이고 인간에게 주신 첫째 소명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활기가 넘치게 다스려야 합니다.(창 1:28)

불행하게도 인간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바람에 세상은 탐욕에 젖은 인간들끼리의 무한경쟁 터가 되어서 함께 왜곡 타락 파괴되어져 갔습니다. 서로 자기들 집단과 나라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덤벼서 온갖 부조리 모순 다툼 저주 등이 생겨났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이 전 세계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탐욕과 죄악에 기인하고 또 그로 인한 지구의 황폐화가 그 위협을 일층 악화시켰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생각보다 심각해서 생태계의 위기가 과학자들의 예측보다 더 급속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인간의 생존자체가 위협 받고 있다고 누구나 실감할 정도입니다. 저는 약 이십년 전부터 지구온난화에 따른 폐해를 신자들이 앞장서서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현세대를 살아가는 신자의 첫째 책임은 국가 인종 종교를 뛰어넘어 더 이상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고 청정 지구로 되돌리는 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백세 시대인지라 우리 후손이 아니라 당장 우리부터 큰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교회가 가르쳐야 할 유일한 진리

신자는 무엇보다 생명을 귀하게 가꾸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따져볼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일부 진보적인 목회자들이 친일파를 척결하자는 정치적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교회에서도 그것이 성경적 진리인양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는 마셔야 합니다. 그런 정치적 운동과 그 뜻이 나쁘다고 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다룰 주제가 아니며 정 가르치려면 성경에 부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알기 쉽게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로 그 나라를 위해서 적극 협력 충성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들도 친일파로 정죄 매도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모든 신자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위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그 이유는 한 가지 뿐으로 요나서 결론이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에겐 니느웨, 애굽, 바벨론 사람들 모두 당신이 지으신 당신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에게 고래를 예비해 놓으신 것이나, 그 배속에서 기도를 듣고 구해준 것도 일차적으로는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아끼신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그에게 시킬 일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당신을 거역했음에도 벌을 주지 않고 살려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삼 년간 동고동락하며 수제자로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역의 현장에도 참여했고 그분의 기적을 맛보았고 스스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 목숨이 날아갈 판국에 이르자 세 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목숨 걸고 스승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마저 친일파를 배척하겠다면 베드로부터 배척해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제가 일제 강점기에 있었다면 친일파 명단에서 빠졌을 확률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겁이 많고 생명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베드로처럼 재판장에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도망갔을 것입니다. 아니 그전에 주님의 제자로 택함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비겁하고 치사하며 죄 많은 나 같은 자마저 사랑하시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그 크신 은혜 앞에 전심으로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생명을 위협 받는 순간이 닥치면 부끄럽지만 목사인데도 순교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작금 기독교 보수 쪽은 코로나 와중에 공예배로 모여야 한다고 합니다. 생명의 귀중함보다도 종교적 계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드리러 오다가 형제에게 욕을 들을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했습니다.(마 5:23,24) 예배보다 형제간의 화목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면 예배보다 생명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독교 진보 쪽은 베드로, 다니엘, 요셉은 무시하고 해방 된지 75 년이 지났는데도 친일파의 후손까지 척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생명을 가장 우선하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세상의 윤리적 기준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결국 보수는 종교를 진보는 윤리를 하나님보다 우위에 둔 것입니다. 둘 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며 성령으로 역사해야 할 교회를 담임 목사의 종교적 정치적 견해에 따라 운영하는 꼴입니다.

교회가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진리는 도덕과 종교가 아닙니다. 그 두 가지에 가장 능통했던 베드로는 스승을 배반했고 바울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도덕과 종교로 따지면 가장 질이 나쁜 죄인이었습니다. 교회는 거꾸로 도덕과 종교로는 인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은 민족과 국가를 초월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그것도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전혀 묻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필요치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오직 그 사랑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바도기아 신자들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것 오직 하나였을 것입니다. 성경도 제대로 없고 체계적인 기독교 계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외부에서 사도들의 복음서나 서신서 하나를 구해오면 모든 사람들이 단어 하나 빠트리지 않고 달달 외웠을 것입니다. 그들에겐 정말로 예수님만이 알파요 오메가였을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첫 걸음

코로나 사태에서 교회는 공예배로 모이는 것은 잠시 보류하셔야 합니다. 신자들은 가장 손쉽게 마스크부터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위에 다른 이의 생명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첫 걸음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작은 자에게 충성하는 하나님의 작은 일입니다.

무엇보다 까닭모를 두려움에 휩싸인 세상 사람들 앞에 신자는 평강과 자유와 활력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위로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사를 되돌아보면 역병이 돌 때, 큰 재앙이 생겼을 때, 종말론적인 현상이 생겼을 때에 오히려 복음으로 돌아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911 테러 때가 그랬습니다. 지금이 신자들이 신자답게 바로 서있으면 또 다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에 어떤 사람이 슈퍼마켓에 가서 온갖 음식과 손세정제와 휴지들을 필요한 만큼 카트에 담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지불하려고 지갑을 봤더니 수십 불이 모자랐습니다. 어쩔 줄 몰라 당황해 하고 있는데 마침 캐셔 할머니가 자기 돈으로 부족분을 메꾸어주었습니다. 생판 모르는 남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녀의 대답은 필수품이기(essential) 때문이라는 한마디였습니다.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일을 넘어 생존하는데 당장 없으면 안 되는 물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코로나 사태에 행할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컨대 교회에 쌓아둔 헌금 보따리를 과감히 풀어서 궁핍한 자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작금 빨리 교회로 모이려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솔직히 교인들과 헌금이 줄까봐 염려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재산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면 오히려 교인들이 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재정후원까지 받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성도들 개인의 삶에도 크게 임할 것입니다.

구약에서 십일조를 제정한 뜻도 구제를 위한 것입니다. 구제를 하는 목적은 생명의 보존입니다. 지금 보수 쪽에선 십일조 하지 않으면 교인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하고 진보 쪽에선 신약시대에 더 이상 지킬 필요 없다고 교리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는 종교적인 의를 자랑하고 진보는 성경적 지식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쟁이 예수님의 참 생명으로 죄인을 살려내는 일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깝고 한탄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일조 제도를 제정한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으며 지금도 그대로 시행하는 신자는 누가 뭐래도 영적인 유익을 풍성히 누립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순교를 빼고는 생명을 아름답게 유지 보존하는 것이 신앙으로 행할 첫째 사명입니다. 실제로 창조 시에 인간에게 주신 첫째 명령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우리가 살아있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또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이는 하나님도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없습니다. 기독교 구원은 절대로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며, 신자가 된 후의 형통과 안일을 보장해주는 구원은 더더욱 아닙니다. 한 알의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이 되어서 수십 배 수만 배의 생명을 살려내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단순히 공적예배를 드렸다고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요나에게 시킬 일이 있어서 구해주었듯이 신자도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와 신자가 행할 구제는 단순히 돈으로 도와주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자기가 행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시간, 기도, 격려, 위로, 믿음 등을 베풀어주면 됩니다. 무엇보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불신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요나서가 신자에게 주는 첫째 가르침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삯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욘 1:1-3)

아주 이상한 선지자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 간 이야기로 시작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혼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가 폭풍우로 배가 난파될 지경에서 제물로 바쳐지겠다고 자진해서 나선 것과 고래 배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해서 구원 받은 의로운 면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전혀 선지자답지 못한 모습으로 남에게 꺼내놓기에 아주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무슨 책이든 서두에는 그 책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제시합니다. 요나가 도망가게 된 이유와 배경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요나서 전체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로 직통계시를 받았습니다. 요나도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2 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한 문장으로 똑똑히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입장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귀에 대놓고 직접 말한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겁이 나서라도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한두 번만 빠져도 이러다 하나님께 큰 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나도 모르게 염려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에겐 인간적으로 동정해줄 여지가 있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여호와를 믿으라고 선포하다간 당장 돌에 맞아 죽을 것이 너무 뻔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슬람 국가에 가서 모스크 앞에 서서 핸드 마이크를 들고 예수를 믿으라고 큰소리로 노방전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도 당장 잡혀가 큰 곤욕을 치를 텐데 당시는 그 현장에서 돌이나 칼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이는 믿음과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로 아무리 하나님의 직접 명령을 받았어도 당장 실천하기 힘듭니다. 베드로도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자기 목숨이 달아날 판국이 되자 스승을 세 번이나 부인 배반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죽지 않으려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기 바빴고 그나마 믿음이 가장 좋은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으면 두려워서라도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말은 너무나 가난하고 치사하며 어리석기까지 한 자신의 영적실태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반증입니다.

요나로선 일단 자기 생명부터 건져야만 했습니다. 틀림없이 여호와께 몇 번이고 저는 그럴 수 없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수록 더 확고히 명령하시면서 당신께서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약속까지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니느웨와 그 백성들이 요나에겐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것입니다. 니느웨는 당시 중동을 지배하는 이방의 최강대국 앗수르의 수도였고 앗수르는 이스라엘을 오래 동안 아주 잔인하게 괴롭혀 왔던 철천지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로선 여호와가 그들을 당장 심판해주어도 성이 안 찰 판인데 오히려 회개시켜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고 심정적으로도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앗수르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되는 감정을 지녔습니다. 그들의 강대함과 잔인함에 대해 크게 두려워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사악한 민족이라고 크게 멸시했습니다. 거기다 요나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 세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합 왕조 다음으로 국력이 강력해진 제 2 의 황금시기였습니다. 모처럼 앗수르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겠다는 자부심이 생긴 판국이라 요나는 더더욱 니느웨로 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요나로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더 부강하게 만들어서 니느웨를 쳐서 승리하게 만들든지 최소한 니느웨의 침공을 막아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당신의 백성에게 행할 바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들도 사랑으로 품어주겠다고 하니까 도무지 동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컨대 니느웨를 심판해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자기 나름의 강력한 방식으로 데모하는 셈입니다.

거기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지경 내에서만 당신의 권능을 역사하신다는 미숙한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호와가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세상만사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 체험한 적이 없어서 실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 보면 하나님도 체념하거나 생각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결국 요나가 택한 최선의 방안 아니 궁여지책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중해 연안이 세상의 전부였기에 스페인 남서쪽 끝에 있는 다시스가 땅의 끝으로 여겨졌습니다. 성경은 그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그곳으로 가는 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3 절) 그로선 다시스로 가는 것이 여호와가 당신의 뜻은 아니라도 묵인해 주시나보다, 혹은 최소한 자신에게 요행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아무에게나 명령을 주었다가 거절되면 또 다른 사람을 택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다시 주실 리는 결코 없습니다. 반드시 요나에게 그렇게 명령했어야 했고 요나도 그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기어이 그를 굴복시켜서 순종토록 만든 것입니다.

요나로선 실패했다고 여겼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요나를 반드시 당신의 일에 들어 쓰고 싶었고 당신께서 그대로 이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로선 그만한 성공도 없습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며 반대로 인간의 성공도 하나님의 성공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요나에게 강요하신 첫째 이유

이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요나더러 기어이 니느웨로 보내려 하신 이유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처한 모든 상황과 개인적인 믿음과 생각을 잘 알면서도 명령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요나의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점부터 깨우쳐주려는 것입니다.

당시로선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최고로 의로운 요나일 텐데도 하나님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앗수르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게 만들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방관한 책임이 있는데도 그 악인들을 벌주지 않겠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들은 천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세상에서 의인은 항상 억울하게 손해 희생당하기만 하는 반면에 악인들은 떵떵거리며 풍요하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왜 손을 놓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소를 도둑맞고 난 후에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요나와는 정반대로 그들의 죄악에 당신의 책임이 전혀 없고 니느웨가 당신을 대적하여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자기만 세상에서 최고가 되어야만 성에 차게 되었습니다. 필연적으로 자기가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편하게 차지하려는 싸움이 끊임없이 지속됨으로써 경쟁 시기 질투 분노 저주 도둑 살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세상의 죄악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일 뿐입니다.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짜로 제공한 잘못 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사탄의 꾐에 넘어가서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자들 중에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예 사탄도 없애고, 자유의지도 주지 말고 악이 생길 소지를 완전 차단해야 하지 않느냐고 종종 따집니다. 이런 억지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 인간을 신적인 존재로 아니면 짐승이나 기계나 물질로 만들었어야만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자동차를 처음 만든 자는 과속이나 부주의로사고가 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만들기 전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동차는 인간에게 교통과 수송에서 너무나 유익하고 편리한 도구가 될 것이므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에 대비해서 속도계와 제동장치와 안전벨트 등을 달고 관련 교통법규도 당국과 의논해서 제정한 후에 차를 만들었습니다.

운전자로선 자동차를 항상 잘 정비하고 교통법규와 안전속도를 지키면서 방어운전을 하면 평생 무사고로 자동차의 모든 유익을 활용하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 규정대로 따르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아예 자동차를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불행은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따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생떼입니다. 요컨대 사탄 같은 나쁜 친구의 꾐에 넘어간 것은 본인의 잘못이지 그 나쁜 친구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인간을 조종 미혹할 줄 알았고 인간이 넘어갈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필립 얀시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줄 알면서도 인간에게 당신과 사탄 중에 누구를 따를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은 당신의 독생자를 죄에 찌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여서 그 죄 값을 치르게 하려는 완벽한 구원 계획을 태초부터 마련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악독하게 괴롭힌 것은 일차적으로 그들의 죄 때문이지 하나님의 탓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들과 별로 다를 바 없었습니다.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당신의 거룩한 율법을 수여할 때부터 그대로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창세기의 네 족장의 일생에 풍성한 은혜로 개입하셨고 또 노예 살이 하던 애굽에서 큰 기적으로 구원해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얼마나 큰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지 확실하고도 가시적인 증거들을 넘치도록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현실적 형통과 세속적 쾌락에 눈이 어두워서 여호와를 고의적으로 배반하며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숭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며 율법은 형식적 껍데기로 방치했습니다. 요나가 지금 니느웨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원망할 계제가 전혀 아닙니다.

요나에게 강요하신 진짜 이유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정작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앗수르와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당신의 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요나가 의심 원망하는 것과는 달리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절대 손을 놓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를 타락시킨 것은 인간이요 그런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도 당신이 아니라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경쟁하듯이 죄악을 만들어 내고선 그 부정적인 폐해에 대해 모두가 하나 같이 남들 탓으로 돌리며 서로 책임 전가하고 있습니다. 힘이 센 자만이 정의이며 힘이 약한 자도 자기들 잘못은 잊고 하나님에게 억울하다고 온갖 핑계를 대며 불평 원망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결코 그런 상태를 버려두지 않고 지금도 요나를 통해 적극 개입하시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만약 니느웨가 정말로 회개하면 이스라엘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것이니까 요나의 고민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더더욱 요나가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잘못될 리는 절대로 없으며 단지 인간의 것보다 훨씬 높아서 다를 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가도 여전히 세상의 절대적인 주관자이자 거룩한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들에게 병 주고 약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죄악은 전적으로 인간의 잘못이자 책임이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분은 자나 깨나 인간의 구원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모든 병은 인간이 만들어 내었음에도 하나님이 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자기들 죄로 죽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잔인하고 악독한 죄인들까지 구원해주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고 의롭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이 땅은 사실상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등을 진 상태이며 엄밀히 말해서 원수의 자리에서 그분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구원을 받기 전에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알지도 못하며 그전에 찾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미혹 아래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를 그대로 두면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절망과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 꼴을 그냥 두고 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셈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의 억울한 사정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다. 선지자로서 네 수고를 기억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너희는 그래도 내가 준 율법과 제사는 물론 신앙의 유전이 있으며 선지자들도 너희 속에 보내지 않았느냐? 그러나 저들은 아무 것도 없고 오히려 사탄의 궤계와 모략과 농락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느냐? 과연 내 심정이 어떠한지 조금이라도 생각해보았느냐? 내가 손을 놓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아무리 세상에는 흑암과 절망과 죽음과 죄악뿐이라 해도 하나님 안에선 반드시 빛과 소망과 생명과 의가 넘친다고, 그래서 세상 문제의 해답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가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창조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간 세상을 향한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사실이 단 한 순간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노아,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의 궁극적인 말로가 어떠한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미리 보여준 증거였습니다. 그런 증거는 역사적으로 몇 번이면 족하지 매번 보일 수는 없습니다. 요나 생각대로 하자면 세계 도처에서 매일 폭죽 터지듯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 내려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역사상 최고의 사탄의 도성인 로마를 한 번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도덕적 종교적인 의에만 능통한 바리새인들이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한지 물었을 때에 주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오늘 주제와 연결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가이사에게 속한 자 둘로만 나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선의 열매를 맺게 마련이나 가이사에게 속한 자들은 가이사의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면 가이사에 속한 자를 배척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요나더러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원수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죄악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도 하나님은 요나서와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태를 절대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잘못이자 책임입니다. 왜 그냥 두고 보시느냐고 의심 불평할 조건과 자격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최고로 고급한 이성을 주었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부하게 쓸 수 있도록 공짜 은혜로 다 베풀었습니다. 지금의 인간 사회는 모든 면에서 유사 이래로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의 생활이 고대의 왕들보다 더 풍요롭고 호사스러울 정도입니다.

문제는 인간은 너무나 치사하고 연약하고 완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의로워지고 싶은 소망은 다 있으나 막상 실천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지금껏 체험했듯이 착한 일은 쥐어짜듯이 노력해야 가뭄에 콩 나듯이 겨우 행하는 반면에 악한 일은 너무나 자주 손쉽게 저지르면서도 대부분 모르고 지나칩니다.

이는 삶과 여건의 풍요와 궁핍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평온 때에 착해지고 고난 때에 악해질 것 같으나 실상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고 지금도 여로보암 2 세 통치 하에 이스라엘이 강력해졌는데도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고난이 닥쳐야 뒤늦게나마 겨우 정신을 차리고 새삼스럽게 회개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전부가 인간죄악의 결과입니다. 결국 인간사회 불행은 전적으로 인간의 발명품입니다.

예컨대 광산 채굴에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으나 전쟁 살상 무기로 바꾼 것은 인간의 탐욕과 죄악입니다. 큐리 부인이 질병을 치료한 목적으로 엑스레이를

발견했으나 세상 권력은 핵폭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플레밍이 하나님이 섭리로 마련해 놓은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추출해서 획기적인 질병치료법을 개발했으나 인간끼리의 무한경쟁으로 자연을 계속 파괴시키는 바람에 슈퍼바이러스가 생겼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으나 그와 동시에 인간의 죄악으로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골칫거리로 바꾸어버리지 않은 것도 하나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손발을 편하게 움직이려다가 거꾸로 스스로 족쇄를 채워버린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병균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왜 이렇게 걷잡을 수 없게 번졌는지 그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조사 중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탐욕과 그로 인한 기후변화가 근본원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처음에 중국에서 쉬쉬한 것은 분명히 정치적 모략이었고, 지금 미국에서 마스크를 써야한다 안 써도 된다고 아무 짝에도 쓸데없고 비과학적인 논쟁을 하는 것도 정치적 당파적 이익 때문입니다.

미처 돌아가는 세상

더 큰 문제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나뉜 사람들끼리 이제는 서로를 완전히 원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메시지와 정반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세상이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농락에 춤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질 기미는 없고 앞으로는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자연재앙의 세기와 피해는 엄청 심해질 것이며 더 심한 바이러스들이 생길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딤후 3:1-5)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완전히 식어졌습니다. 요나는 그나마 니느웨를 미워할 타당한 명분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단지 서로 의견을 달리 한다는 이유로, 아니 내가 저들보다 더 선하기에 저들은 악한 것이며 그래서 원수 삼아 마땅하다는 식이 되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었던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이 그러하니 다른 곳은 더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의 공의는 한갓 쓰레기일 뿐입니다.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며 사람의 생각하는 바는 어려서부터 죄악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만 따지면 지금 당장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공의는 어리석고 완악한 인간이 지레짐작한 것일 뿐 정작 하나님의 공의는 그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에겐 당신의 긍휼과 함께 할 때만 당신의 공의가 완성됩니다. 다시 어폐가 있지만 긍휼 없는 공의는 하나님께는 오히려 죄악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해도 그 사랑에 변함이 없으신 그분에게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자를 향한 소원은 오직 하나입니다. "너희는 이미 영생을 소유했으니 영원한 죽음은 절대 없다, 그러나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저 불쌍한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네가 가서 십자가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지 않겠니, 비록 그곳이 무슬림 지역이든, 공산국가 평양이든, 철천지원수 일본 도쿄든지 말이다. 네가 내 대신 제발 가서 내 애끓는 뜻을 전해 달라. 코로나로 보듯이 이제 정말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야 하지 않겠느냐?"

이참에 세상 권력이 교회를 탄압하려는 기색이 있으며 유독 개신교가 누명을 쓰는 억울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억울하게 여겨선 안 됩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세상은 사탄에게 미혹되어 있기에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인 기독교에만 항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런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핍박을 받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의 신자 됨을 의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욕 받음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인간 개인과 공동체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절대적 진리는 오직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작금 그 진리를 알고 믿는 신자들마저 도대체 중심을 못 잡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은 더 그러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진리대로 사는

아름답고 거룩한, 특별히 지금은 담대한 모습을 세상 앞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공적 예배 같은 종교적 의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또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로만 살고 죽어야 합니다.

신앙이란 교회 활동에 열심을 내는 정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과 긍휼이 가는 사람 장소 사건 시간과 똑같이 신자의 마음과 관심과 긍휼도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당신의 마음이 니느웨로 가니까 그도 그렇게 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도덕적 종교적 기준으로만 판단하고선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대놓고 거부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자신의 의로움도 증명하려는 것 같으나 사실은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과 욕심과 분노와 저주를 실현하려 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전적으로 인간의 죄악과 탐욕의 결과라면 그 해결책은 모든 인간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자더러 내 대신 니느웨로 빨리 가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궁극적으로는 신자가 나서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지금 현실이 힘들어도 예수님 없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더 힘들고 정신적 영적으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신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나누지 않으면 그들에겐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혹시 지금 신자들마저 하나님이 이 사태에 손을 놓고 있다고 여기고 두려워서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사탄에게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상하게 일이 자꾸 꼬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 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욘 1:4-10)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

요나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고 도리어 회개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당시의 세상의 끝이자 니느웨의 정반대 쪽인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려 요나가 탄 배를 파선될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4 절) 그 풍랑의 원인을 알고자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렸고 요나도 지은 죄가 있어서 바다에 던져져 폭풍우를 잠재울 제물이 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미국의 한 신학자가 요나서에는 다섯 번의 우연의 일치가 있다고 분석했는데 그 첫째로 태풍이 일어났다는 본문 4 절을 들었습니다. 둘째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풍랑이 그친 일을(1:15), 셋째는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한 것을(1:17), 넷째는 그늘지게 하려고 박 넝쿨이 나게 한 것을(4:6), 마지막 다섯째는 그 넝쿨을 하루 만에 시들게 한 일을 꼽았습니다.(4:7) 강해를 해나가면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두 배인 열 번도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 1:3 에서부터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는데 마침 그 배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요나서는 우연의 일치 즉, 일상적 상황이라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판타지 소설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요나는 물론 아무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인뿐 아니라 전부 하나님과 직접 연관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겪은 신자 본인이 아니고는 기록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본문이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요나가 배 밑창에서 깊이 잠 들었다고 합니다.(5 절) 여호와의 낯을 피해 최대한 멀리 도망가려는 생각이 은연중에 작용하여 밑창에까지 숨어든 것입니다. 스스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비겁하고 부끄럽게 여겨져 아무도 만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깊은 잠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후로 이래저래 신경을 많이 쓰는 바람에 육신적으로도 아주 피곤해졌던 것입니다.

본문은 또 여호와께서 큰 풍랑을 일으켰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석하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인식에 따른 진술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요나가 바다에

제물로 바쳐지고 풍랑이 잠잠해진 후에야 여호와가 일으킨 풍랑이었다고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여호와께 무슨 잘못을 범했는지 잘 아는 요나로선 풍랑이 일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이방인 사공들도 두려워서 자기들 신의 이름을 부르며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버리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중해의 사정에 능통한 전문가로 언제 어디서 어떤 풍랑이 부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태풍의 계절에는 배를 운행하지 않으며 통상적인 풍랑은 항해기술로 뚫고 나갑니다.

지금 풍랑을 만나자 바로 자기들 신의 이름부터 불렀고 짐을 버렸습니다. 말하자면 마른하늘에 갑작스럽게 격렬한 바람이 불어 닥쳤기에 뭔가 신의 큰 노여움을 샀으며, 풍랑의 세기로 봐선 짐을 바로 버리지 않으면 전복하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선장이 배 밑창에서 곤히 자고 있는 요나마저 깨워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6 절)고 재촉할 정도였습니다.

상이한 두 종류의 신관(神觀)

선장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거나 인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공들이 각자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른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선장과 사공들의 생각에는 요나에게 나라와 민족이 생업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듯이 각 지역 민족 나라마다 신이 다를 뿐 아니라 각 신들이 통치하는 전문 분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 항구마다 신이 다르고 거기다 바다의 신, 비바람의 신, 구름의 신, 안개의 신 등등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신의 노여움을 산 것은 분명한데 그 많은 신들 중에 어느 신인지 모르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각자의 신에게 빌라는 것입니다. 원어로도 선장이 말한 하나님은 통상적인 의미의 신(神)으로 복수형 엘로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도 너의 하나님을 불러서 용서를 빌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장은 누가 믿는 신이 노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자고 제안했는데 마침 요나가 당첨되었습니다.(7 절) 이 또한 하나님이 마련해놓은 우연의 일치입니다. 우연이란 자기가 소원 계획 시행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우연이 여러 번 겹치면 그 배경에는 그것들을 필연으로 이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인간 사회에 비상한 큰일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 사탄 둘뿐인데 지금은 당연히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제비를 미신으로 치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비는 인간의 불완전한 뜻과 다수결의 횡포가 작용될 소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엔 성령이 본격적으로 강림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도 성경으로 확정되기 전이라 하나님은 종종 제비로 당신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제비로 뽑았습니다.(행 1:26)

제비에 뽑힌 요나는 자신의 도피 행각을 순순히 인정하고서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요"라고 소개했습니다. 히브리인이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9 절)라고 덧붙였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은 지구 전체를 다 만들었고 영계에 계시는 분이므로 특정 지역에서 제한된 역할만 맡은 신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뜻입니다.

요나는 선장과는 달리 하나님이라는 명칭에 여호와라고 붙였습니다. 여러 신들을 동등하게 보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 고유명사 즉,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존재로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믿는 신은 상천하지에 유일한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었으니 이 풍랑도 일으켰고 나중에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시켜줄 분도 오직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보면 요나는 분명히 유일신 창조주가 실존하실 뿐 아니라 지금도 그분이 세상만사를 통치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그 사실을 알고 있다가 이번 일을 통해 생전처음 그 크신 여호와를 깊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고, 때에 맞지 않는 급격한 풍랑도 일었고, 제비에 자기가 뽑혔습니다. 세 번의 우연의 일치가 겹쳤으니 요나가 그 배후에 여호와가 살아 역사하심을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다시스로 도망치기로 결심하고 실행한 이후로는 틀림없이 여호와께 큰 벌을 받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염려했을 것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도 이 일을 묵인하는가보다 쉽게 판단하고 그간의 피로가 풀리면서 잠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걱정했던 큰 형벌이 실제로 자기 눈앞에 딱 벌어진 것입니다.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사시나무 떨 듯이 떨며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 때문이라고 자백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벼락 맞아 즉사하겠다는 예상도 쉽게 되었을 것이므로 순순히 선원들에게 자기 때문이라고 실토한 것입니다.

머피와 셀리의 법칙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 겹쳐서 필연으로 바뀌는 현상을 묘사하는 용어가 둘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려는 일이 항상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불행하게 진행되는 현상을 머피의 법칙(Murphy's law)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반대는 샐리의 법칙(Sally's law)으로 계속해서 자신이 바라던 대로 일이 순조롭게 일어남을 뜻합니다.

그럼 지금 요나의 경우는 이 둘 중에 어떤 법칙이 작용한 것입니까?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이 행하는 법칙입니까? 둘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한 가지 법칙에 매이면 벌써 하나님이 아닙니다. 요나 말대로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피조물인 바다가 그분을 이렇게 저렇게 제한할 수는 결코 없으며 당신께서 바다와 하늘을 움직입니다. 그분만이 세상 어떤 것에도 전혀 영향 받지 않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요나서에 기록된 여러 번의 우연의 일치를 일부 목사님들이 셀리의 법칙으로만 해석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번 어김없이 당신만의 큰 권능으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고난에서도 건져주신다고 합니다. 요나에게 시킬 일이 아직 남았기에

그랬다는 사실은 빠트리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소원하고 계획하는 대로 기도하면 다 이뤄진다고 하면 일종의 셀리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만사를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만 역사합니다. 때로는 머피의 법칙이 때로는 셀리의 법칙이 한 사건에서도 교차적으로 작용되게 만듭니다.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속담처럼 당신의 마음대로만 만사를 이끌며 그분의 마음에 개입하여 간섭할 수 있는 존재나 사건은 우주 전체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고도 도망갔으니 큰 벌을 받으리라고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큰 풍랑 즉, 큰 불행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큰 벌을 내렸구나 싶었다 여겼는데 제비에 자기가 뽑혔으니 죽음을 면할 길이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땅 끝인 다시스로 도망가려 한 것은 시간을 끌다보면 하나님이 체념 내지 계획을 변경해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며 또 그렇게 되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소원과 간구가 배를 타자마자 무산되었고 죽음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사태는 머피의 법칙대로 흘러갔습니다.

이것으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끝인가 보다 체념하고 있는데 바다에 던져지자 금방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이젠 셀리의 법칙이 작동되었고 헤엄쳐서 육지에 도달하면 살 수 있겠다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고래가 와서 자기를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또다시 거꾸로 머피의 법칙이 작동되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다시 살아날 것은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죽었다 싶었을 것입니다. 음식물을 분해해야하므로 사람의 위액도 아주 독한데 통째로 삼키는 동물의 경우는 그 독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사흘을 아무 탈 없이 견디며 기도까지 할 수 있었으며 결국은 산 채로 토해내져서 안전하게 육지에 상륙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가 기도하는 동안 고래가 육지까지 대신 헤엄쳐 준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셀리의 법칙대로 되었습니다.

신자의 통상적인 오해

많은 신자들이 믿음을 너무 단편적 표피적으로 정리하고선 삶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머피의 법칙은 사탄이 행하는 것이고 셀리의 법칙은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불행한 일이나 궁핍이 닥치면 사탄이 훼방한다고 여기고 행복한 일이 생겨서 풍부해지면 하나님이 축복해주셨다고 판단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고 선언합니다.(고후 11:14) 출애굽 사건 때에 보듯이 사탄도 큰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그 졸개인 무당마저 때로 병을 고칩니다. 사람들로 하나님을 등지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외면하게 만들기 위해선 사탄은 자기 간까지 빼줄 듯이 미혹시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마저 현실적인 복을 주는 메시아로 만들려고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시험했었고 사탄은 그럴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었습니다.(마 4:8,9)

인생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듯이 믿음이 좋거나 나쁘거나, 그 전에 불신자이건 신자이건 관계없이 행복과 불행이 교차합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속담대로 한 명의 예외 없이 온갖 고달픈 사연으로 구성된 대하드라마 같은 인생입니다. 한 사건 안에서 그것도 같은 장소와 시간에서 머피와 셀리의 법칙이 함께 작용합니다. 체질이 연약하고 영적으로 어리석기에 우리의 믿음도 그에 따라 널뛰듯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분이라고 오해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 원인이 없는 억울한 고난들이 일어났다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들은 깊이 따져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본인의 실수 허물 욕심 교만 죄악 때문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나머지도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비뚤어졌거나 궁극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온갖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병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화무쌍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청개구리처럼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맘껏 어질러놓은 일의

뒤처리를 하시느라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가끔 하나님이 정말로 병을 준 것처럼 여겨지는 일도 실은 당신의 백성들로 거룩하게 성장시키려는 징계입니다.(히 12:5-10)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면 가장 먼저 부모님의 입장에 대입하면 그런대로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이 잘못하면 벌을 주지만 무엇이 잘못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어서 더 잘 자라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자식이 아무 잘못하지 않았는데 벌 자체를 목적으로 주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다음에는 그렇습니다.

거기다 세상 모든 부모는 벌을 주고도 자식이 아파하는 모습이 애처로워 금방 벌을 중지하고선 다시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화가 나서 조금 심하게 때렸으니 울면서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처럼 자식이 잘못하면 당신의 종아리를 매로 때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킨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규범으로 율법을 수여했습니다. 그 첫 계명에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오직 당신만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출 20:5,6)

신자의 선악 간에 대한 상벌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대를 이어서 자동적으로 유전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치로 대수를 표현한 것은 비유입니다. 당신의 백성의 죄는 아주 짧게 기억하고 그 벌도 삼사 대 즉, 금방 그치나 당신을 순전히 경배하는 자들에겐 천대까지 즉, 은혜를 넘치도록 아주 오래 동안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잘못에 대해 징계는 하지만 금방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모습을 띄던 그 마지막 결과를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중간 과정이 셀리의 법칙이 작동하여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오히려 완전한 실패로 끝나는 것은 사탄의 농간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밖에 할 줄 모르며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형통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결실이 맺히는 것입니다. 신자의 미래가 언제나 분홍빛 카펫이 깔린 것처럼 거짓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긍휼을 외면시키는 것이 사탄이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세속의 풍요와 재미에 푹 빠치게 만들어서 골고다 십자가 쪽으로는 눈을 감게 만들고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바울이 고백했듯이(빌 4:12,13) 신자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궁핍 혹은 풍요에 처하게 하시되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당신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맙니다. 궁극적으로는 신자의 유익이 되게 하고 무엇보다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높아지는 결실을 맺습니다. 그분의 신자 인생에 대한 결론은 당신의 선한 뜻 안에서 성공밖에 없으니까 그곳으로 가는 과정은 어리석은 인간의 눈에는 대체로 고난과 연단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일이 자꾸 이상하게 꼬여가는 것 같아도 지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소망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주면서까지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요나에게 일어난 우연의 일치들은 매번 목숨이 오가는 역사상 최고 난도의 가장 무서운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안전하게 붙들어 매어서 당신의 목적지에 이르게 했고 무엇보다 당신의 당신 되심을 정확하게 계시해주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요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유대인 특유의 종교적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모든 이방 민족들을 멸시 천대했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괴롭힌 니느웨는 저주했습니다. 니느웨를 용서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닐 수 있다고 기대 내지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인 기원전 765 년에 니느웨에 극심한 역병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또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우연의 일치에 속합니다. 요나서와 시간적인 전후 순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요나를 포함한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이 니느웨에 벌을 주시는가보다 짐작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감히 도망갈 시도를 했을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그 역병을 니느웨더러 회개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허용하신 것입니다. 죄악의 도성 니느웨도 머피와 셀리와 상관없이 행복과 불행이 교차 되는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실현시킨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역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원인을 모르니까 마치 우연히 일어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죄악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양보해도 인간이 잠간 실수한 것뿐인데 너무나 큰 불행과 고난이 겹치니까 억울한 기분마저 듭니다. 신자들로선 그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며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전도했는데도 불신자들과 똑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성경공부나 기도모임까지 금지당하니까 더 억울하게 여겨지고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니느웨에 역병을 일으킨 것과 같은 아니 그 이상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선 요나서 주제대로 모든 인간으로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신자들이 요나처럼 당신에 대해 오해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세상으로 당신의 메시지를 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와 의미와 결과 등에 대해서 정확히 알리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자기 앞을 가리기 바쁘기 마련이라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이 팔려있습니다. 니느웨 백성이나 본문의 선장과 사공들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 요나마저 자기 욕심과 뜻대로 배 밑창에서 잠에 골아 떨어져 자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큰 풍랑이 일게 만들고 고래를 배 근처에 데려다 대기 시켜놓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혼자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배에 폭풍우가 치고 니느웨에 역병이 돌게 하는 것들 모두가 당신이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당신께서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끌고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고난이 닥쳤다고 사탄의 훼방도 아니며 하나님의 심판도 아니라 인간의 잘못이 원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에 대한 징계를 목적으로 풍랑을 허용했을 뿐입니다. 징계는 심판과 달라 회개하면 그치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혹시 회개하지 않는다 해도 벌 받는 어린이로선 자기 잘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수 있고 부모도 적절히 벌을 주고는 그치듯이, 이 사태를 당신의 때와 방식으로 반드시 종식시켜주십니다.

코로나 사태의 궁극적인 해결책

작금 신자들마저도 종말적인 공포심에 젖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지만 하나님만은 당신의 완벽한 뜻과 계획에 따라 묵묵히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뜻을 당신을 대신해서 이 땅의 현실에 실현시킬 자가 있어야 합니다. 요나 때나 지금이나 당신께 헌신 순종하는 신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억울해 하거나 핍박받는다고 여기고만 있다면 그분의 일에 동참하지, 아니 부름 받지도 못합니다.

혹시라도 코로나 사태에 교회로 자꾸 모이려는 것이 교회에 모여 기도해야만 불안감도 없애고 병도 안 걸릴 것 같은 생각 때문은 아닙니까? 요나처럼 배 밑창으로 깊숙이 숨으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여호와께 가까이 간다고 여기지만 오히려 여호와의 낯이 우리를 피하지 않을까요? 신자가 된 것이 우리끼리 기도해서 우리 목숨을 지키는 정도라면 독생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그 큰 희생을 치르며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신자들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고 계십니다. 온라인 예배의 참석률이 교회등록 인원보다 훨씬 적고 이 사태가 끝나도 그럴 것이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장 추측 가능한 원인들이 몇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태에 무력하게 손 놓고 계시다고 여겼거나, 주일에 교회 가서 봉사하지 않고 지내보니까 너무 편해졌거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별다른 벌을 받는 것 같지 않아 교회에 출석할 필요 없다고 여겼거나, 인생에 아무런 해결책도 절대적 진리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 허무해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요나서에서 보듯이 기어이 당신의 거룩한 뜻을 당신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해본 적이 없는 신자들입니다. 처음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자기를 전부 바치며 항복해본 적이 없는 거짓 신자들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천포스트 9/24 보도에 따르면 18-36 세의 밀레니엄 세대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믿는 자가 겨우 2% 밖에 안 되며 전체 평균도 6%에 그친다고 합니다.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종합한 결과이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신자들 거의 대부분이 창조가 아니라 진화로 이 땅과 인간이 생겼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연히 형성된 물질 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이라면 교회, 예배, 성경, 기도, 진리 등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리라 믿는 것은 말도 안 되며 단순히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소개합니다. 비록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다와 육지를 지으셨다고 고백하는 요나의 수준도 안 됩니다. 세상은 니느웨로 바뀐지 이미 오래이며 그것을 하나님 쪽으로 되돌려야 할 교회와 신자도 점점 똑같은 수준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간 사회가 어떻게 될지는 신학과 교리를 몰라도 너무 빤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머피의 법칙에 따른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에 따른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만 참 소망을 회복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영양제 몇 알을 먹이고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만 하는 의사는 살인한 것과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일부 목사님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 지구가 황폐화된 탓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악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류 역사 내내 항상 있어왔습니다. 지구 황폐화는 최근에 생긴 것이라 지금이라도 인간끼리 힘을 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의 결론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났다가 시들은 박 넝쿨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신자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하므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욘 1:11-16)

너무나 신사적인(?) 사공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자마자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 파선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선원들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격렬한 풍랑인지라 신의 노여움을 산 것이 틀림없다고 보고 누구의 신이 노했는지 알아보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결과 요나가 뽑혔고 요나도 여호와의 낯을 피했기 때문이라고 그 간의 사정을 실토했습니다. 선원들로선 짐작은 했지만 실제로 신이 격노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자 심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10 절)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고 다그쳤습니다.

그리고는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11 절)는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점점'이라는 단어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럼 요나에게 다그치고는 곧바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다그친 것은 단순히 화를 내며 원망한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고 요나의 의견부터 먼저 물었습니다.

선원들은 항상 거센 파도와 싸워야 하니까 대체로 성격이 급하고 거칠게 마련입니다. 요나 때문에 이 풍랑이 임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차분하고 이성적인 선원들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평소에는 아주 과격했으나 이상하게 이때만 온유해졌을 것입니다.

어느 경우가 되었든 사공들이 요나를 잠시 살려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자 그 분의 숨겨둔 또 하나의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만약 사공들이 요나를 곧바로 죽여 버렸다면 요나서는 그것으로 끝나게 되므로 이는 비록 숨겨져 있으나 아주 중요한 우연의 일치입니다. 자세히 그 배경과 의미를 추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불신자들처럼 나라마다 사람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 다르며 또 그러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믿는 여호와가 이 풍랑을 일으켰다면 그 신의 노여움을 다스리는 방법도 요나만이 알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들마다 또 각 경우마다 제사 드리는 절차와 제물의 종류가 다른데 이럴 때에 너희 종교에선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실토한 요나에게 구원의 방식도 다시 물어서 정확한 답을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네가 믿는 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어서 빨리 이 바다를 잠잠하게 만들어보라는 것인데 만약 네 방식으로 잠잠하게 못하면 우리 방식대로 시도해볼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상 종교는 신들의 이름과 종교적 의식은 다 달라도 근본사상은 하나로 동일합니다. 자신과 가족의 현실적인 안락과 형통만을 비는데 자기들 신에게 바치는 치성의 질과 양에 따라서 축복의 질과 양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은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겉으로 말은 하지 않았어도 누군가 희생 제물로 바쳐져야만 신이 분노를 거둘 것이라고 다들 무언의 합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인 요나는 당시 이방인들의 기본적인 종교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공들이 최악의 경우에는 자기를 제물로 바다에 바치길 원한다는 뜻도 눈치 챘을 것입니다. 본문이 일어난 사실만 간단히 진술하고 있지만 배안의 전체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화물마저 이미 바다에 던졌습니다.(5 절) 그만큼 풍랑이 심했고 할 수 있는 모든 방책을 다 동원한 것입니다. 이젠 마지막 조치로 신의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이 요나에게 점잖게 말했지만 "미안하지만 이 사태의 시발자인 네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어야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요나도 도무지 풍랑이 잦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차피 죽을 바에야 스스로 바다에 뛰어드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했던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엄청난 풍랑을 보고 절감하고 크게 뉘우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12 절)고 말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죽게 할 수는 없다는 윤리적 책임감도 아주 컸던 것입니다. 어쨌든 현 상황에서 그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습니다.

불신자들의 기도도 응답되는가?

그런데 성경은 자진해서 제물로 바쳐지겠다는 요나의 대답을 듣고도 사공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려고 노력했다고 말합니다.(13 절) 막상 요나가 자기들이 기대했던 대로 순순히 응해주었는데도 또 다시 곧바로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큰 파도에 자기들을 위해서 스스로 몸을 던져주겠다고 하니까 사공들도 양심에 일말의 가책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젖 먹던 힘까지 다 동원해 노를 저어 봐도 바다는 더 흉용해져서 배는 전복할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풍랑이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파도는 곧바로 잠잠해졌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을 것이며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습니다."(15 절)

사공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기도한 것과 마지막에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보면 언뜻 그들도 여호와를 믿은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이 일이 요나가 믿는 신 때문에 일어났기에 기도도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며 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뿐입니다.

실제로 저와 아주 가까운 분이 제가 목사니까 이와 비슷한 주제의 질문을 진지하게 물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특정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대형 병원에서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의 환자들을 위로해주는 일에 자원봉사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에게 먼저 종교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미리 작성된 동일한 한 가지 내용의 기도문에 각 종교의 절대자의 이름만 번갈아 대입하여서 수술이 잘 끝나게 해달라고 대신 기도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되며 또 그러는 것이 종교적 성경적으로 올바른 일인지 물었습니다. 평소 자신이 생각해도 뭔가 불합리하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환자에게 두려움을 줄여서 정서적인 안정은 조금 줄 수 있겠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대답해주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는 신자가 기도해야만 응답이 되며 그 전에 기도는 제 삼자보다 본인부터 진정한 믿음을 갖고 해야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동일한 상황이라도

미리 작성해놓은 문구대로 읽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므로 아무 능력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사공들도 그와 같은 맥락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평소에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으면서도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여겼습니다. 여호와도 여러 신들의 하나이지만 이번 일은 어쨌든 제비가 뽑힌 것이 증명하듯이 여호와가 분노했기에 그 이름으로 간구한 것입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종교관은 누구나 여러 신들을 동시에 각 신들의 방식대로 자유롭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주장 같으나 그런 생각이 발전하다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잡신들도 다 능력이 있으며 사탄을 믿어도 된다는 데까지 갑니다. 일류대학을 나와 지성과 이성이 뛰어난 큰 회사 사장도 계획대로 사업이 풀리지 않으면 영험한 무당을 찾아가서 굿을 벌리는 이유입니다.

우상은 참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이므로 모든 우상 종교의 배경에는 당연히 사탄의 농간과 조종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모든 종교는 창조주 참 하나님을 믿는 종교와 그렇지 않은 사실상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 두 종류로만 나눠집니다. 바울은 그래서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고전 10:20,21)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중한 경고인지 아셔야 합니다.

사공들이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이유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14 절) 요나를 바다를 잠재우는 제물로 바치긴 하지만 요나가 자기 죄 때문에 자원한 것이지 자기들이 강요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연유가 되었던 여호와의 선지자인 요나를 죽이면 혹시라도 여호와가 거꾸로 자기들에게 분노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잠시나마 요나를 살려두고 배를 살려보려고 노력했던 진짜 이유였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무 문제없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기도한 대로 되었습니다. 요나를 제물로 던지자 바다가 잠잠해졌고 그래서 바다를 실제로 다스리는 여호와가 크게 두려워져서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하지 믿었다고 하지 않기에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 대로 파도가 잦아들었고 무죄한 피를 자기들에게 돌리지 않고 목숨을 건졌으니 그 자리에서 자기들 방식으로 여호와께 감사의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면 그곳에서도 다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최대한 잘 봐주어야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리스트에 여호와를 또 하나의 신으로 추가하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우상과 다른 여호와

그렇다면 여호와가 과연 그들의 기도를 들어준 것입니까? 그들의 생각대로 요나를 바다에 제물로 바쳤으니까 잠잠해진 것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기도대로 된 것은 어디까지나 결과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요나를 살렸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요나가 예뻐서가 아니라 누차 말씀드리는 대로 아직 시킬 일이 남았고 그 일을 반드시 요나를 통해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배는 다시스로 향해 가고 있고 태풍은 순전히 요나 때문에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으로선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 없고 배도 다시스로 예정된 날짜에 도착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요나는 정반대의 니느웨로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더 정확히는 당신의 당신다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폭풍우를 일으키고 고래를 예비해둔 것입니다. 고래더러 요나를 보호하고 넓은 바다를 대신 헤엄쳐선 니느웨로 가기에 좋은 해변에 토해내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제물로 받는 분입니까? 당신께서 어떤 제물이라도 기분에 안 차면 크게 분노하면서 인간들에게 큰 벌을 내리는 분입니까? 결코 둘 다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공들은 그런 종교관으로 기도했고 형식적으로 여호와의 이름만 불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주문 같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며 기독교는 사공들의 그런 종교관과 기도방식을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공들의 주문 때문에 파도가 가라앉았다면 여호와는 아라비안나이트에 나오는 알리바바의 신이 되며, 요나가 제물로 바쳐졌기에 그랬다면 인간 제물을 받은 가나안의 우상 신들과 같은 수준이 됩니다.

요나가 회개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일이며 스스로 제물을 바치겠다고 나선 것도 윤리적으로 아주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호와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미숙한 믿음일 뿐입니다. 사공들도 요나를 곧바로 죽이지 않고 끝까지 파도를 이겨보려고 노력한 것은 분명히 윤리적으로 선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는 믿음에 따라 여호와도 같은 부류의 신이라고 간주한 것은 영적으로 아주 미개한 탓이었습니다.

공리주의 신앙과 예수 십자가 신앙

본문의 우연의 일치에서 정작 따져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항이 남았습니다. 혹시라도 요나가 자원해서 죽어 다른 사람들이 살았고, 사공들도 같은 생각으로 요나에게 대신 죽으라고 요구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현시킨 것이라고 해석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살펴본 대로 어쩔 수 없이 궁리에 물린 것이지 처음부터 그런 숭고한 희생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공들도 근본적으로 다신교 우상 숭배를 한데다 인간적 종교적 윤리에 따라 요나가 책임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둘 다 한 사람이 희생하더라도 여러 명이 사는 것이 좋다는 공리주의(功利主義)적인 사상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이왕이면 소수보다 다수를 살리는 것이 좋다는 개념은 십자가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주도한 대제사장 가야바가 산헤드린 공회를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요 11:50)

십자가의 핵심은 자기가 죽어서 다른 이에게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참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땅 끝까지라도 쫓아가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후에 하늘에서 큰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든 하늘의

천국이든 이왕이면 머리 수자를 많이 채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충만한 기쁨을 갖고 당신을 감사 찬양 경배하는 자라면 한 명이라도 족하십니다.

오늘날 유감스럽게도 일부 목회자들이 교회의 양적 성장에만 눈이 어두워서 십자가 복음을 퇴색 변개시키며 도덕적 선행과 종교적 치성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공이나 가야바 대제사장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나가 삼일 간 고래의 배속에서 통째로 삼켜졌다가 살아난 사실만 예수님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부활한 사건과 비교할 뿐입니다. 요나든 사공이든 니느웨 사람이든 모든 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공로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자에게만 구원을 주십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때에 맞추어서 그를 보호해주신 기적에만 주목하면 성경도 하나님도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펴본 대로 요나와 사공들의 사상으로는 즉, 인간이 고안한 윤리와 종교로는 인간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여호와는 오직 당신의 뜻대로만 세상만사를 주관하시기에 기복주의, 도덕주의, 공리주의 등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 제물이 신의 노여움을 푸는데 최선의 방식이라고 믿는 사공들에게 평소와 달리 요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잠시 살려두려는 마음이 생긴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막상 본인들로선 자기들 마음에 어떻게 그런 변화가 생겼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평소 자기들의 종교적 사상과 관습에 따라 행했습니다.

바꿔 말해 하나님은 요나는 물론 그 사공들의 종교관 신관을 포함해 모든 생각을 벌써부터 훤히 꿰뚫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나가 무슨 생각으로 배 밑창에 깊숙이 숨어들었는지, 그 전에 왜 도망갔는지, 선장이 깊은 잠에 떨어진 그를 왜 깨웠는지 다 아셨습니다. 사공들이 제비로 요나를 뽑고도 항로를 바로 잡으려 노력하다가 결국 무죄한 피를 자기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것과 파도가 잠잠해진 후의 당신께 서원하게 된 그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모르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안전하게 원래 목적지인 니느웨로 데리고 갈 고래를 훨씬 오래 전부터 준비해두신 것입니다.

요나서 결론에서 하나님이 그를 크게 혼을 낸 것도 당신의 니느웨에 대한 심정과 계획을 전혀 눈치도 못 챈 요나의 마음을 꿰뚫어 알고 계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우리에 대한 앎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하지 우리가 행동한 이후가 아닙니다. 행동이 끝난 다음에는 누구나 알 수 있고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입니다.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물론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공존하지만 항상 악한 마음이 우세를 보이니까 인간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성경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류의 죄악이 끊임없이 발전 확장되었다고 기록한 그대로입니다. 또 그러니까 창세기 3:15 의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처음 복음을 예시한 이후 줄곧 메시아가 인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구약성경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류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또 그래서 그분이 꼭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계속해서 밝혀 놓은 책입니다.

믿음의 출발과 핵심

믿음의 출발이자 핵심은 내가 종교적 치성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아는 것은 그분이 나를 아는 것의 지극히 일부밖에 안 된다는 사실부터 철저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개인적으로 하나에서 열 까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고 당신의 거룩한 계획에 따라 나의 일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자신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과 모든 행위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그분이 나를 그렇게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이하고 그분의 그 지식은 너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시 139:1-6).

신자는 인생사의 모든 일을 특별히, 어떤 우연의 일치라도 하나님의 필연으로 바꿔서 분별 해석 판단 결정하여 자기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필연 중에 역사상 최고의 필연이 무엇입니까?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과 어리석은 백성들은 사탄에게 농락당해 자기들 생각에는 여호와를 위한다는 최고의 종교적 열성과 방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 하나님께 저주 받는 모습으로 죽어서 인간을 구원하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로마총독 빌라도마저 무고한 예수님을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본문의 사공들처럼 예수님의 피는 자신의 탓이 아니라고 선언하면서 일말의 윤리적 종교적 양심을 드러냈습니다.(마 27:24)

반면에 그 말을 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그분의 택한 백성들은 곧바로 주님의 피를 자신들과 자기들 자손에게 돌려도 좋다고 큰소리쳤습니다. 본문의 이방인 사공들보다 윤리든 종교든 훨씬 더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교만이자 죄악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을 저주하며 죽인 자들마저도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 미혹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는 당신의 의의 기준에 결코 미칠 수 없음을 인간들보다 더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로 우리의 모든 죄 값을 대신 감당하게 하신 무한한 긍휼 앞에 진정으로 항복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해 주십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신자가 십자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믿음이 순전한지 또 그 후로도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다 아십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하지만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서 그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평생에 걸쳐서 따라가고 있는지 아십니다. 반대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에서의 종교적 활동을 구실로 고난에서 구해주고 삶을 윤택케 해주는 복만 구하는지 다 아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여서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도록 일생 동안 그 크신 권능으로 보호 인도해주십니다. 이 얼마나 고귀한 신분과 특권입니까?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온 오늘날의 신자의 믿음은 미숙했던 요나와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와 달리 하나님은 신자의 윤리적 종교적 열성과 실천에 우선적으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신자로선 자신과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외부적인 모습에 따라서 자신의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하는 실패 잘못 죄악뿐 아니라 우리의 고뇌 갈등 상처 필요 소망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당신만의 선하신 때와 방식으로 해결하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풍요와 궁핍을 신자로 당신의 뜻을 실현하게 이끄는 통로로 활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하는 바까지 아시고 내가 진정과 신령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면 비록 내 판단과 방식과 때가 틀렸다 할지라도 당신께서 반드시 선한 결말로 인도하십니다.

코로나 같은 미증유의 사태를 당해서 염려 고민 갈등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자들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무리 나를 실망 염려시킬 지라도 하나님 그분 대해서 결코 실망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혹시라도 코로나 사태를 잘 대처하지 못하는 나라와 백성들을 열등하다고 멸시하지는 않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참에 세상의 악인들이 병에 걸리고 사태의 주원인인 중국이 몽땅 망해라고 기도 내지 소원하지는 않습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은연중에 종교적인 우월의식을 갖는 것은 인종 사상 문화 종교 등의 장벽을 무너뜨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직접 거역하는 큰 죄입니다. 무죄한 자들의 피를 덮어쓰겠다고 나선 사탄에 농락당한 유대인들과 같은 꼴입니다. 무죄한 피를 자기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원한 빌라도나 본문의 사공들보다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훨씬 더 열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스로 그 배가 무사하게 도착하도록 했고 요나도 안전하게 니느웨로 가서 당신의 일을 하게끔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요나가 분명히 큰 죄를 저질렀지만 당신께서 합력해 선으로 바꾸신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나서에서 쉽게 알 수 있는 때맞춘 기적에만 주목해선 안 됩니다. 본문의 아주 신사적이고 양심적인 사공들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숨겨진 엄중한 뜻을 놓쳐선 안 됩니다.

더 중요하게는 본문에서 진하게 풍겨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하고 또 주변에 그 향기를 품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오직 하나입니다. 종교적 열성과 행위가 아닙니다. 과연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완전히 잠겨있는지 또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해 실현하고 있는지만 보십니다.

내가 쫓겨났어도 다시 주를 바라보리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삼 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욘 1:17-2:4)

기도가 아니라 신앙고백

요나서 1 장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으나 결국은 고래에 삼켜지기까지의 긴박했던 과정을 사실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제 2 장은 요나가 고래 배속에서 기도드린 내용을 상징과 비유의 수사법을 동원해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반(1-4 절)은 기도하게 된 경위를, 후반(5-9 절)은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요나는 "내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어떤 기도를 했었고 나아가 그 응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앞부분의 "내가 기도하여 이르되"라는 말과 상충됩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앞뒤로 논리가 안 맞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도 대부분의 신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진술은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사건 당시에 녹음기는커녕 메모장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 기도문도 당연히 요나가 고래 배 속에서 삼일 간 있다가 육지에 토해져 나온 한참 후에 저작된 것입니다.

보통 기도는 하나님더러 장차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는 요청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2-9 절을 잘 살펴보면 마지막 9 절에 요나가 서원한 내용을 빼고는 전부 과거시제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기록한 것이라 고래 배속에서 겪었던 체험과 기도드렸던 내용이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본문은 기도라기보다는 요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래 배속에서의 체험이 은혜가 넘쳤고 무엇보다 그 감정이 강렬했으니까 시가 형식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흔히 신자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성경 66 권중에 시편을 보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권면합니다. 누구나 겪기 마련인 인생살이의 온갖 고난들을 하나님과 교제 동행하여 이겨내면서 실제로 느꼈던 감정과 생각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바로 나 자신의 신앙체험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후에는 자신만의 시편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 에세이를 능숙하게 쓸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나와 하나님만의 은밀하고 진지하며 심각했던 씨름의 과정과 결말을 자신만의 언어로 정확한 문장으로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격이 넘치면 자연히 시적 표현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남들과 나누거나 교회에서 간증하려면 아무래도 자랑과 과장이 첨가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보일 필요가 없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일기로 아니면 간단한 메모 형태라도 적어놓는 습관을 들여 보십시오. 자신만 보는 기록에 거짓말로 적을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 체험을 구체적으로 글로 다시 정리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자기 생각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로 깊어져서 고난이 다시 닥쳐도 그분께 받았던 은혜를 되새김질 하며 담대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스올에 던져진 요나

사실은 시편뿐 아니라 모든 성경구절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본문도 요나가 겪었을 당시 상황을 마치 내가 겪은 것처럼 세밀하게 묵상해봐야 합니다. 먼저 사공들에게 들려서 격랑 속으로 던져질 때는 요나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배를 삼킬 듯이 덤비는 집채만 한 파도에 맨몸으로 던져지니까 공포에 질려 정신이 완전히 혼미해졌을 것입니다. 자기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로 엄청난 풍랑을 일으켰는데 다시 살아날 것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막상 죽음이 닥치면 어느 누구도 순순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요나도 본문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말하지만(1 절) 이때에 살려달라는 외마디 비명은 질렀을 것입니다. 최소한 속으로 여호와라는 이름만이라도 부르짖었을 것이므로 사실상 이미 한 번 기도한 셈입니다.

기도가 꼭 분명한 문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말은 물론이고 마음의 묵상까지 당연히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소원을 생각만 해도, 나아가 자신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과 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묵상만 해도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권면한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살전 5:17)

그리고 어쩌면 요나는 파도에 던져지자마자 실신했을 것입니다. 실신하지 않았다 쳐도 고래가 다가와 자기를 삼키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는데 까무러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절대 절명의 순간에 이르면 자연스레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 큰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해주려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은혜로운 섭리입니다.

고래에 삼켜진지 얼마 후 정신이 돌아왔으나 사방을 살펴보니 상황은 훨씬 더 비관적입니다. 완전히 컴컴한 암흑 속인데다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까지 진동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2 절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고 고백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지 않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전부 한 곳에 모여서 기다린다고 믿었는데 그 장소를 스올(음부)이라고 불렀습니다. 음부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어떤 의식도 없이 무한정 잠만 자며 기다리는 곳입니다.

기도는 의식이 뚜렷해야만 할 수 있는데 요나는 스올에서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처음에는 얼떨결에 자기가 죽어 음부에 떨어졌나 보다 여겼는데 곰곰 따져보니 고래에게 삼켜졌다는 사실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뱃속에서"라는 원어도 자궁, 태, 배 등을 뜻하듯이 고래 배를 스올의 배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아마도 해초도 있었을 것이니까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5 절) 지금 어쨌든 살아있으니까 바다에 던져질 때에 살려달라고 외쳤던 첫 번째 기도는 응답된 것입니다.

실오라기 같은 생명의 소망

문제는 살아날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으니 요나가 느끼기는 여전히 스올의 배 속입니다. 음부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요나로선 이제야말로 죽기 살기로 여호와의 기적적인

간섭만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배 밑창에 깊숙이 숨었는데도 찾아오실 정도로 여호와는 자신의 모든 생각을 아셨고 또 그래서 큰 벌로 풍랑을 일으키신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고래가 삼켰는데도 멀쩡하게 살아 있으니 어쩌면 여호와가 살려줄 수도 있겠다는 실오라기 같은 기대가 생겼을 것입니다.

"기도하여"(1 절)라는 원어 동사는 강한 의지를 갖고서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고래 뱃속이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열망하고 끈질기게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방이 컴컴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도무지 시간을 측정할 수도 없으니 삼일이 일 년처럼 길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고래 배속보다 차라리 풍랑이 일어도 바다가 좋으니까 어서 빨리 토해내게 해달라고 매달렸을 것입니다.

고래가 아무리 커도 요나도 성인남자이므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여유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요나는 꼼짝달싹 못하고 똑바로 누운 채 계속 꿈틀꿈틀 움직이는 고래 위벽으로 밀폐되어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다가도 공포가 엄습해서 다시 기절하고는 또 깨어나면 살려달라는 기도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공포를 이겨보려고 억지로 잠을 청해 봐도 제대로 잠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족과 친지들의 얼굴은 물론 지난 삶에 대해 온갖 상념이 떠오르며 하나님을 거역했던 잘못을 크게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문 같이 정제된 아름다운 문장으로 기도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했습니다.(마 27:46) 그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마 26:39)라고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현재 처한 어려운 상황과 장차 소원을 있는 그대로 하나의 숨김 과장 거짓 없이 진솔하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요나로선 가뜩이나 사방이 컴컴해 시간 개념도 없어진데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구원에 대한 자신은 안 생겼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는데 또 그 벌로 이런 풍랑이 일고 고래에게

삼켜지기까지 했는데 그런 소망을 갖는 것은 사실상 그분께 불경한 죄가 되지 않습니까? 삼일 내내 정신은 자꾸 오락가락하고 무슨 생각으로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황당한 가운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자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과 어디선가 계속해서 공기가 주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불현 듯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시 곰곰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할 것 같으면 풍랑 속에 그대로 두면 되지 구태여 고래 배속에 이런 모습으로 살려둘 리는 없다는 점에 생각이 미쳤을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살려줄 수도 있겠다는 소망 내지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 순간 사방은 여전히 캄캄해도 그의 영혼에 한줄기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처음으로 평안이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5 절) 쉽게 풀면 무슨 뜻입니까? "제가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지만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앞으로는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삼일 내내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믿음

비록 요나가 본문대로 시가형식으로 기도한 것은 아니지만 고래 배속에서 그가 실제로 느꼈고 깨달았고 회개했고 간구했던 내용입니다. 바다에 제물로 바쳐질 때부터 고래가 땅으로 안전하게 토해낼 때까지 품었던 모든 생각입니다. 죽음의 문턱인 스올의 문지방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처절한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만 붙들었다는 진솔한 간증입니다.

요나는 정확히 삼일 간 죽었다 살아났기에 정확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표합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초자연적인 모습에만 주목해선 안 되며 그렇게 하신 뜻에 주목해야 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7,8)

아담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자마자 기쁨과 평강은 깡그리 사라지고 두려움과 수치만 엄습했습니다. 너무나 불안해서 동산 깊숙한 곳으로 자꾸 숨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면서 먼저 찾아와 구원을 베풀어주었습니다. 요나도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땅 끝까지 도망가면서 배 밑바닥으로 깊이 숨어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곳 원수의 자리에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고래 배속까지 오셔서 그를 살려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신자를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의 찬란한 빛 가운데 만납니다. 그 후 삼일 간 봉사가 되었는데 빛이 차단된 흑암 속에서 갇혔습니다. 본문의 요나와 똑같은 심정으로 죽기 살기로 기도했더니 다시 빛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고래 배속의 컴컴한 암흑 속에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요나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관에 들어가 땅에 묻히는 죽음 체험을 하는데 빛은 완전히 차단되지만 공기는 계속 주입시킵니다. 하나님이 바울처럼 요나에게도 그런 죽음 체험을 시킨 것입니다. 영적인 롤러코스터를 타고서 완전히 죽음의 자리에까지 끌어내려선 그의 자아를 완전히 깨트리고 겸손해지도록 낮춘 것입니다. 모든 도덕적 종교적 영적인 의로움이나 우월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 과 의미가 없고 한갓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은 오직 당신만 순전히 믿고서 전적으로 의탁 순종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생명이 한갓 고래 배속에 삼켜진 다른 작은 물고기들과 똑같이 초라하고 연약함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도 공중 나는 새도 여호와가 먹이고 입힌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살고 죽음 자체가 전적으로 그분의 손에 달렸는데도 인간들이 그분을 거역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계속해서 통치하시는 분에게서 피조물에 불과한 주제에 땅 끝으로 도망가려 시도한 것부터 너무나 어리석다 못해 참으로 부끄러운 짓임을 요나더러 알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 절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주님도 비록 큰 벌을 주었으나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고 간절히

서원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 전에 시체와 방불하게 사방이 막힌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산소를 주입시켜주었기에 그런 소망과 회개할 마음도 주님이 심어준 것입니다.

이미의 신학과 마침의 신학

본문의 요나의 신앙 고백 가운데 정말로 놓쳐선 안 되는 사항이 하나 남았습니다. 요나서 전체는 요나가 기록한 것이므로 본문의 기도문만이 아니라 다른 진술에도 그의 믿음이 배여 나옵니다. 바로 1:17 인데 "여호와께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라고 말합니다.

'이미 고래를 예비하사'라고 말했지 '마침 고래를 시켜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미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모든 일을 미리 계획하고 그대로 실행한 것입니다. 요나는 비록 지옥 같이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이 이미 계획했었고 또 그래서 고래를 예비하신 것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더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반면에 마침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직전 혹은 직후에 그 일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된 것입니다. 고난이 생긴 후에 구해주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우연의 일치를 일부 목회자들이 셀리의 법칙으로만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자에게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은 곧바로 즉, 마침 좋은 길로만 인도한다는 식입니다.

신자들이 대체로 위급한 일이 생겨야만 새벽예배에 기도하러 나옵니다. 그러고 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떼만 씁니다. 요나서의 우연의 일치를 마침으로만 이해하니까 자기 고난과 문제도 마침 적합한 구원의 손을 뻗어달라고 부르짖고, 또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께 의심 불평하기 바쁩니다. 또 그런 믿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침묵을 넘어서 외면하는가보다 그저 불안해합니다.

어떤 큰 고난도 그분의 계획에 이미 들어있었다면 그 선한 결말도 당연히 그 계획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어떤 고난도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나의 연단과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약한 가운데 그분의 능력이 더 커진다고 절감한 바울처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는 자기 죄로 인한 형벌마저 여호와의 계획이었음을 뒤늦게 스올의 배속에서라도 확신하게 되었기에 주께 쫓겨났어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자의 인생은 일백 번 넘어져도, 비록 자기 잘못과 죄 때문일지라도 다시 일백 한 번 일어서는 끈기의 씨름이어야 합니다.

저도 약 이십오 년 전에 요나와 아주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한국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콜로라도 주의 로키마운틴 국립공원에 차로 여행 갔습니다. 한여름인데도 해발 수천 미터나 되는 정상에 쌓인 눈을 구경하고 구불구불 험준한 산길을 내려오는 도중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실제로 낭떠러지로 추락할 판으로 죽음과는 단 몇 초의 거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족은 다 자고 있었고 깨어있던 아내가 "주여, 주여!"라는 외마디 고함만 질러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커브 옆의 작은 공터에 큰 SUV 가 빈차로 정차하고 있었는데 그 차를 들이박고서 겨우 멈춰 서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순간 집사람의 "주여, 주여"라는 울부짖음이 할렐루야로 바뀌었습니다. 운전하고 있는 저로선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정확히 아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죄송하지만 가족이 몰살하겠다는 생각도 스쳐지나갔습니다. 차가 안전히 정차한 후에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한 동안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차 주인은 처음에는 자기 차를 갑자기 누가 와서 들이박았기에 크게 놀래며 따졌습니다. 우리 사정을 들어보니 자기 차는 망가졌어도 그 덕분에 우리 일가족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더러 예수 믿는지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한인 교회 목사라고 답하니까 그들의 눈에 눈물이 글썽해지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주는 천사의 역할을 하라고 자기들을 미리 그곳으로 보낸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더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반대로 저희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놀랐고 두려움에 떨릴 정도로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 동네에 사는 주민이었는데 오랜 만에 자기들만 아는 숨겨진 폭포를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곳에 정차해두고 계곡 아래에 내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그날, 마침 그 동네 사람이, 마침 그 폭포가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마침 그 시간, 마침 그 장소에, 마침 그렇게 큰 차로 주차하게 된 것 등등은 확률 상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고 미리 모든 것을 이끄신 것입니다. 그 차가가 마침 그 시간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장소에 하나님이 대기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요나에게 마침이 아니라 이미 고래를 준비해서 살려둔 것처럼 말입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이미는 인간이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수많은 마침의 집합체입니다. 요나서의 열 번 가량의 우연의 일치들은 모두 합쳐져 그분의 완벽한 계획을 이뤄나갑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계획은 이뤄지지 않기에 빠질 리도 절대 없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삶의 현실에 수시로 나타나는 수많은 마침을 하나님의 이미 예비하심으로 바꿔서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 실력입니다. 매사를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문제만 생기면 때에 맞춰서 구해주는 수호신 같은 하나님만 찾으려는 너무나 잘못된 미신적 사고와 습관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기 뜻대로만 행하려다 그 길이 막히니까 하나님께 의심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어서 빨리 와서 해결하라고 떼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에게 거룩하고 완전하신 당신에 뜻에 합당한 완벽한 계획과 일정표를 이미 마련해 놓았습니다. 신자 주변에 있는 모든 사건과 사람과 여건은 그 계획이 아무 차질 없이 달성되게 만드는 통로 내지 도구입니다. 심지어 요나가 삼켜진 고래 배속의 음부 같은 흑암이나, 저희처럼 콜로라도 높은 산 절벽에서 브레이크가 고장 나는 일까지도 당신의 계획에 따라 예비해놓으신 것입니다. 신자가 할 일은 그분의 뜻을 최대한 분별하여 감사함으로 순종하면서 자신의 성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어리석어 그분의 뜻을 미리 알 수 없으니까 앞서가시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자기를 어디로 인도하던 묵묵히 기다렸다가 따라가야 합니다.

배를 삼킬만한 파도는 반드시 요나가 바다로 던져지는 순간 맞추어서 멈추어져야만 했고 고래도 그 직후에 요나를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 외의 일은 그분의 계획에 아예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바다의 큰 풍랑소리는 하나님이 요나를 찾으려고 부르는 사랑스런 음성이었고 그를 산 채로 삼킨 고래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지금 당신의 인생은 물론 이 황당하고 우리 모두 생전처음 겪는 미증유의 고난인 코로나 사태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결말도 그분의 뜻대로 완벽하게 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자이면서 그것도 새벽기도에 개근하면서 왜 계속 불안해하십니까? 마침의 하나님, 수호천사 같은 하나님 밖에 믿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꼼짝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홍해를 하나님의 큰 기적으로 생명을 건지게 된 출애굽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암의 선도 아래 역사상 최대의 찬양 집회를 열었습니다. 콜로라도 낭떠러지에서 제 아내의 "주여, 주여!"라는 외마디 울부짖음을 눈물로 감격하는 할렐루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래 뱃속에서 사흘간 죽었다 살아난 요나도 땅에 발을 딛자마자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노래했을 것입니다. 본문은 기도가 아니라 실은 요나가 부른 할렐루야 찬송가입니다.

지금 요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썩어져 가던 옛 사람이 완전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바울처럼 요나처럼 실제로 죽음의 체험을 거친 것입니다. 또 아담처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직접 성령의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성령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럼 우리도 새 노래로 그분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사실상 본문의 요나의 찬양마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무리 사방이 흑암에 잠겨있어도 요나처럼 하나님만 붙들면 코로나사태에도 당신의 때에 반드시 안전한 땅에 발을 디딜 수 있고 요나 같은 찬양을 그분께 올려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나 혼자만 아는 그분의 은혜가 있습니까? 다윗처럼 원망 불평 의심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현재 자신이 서있는 모습 그대로 신앙비망록을 작성해보십시오. 아니면 범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묵상만 해도 반드시 감격에 넘친 찬양이 나올 것입니다. 그 전에 자신이 정말로 '마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의 하나님을 믿는지부터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복음의 네 가지 핵심과 코로나 사태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사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욘 2:5-10)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고래 배속에서 삼일 간 죽음과 방불한 흑암에 갇혔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 합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모습 뿐 아니라 요나가 행한 기도의 후반부인 본문에는 실제로 기독교 구원의 핵심 진리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신약성경이 설명하는 복음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의미도 자기 기도가 응답되어 목숨을 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소와 시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어서 십자가 구원의 의미를 진술하게끔 인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복음의 핵심에 비추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경위와 현재의 믿음 상태가 올바른지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9 절)라고 고백했습니다. 구원의 첫째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성경이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여호와 외에도 구원의 경로가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 당시는 각 족속들마다 고유의 신을 섬겼으나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우상 종교가 없어진 오늘날에는 인간 선각자가 깨달은 종교적 진리를 배우고 그 계명대로 따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이 또한 아무리 경건하고 신령해 보여도 죄에 찌든 인간이 같이 죄에 찌든 다른 인간을 구원하려드는 것으로 구원과 전혀 무관합니다.

인간이 고안한 모든 종교는 시대를 막론하고 남들보다 의롭게 살다가 죽으면 신이 구원해준다고 가르칩니다. 언뜻 합리적인 것 같으나 그 신은 인간이 이 땅에서 치른 시험의 점수를 채점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신자 본인도 남들이야 심판 받아 지옥에 가든 말든 자기만 의롭게 되면 된다는 뜻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체한 것으로 아담이 타락한 상태에서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하고 더 완악해졌습니다.

밤중에 구원의 길을 물으러 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요 3:5)고 대답했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지만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나서와 연결시키면 성령님이 간섭해야 구원되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배속에서 행한 기도의 전반부에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 지라도"(욘 2:4)라고 했습니다. 쫓겨났으니 여호와가 먼저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응답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고래에서 구출 받은 후에 그 모든 일들을 따져보았더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셨을 뿐 아니라 이미 다 계획 예비해 놓으셨던 일이었음을 정확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일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꼼짝없이 붙잡혀 있는 신분이라는 점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후반부인 본문에서 빗장으로 막힌 산의 뿌리와 구덩이에서 즉,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서 여호와가 생명을 건져주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6 절)

십자가 복음은 체험이다.

한 죄인의 내면에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여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 중생의 구체적인 과정과 방식과 기간은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르며 한 사람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성령님이 역사했기에 그 결과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죽음의 긍휼 앞에서 자신이 천하죄인 중의 괴수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통회 자복하며 항복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하나님의 원수 자리에 있던 나를 만나주시고 지난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따뜻이 품어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와 삶과 인생 전부가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의 품에 이미 안겨졌고 평생토록 벗어나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자도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에게 의탁하고 그분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십니다.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모르며 세상 속에서 완악하고 추하게 살았던 이전의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 헌신하게 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는 진술이 인간이 머리로 성찰 각성해낸 종교적 명제가 아닙니다. 요나에게나 오늘날의 신자에게나 실제로 음부의 문턱에까지 갔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으로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는 생생한 체험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고 자신의 진짜 주인인 예수님을 자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역동적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간증입니다.

때로 엄청난 고난이 닥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잠시 의심 내지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일부러 괴롭히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요나처럼 아무리 그분께 쫓겨난 것처럼 여겨져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려고 간절히 기도하면 언제나 당신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 이상으로 선하게 응답해주십니다. 신자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의 믿음으로 얻으려 노력하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을 일대일 체험적으로 대면해서 성령의 역사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체험이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어 마땅한 죄인 중의 괴수라는 점을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따르다 보면 언젠가는 구원을 얻겠지 막연히 기대합니다. 종교적 활동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그럼 그분의 은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때때로 간절히 기도해서 고난이 해결되면 자신의 열성과 수고를 하나님이 좋게 보시고 응답해주셨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더 거룩하게 성장시켜서 당신의 영광에 참여시키려는 뜻으로 미리부터 마련된 고난이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빨리 구해달라는 기도가 신앙으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일의 거의 전부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뒤에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따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

교회에서 교리를 배워서 납득 수용하고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성실히 준행하는 것은 아무리 그 모습이 경건하고 의로워도 자기가 자신에게 스스로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로, 신자 스스로 열심을 다하는 신앙 행위로, 풍부한 신학적 성경적 지식으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간섭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함으로써 죽어있던 자신의 영적 실체가 실제로 되살아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작금 코로나 사태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너무나 연약하다 못해 무력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활동을 못할 뿐 아니라 정말로 죽음 앞에, 그것도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억울한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 재물 지성이 아무리 많아도 심지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너무나 황당한 상황입니다. 일부 신자들마저 영적으로 침체되다 못해 심한 우울증에 걸리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면 거의 모든 사람이 그동안의 추악함과 완악함이 없어지거나 줄게 마련입니다. 영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죽음 이후를 걱정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졌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본성이 심겨져 있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마련해준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문제의 근본원인이 하나님을 멀리한 인간의 탐욕과 죄악 때문임을 잘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구원은 여호와께만 속했고 그 구원은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길 밖에 없음을 때를 얻든 못 얻든 전해야 합니다.

영혼이 구원 받는다.

요나는 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는데"(5 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7 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음부에 떨어진 줄 알았고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음부는 아무 의식 없이 영혼마저 무한정 잠만 자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으니 그의 영혼이 구원 받은 것입니다.

복음의 두 번째 본질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을 때에 육체는 이 땅에 남아서 썩고 영혼만 천국으로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3:6) 예수님을 모르고 육의 상태에 있는 인간이 고안한 종교는 이 땅의 육신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지 영의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에서 용서받음으로써 그분과 실제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에서 면제되어서 그 영혼이 천국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다고 담대히 자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 자격 노력에 따른 구원이라면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실제로 대면함으로써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런 담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고전 15:19)고 선포했습니다. 인생에 사후 심판이 없이 이 땅뿐이면 가장 현명하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법적심판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온갖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신자는 영원한 구원과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함께 뒹굴 수는 결코 없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으려 노력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나 아무런 현실적 보상은 없고 심지어 핍박까지 받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천국을 위해서 사서 고생하며 목숨까지도 바치는 맹신자 내지 광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신자에겐 성령이 평생 내주합니다. 인간이 만들어질 때부터 천국 바이러스가 심어져 있는데다 성령 하나님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천국을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주님과 함께 천국까지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경건한 여행길입니다. 신자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안에서 동일한 성경을 배우고 동일한 기독교 교리를 실천해도 육의 종교가 됩니다. 육에서 난 것으로 육을 가꾸어서 이전보다 훨씬 나아져도 영은 그대로이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기 의지로 경건한 종교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일뿐입니다. 단적인 증거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고 물으면 확답을 하지 못하는 즉, 여전히 이 땅의 육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 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만약 그것이 전부면 이 땅에서 자기만 살려는 이기주의로 육에서 나오는 기도일 뿐입니다. 코로나가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아서 엄청난 희생자가 나오더라도 이곳보다 비교가 안 되는 더 좋은 보금자리가 천국에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담대하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신자입니다.

반면에 아직도 예수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멸망뿐이므로 정말로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고 기도해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빛을 어떤 방식으로든 비춰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자를 가장 불행하게 보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는 자들이 진짜로 불행하다는 것을 신자는 알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셋째로 요나는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9 절)고 했습니다. 음부의 문턱에서 생명을 건진 요나로선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신자도 구원 이후에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간혹 주일예배를 종교적 의무로 강요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의무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준행 여부에 따라 보상이나 형벌이 따라옵니다. 예배가 종교적 의무라고 여기면 혹시 주일예배에 빠지면 하나님께 벌 받지 않나 염려부터 생깁니다.

모든 성경의 계명이 그러하듯이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신자에게 간절히 바라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후에 심히 기뻐하셨고 최초의 인간이 이 땅에서 맞은 첫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일예배는 하나님이 날을 하루 따로 잡아서 종일 우리를 기뻐해주시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 안에서 만난 형제자매와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꾸어가는 것이 너무 신나고 즐거워서 주일마다 자연히 교회로 향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을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주중에 내내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을 느낍니다. 주일예배는 신자의 일주일간의 삶의 중심점이 됩니다.

주중의 일상적 삶에서도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면서 이웃 사랑을 행하면 반드시 은혜가 넘치고 거룩한 열매로 결실 맺습니다. 예배는 신자의 의무가 아니라 찾아서 누려야 하는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는 신자라면 일주일 내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던 그 중심은 성전을 바라보다가 주일 아침 신이 나서 교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작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온라인 예배를 종식하고 어서 빨리 현장 예배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그렇게 되도록 신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거듭난 신자라면 인터넷 예배라도 순전히 집중하여서 온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지에 외로이 섬기는 선교사님들처럼 혼자서 집에서나 심지어 여행 중에 호텔 방에서도 얼마든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 찬양하며 경건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예배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외롭고 죄 많은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3,24)

여인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중에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주님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아니라고 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은혜의 복음이 온 천하에 선포되는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당신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같은 장소와 형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십자가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참 신자를 단 한 명이라도 양육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아무리 언택트 시대라도 신자 한 명이 불신자 한명은 섬기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서원을 주께 갚는다.

요나는 넷째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9 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한번만 살려주시면 무슨 일이든 순종하겠다는 서약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생명의 은인이 부탁하는 일이라면 다 들을 것입니다. 요나도 처음과는 달리 군말 없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라고 여겨선 안 됩니다. 요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8 절) 자기는 그들과 달리 서원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궁극적이고도 유일한 소망과 가치가 되는 하나님의 반대쪽에 선 자들입니다. 불신자들에게 가장 크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가장 크게 원수로 갚은 것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였지 않습니까?

신자들이 요나처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서약한 일이 없다고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처음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지금껏 헛되고 거짓된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진실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고 서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고전 12:3) 예수님을 입술로 주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진짜 주인이 되는 것으로 생사여탈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세상에서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불러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 후 시내 산에서 어떻게 언약을 맺었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출 19:5,6) 새 이스라엘인 신약신자들도 열방들에게 유일하신 창조주 참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라는 직통계시를 받고도 거부하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곳으로 가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요나가 제 2 의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도 그분께 은혜를 갚는 것 하나뿐임을 절감했기에 서원을 주께 갚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종교로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일을 대신 수행할 동역자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거나 구원 하는 일에 바빠서 정신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바리새인이지만 온유하고 합리적이었던 니고데모마저 도덕과 종교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께 구원의 길을 물으러 왔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끝까지 충성하다가 결국에는 순교까지 당할 수 있었습니까? 종교적 의무감에 따라 그런 행위로 스스로 공로를 쌓으려 했다면 너무 힘들어서 일찍 포기했을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여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을 그에게도 충만하게 심어준 것입니다. 바로 연약한 교회와 성도는 물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에 대한 애끓는 염려와 긍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핍박 받는 자, 소외된 자, 불치병자, 불구자, 창녀, 고아, 과부, 세리 같은 자들을 주로 만나서 교제하고 위로 기도하고 치유해주신 심정을 바울도 깊이 이해하게, 아니 그대로 가슴 가득히 채워진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심정을 신자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남들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중심에 예수님을 모셨는지 아닌지만 보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에게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드려야 합니다. 내 욕심과 고집을 죽여주는 대신에 예수님의 심정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바울처럼 살아가겠다고 서원해야 합니다.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오며 절대적 진리는 오직 그분의 말씀입니다. 진리만 힘이 있고 그분의 사랑만이 사람들을 사람답게 바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진리대로 살아가면 넘치는 복이 임합니다. 정말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철학적 도덕적 종교적 구호나 개념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정말로 당신을 대리하는 전권대사로 세상과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럼 또 당신의 모든 권능이 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보물들이 이 땅에 심겨지고 열매가 맺힙니다.

쉽게 말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진리대로 따르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본 자는 반드시 살아 역사하는 그분의 권능과 은혜를 넘치도록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일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좋고 의미와 가치가 있고 진실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꾸만 더 많이 계속해서 하고 싶어집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 일에 비하면 재미 의미 가치가 너무 적어집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로는 궁극적이고 온전한 충족을 얻지 못하며 모든 것이 일시적 상대적이라 순전한 관계를 맺을 수도 없음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역사상 최고의 환난인데도 역사상 최고로 서로 배반하고 음해 모략하며 자기가 더 많이 차지하려고 시기 경쟁 다툼 분노 저주합니다. 정치 지도자들부터 그러합니다. 영적으로 너무 피폐해져 있음을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인간이 정말로 걸어 가야할 바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절실한 때입니다. 아무도 겉으로 말은 하지 않아도 모두가 절실하게 구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결국 돌아갈 곳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한군데뿐입니다. 신자는 예수를 따라가며 정말로 신나고 즐겁고 활기차게 사는 모습을 세상 앞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고난의 때일수록 신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땅에 떨어진 기독교와 예수쟁이와 교회에 대한 신망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말씀드린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진리의 중요한 핵심 넷은 하나도 빠져선 안 되고 마지막 넷째까지 실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나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만 미래 시제로 표현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고 난 이후로 평생을 두고 실천해야 할 유일한 과제라는 뜻입니다. 종교적

의무감으로 행하면 번번이 실패합니다. 절대로 성령의 역사를 경시해선 안 됩니다. 바울처럼 저들이 너무 불쌍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기쁘면 성령님이 일상적인 삶에서 한 걸음씩 인도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예수 안에 들어왔는지 아닌지 오직 둘로만 나누십니다. 신자도 이미 천국을 확보했기에 하나님께 서원을 갚아나가는 자와 구원을 얻으려 노력하는 중이라 하나님께 서원조차 하지 않은 자 둘로만 나눕니다.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신 신자이냐 교회활동으로 스스로 경건해지려는 종교인이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합니까?

단답형 믿음인가? 논술형 믿음인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 옷을 입은지라."

(욘 3:1-5)

온전하지 않는 니느웨의 순종

고래 배속에서 삼일 간 죽었다 살아난 요나에게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바"(2 절) 즉, 그가 거역했던 첫째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그 계시를 받았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악독한 원수를 하나님이 용서해주신다는 것이 너무 싫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고도 니느웨의 정반대 편이자 당시로선 땅 끝인 다시스로 도망간 것은 대놓고 당신을 아주 우습게 여긴 꼴입니다. 이번 일만은 뭔가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으면 죽었지 따르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막상 고래에게 산 채로 삼켜지자 죽음이 너무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번 한 번만 살려주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서원했고 그대로 응답받았습니다. 요나로선 기도한 대로 제 2 의 인생을 살 기회를 허락받았으니 군말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했을지는 의문입니다. 니느웨에 대대적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자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냈습니다."(욘 4:1) 서원까지 해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또 거역했다간 당장 심판받을 것이므로 어쩔 수 없이 순종은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여전히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에는 완전히 항복했어도 그분의 뜻에는 완전히 수긍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을 그나마 긍정적으로 봐주자면 니느웨를 회개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고 수긍했으나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날 리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은 절대적 진리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진리대로 세상이 돌아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인간 사회에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 같은 모습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첫째 명령은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에 쳐서 외치라"는 것이었기에(욘 1:2) 구원보다 심판이 강조되는 메시지였습니다. 요나로선 하나님이 어차피 심판할 것이지만 불시에 심판하면 너무 잔인하니까 40 일 간 준비 기간을 주겠다는 사전 통보로 그치겠거니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의 당시 심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긴 전하되 완전히 수긍하지 않고 마지못해 수행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진정성이 부족한 메시지인데도 어떻게 니느웨가 단 번에 회개할 수 있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니느웨에 임한 초자연적인 징조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3 절)이라 걸어서 한 바퀴 도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니느웨는 둘레가 약 96 킬로미터이고 1500 개의 탑이 있었고 성벽 위로 전차 세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읍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십이만 명이라고 말했습니다.(욘 4:11) 하나님이 아낀 사람을 두고 니느웨 백성들 전부, 이성적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 도덕적으로 의롭지 못한 자들 등으로 해석합니다. 셋 중에 어느 경우가 되었던 성 안에 수십만 명이 살고 있었고 고대에서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 큰 성읍에서 요나가 딱 하루만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니느웨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 옷을 입었습니다.(5 절) 원어로 따지면 단순히 심판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시늉을 한 것이 아니라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금식을 행하고 굵은 베 옷을 입은 것도 진정한 회개의 표시였습니다.

억지로 전해진 메시지가 마음에 찔림을 줄 수도 없을 텐데도 참으로 놀랍고 신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진리는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가장 원론적이고 간단한 설명입니다. 그 권능이 어떻게 실현되어서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니느웨에 BC 765 년 큰 역병이 일어났다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위생 상태와 의료기술이 열악했던 고대에는 전염병이 일어나면 엄청난 희생자가 생깁니다. 정상으로 회복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오래 동안 죽음이 일상사가 되었기에 사람들은 영생을 소망하면서 죽음 이후의 구원이 염려되었을 것입니다.

마침 그 2 년 후인 BC 763 년에는 일식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고대에는 일식 같은 신비한 자연현상은 신의 특별한 .움직임이 곧 있을 것이라는 징조라고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에도 동방의 현인들은 별의 특별한 움직임을 보고 메시야가 도래했다고 확신하고 예루살렘까지의 그 먼 여행길에 나섰습니다.(마 2:1,2) 니느웨 백성들은 일식을 보고는 그 때까지도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전염병이 신이 자신들을 심판한 것이라고 여겼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이 일들이 요나가 도착하기 전에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나는 북왕국에서 여로보암 2 세가 통치한 BC 782 년에서 BC 753 년 사이에 활동했으니까 그렇지 않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학자들은 니느웨의 회개가 여러 역사적 정황상 앗수르의 앗수르단 3 세 치하 BC 771-754 년에 일어났다고 즉, 역병과 일식이 있었던 시기와 겹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요나 본인에게 드러난 권능

미국의 존 맥아더 목사가 자신이 저작한 스터디 바이블에 본문에 대해서 흥미롭게 주석해 놓았습니다. 고래 배속에서 삼일 간 있는 바람에 그 위액에 포함된 위산으로 인해서 요나의 얼굴과 손이 표백되어서 아주 희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거기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일어났던 일이 니느웨 백성에게 이미 전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대의 배들은 항구마다 기항해서 선객과 화물을 내리고 태웁니다. 요나가 제물로 바쳐지자마자 풍랑이 곧바로 멈췄기에 인근항구에 내린 니느웨 사람이 그 신기한 사건을 사람들에게 이미 이야기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로선 여러 힘든 일로 탈진한 상태에서 기력을

정상으로 회복해서 니느웨에 도보로 도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테니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 선객이 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철이 아닌데 갑작스런 태풍으로 모두 죽음 직전까지 몰렸기에 누군가 신의 노여움을 샀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제비를 뽑았더니 여호와를 믿는 유대인 요나가 걸렸고 그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풍랑이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큰 고래가 갑자기 나타나 여호와를 거역한 죄인인 요나를 통째로 집어삼킨 일도 말했을 것입니다.

니느웨로선 초자연적으로 신비한 일인지라 유대인의 신은 엄청난 권능을 지녔다고 인정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우상 신들은 아무 능력도 없고 직접 교통도 되지 않기에 여호와와는 아예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어쩌면 다들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다 도무지 믿기지 않아 말도 안 된다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소문으로 듣던 요나라는 사람이 하얗게 변색한 얼굴로 성중에 나타났습니다. 고래에 삼켜졌으니 완전히 죽었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멀쩡히 살아났습니다. 얼룩덜룩 탈색 된 얼굴이 고래에게 삼켜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요나에게 진위여부를 질문했고 그도 사실 대로 이야기해주었을 것입니다.

요나 사건은 황당한 소설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정말로 여호와의 엄청난 권능이 피부에 와 닿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 전에 역병과 일식까지 있었다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만큼 간이 큰 자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열 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구출해 냈습니다. 그 때도 그 엄청난 스토리는 인근에 널리 퍼졌는데 심지어 여호수아가 40 년 후에 여리고를 정복할 때까지도 가나안 백성들로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수 2:9)라고 실토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요나가 메시지를 전하기 전부터 여호와에 대한 소문이 니느웨 성안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전염병과 일식은 제외하고도 태풍, 고래,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소문 등등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행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상을 찡그리고 억지로 당신의 계시를 선포했었어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쨌든 당신의 뜻을 전해야 할 사람은 있어야 하니까 요나더러 전하게 한 것입니다. 요나는 엄밀히 말해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말씀을 인간의 소리로 바꿔서 울려내는 스피커 역할만 행한 것입니다.

요나의 믿음

그렇다고 요나의 믿음을 가볍게 봐선 안 됩니다. 원수의 나라 앗수르 제국의 수도에 단신으로 들어가서 종일 걸어 다녔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대히 전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사항은 그들 신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만약 한창 역병이 돌 때였다면 정말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앗수르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지배를 줄곧 받아온 미개한 식민지 백성에 불과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고대에선 국력의 우열과 전쟁의 승패는 각 나라가 믿는 신들의 능력에 달렸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꼼짝 못하니까 여호와도 자기들 신에 비하면 아주 열등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던 차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자기들 신인 아누, 벨, 에아 등을 믿으라고 강요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아프리카의 소국의 한 주술사가 미국에 와서 자기들 신을 믿지 않으면 사십일 후에 미국을 심판한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의 니느웨라면 콧방귀도 안 뀌었거나 당장 그 자리에서 칼로 쳐서 죽였을 것입니다. 요나도 그래서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자기를 해코지할지 몰라 두려운 데다 쉽게 믿을 리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자연히 목소리는 기어들어 갔을 것입니다.

요나가 당시 중근동에 통용되는 아람어로 메시지를 전했겠지만 아무래도 악센트나 표현이 어색하고 얼굴도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걱정과는 달리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흥미롭고 신비감까지 느꼈을 것입니다. 요나는 마지못해 예언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그 메시지가 이방 백성들의 심령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도록 무대 장치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마침 주전 8 세기에 앗수르는 북방의 신흥국가인 아라랏과 오래 동안 전쟁을 치르느라 국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전염병이나 일식과는 무관하게 이미 자기들 신의 힘이 많이 약해졌다고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요나의 너무나 시건방지고 불경한 메시지를 듣고도 섣불리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주의를 기울여 경청했던 것입니다.

출애굽 때 가나안 백성이나 지금 니느웨 백성이 여호와를 두려워한 공통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능력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출애굽 때는 열 가지 재앙이 이스라엘이 살던 고센 땅에서 멀리 떨어진 나일 강가 애굽 본토에만 임했습니다. 고센 땅을 탈출하여 광야로 넘어 왔는데도 홍해를 마르게 했습니다. 요나 사건도 가나안 땅을 떠나 멀리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역과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는 여호와입니다.

무엇보다 여호와는 두 번이나 바다 물을 호령하여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방 족속들은 해와 달, 큰 바위나 나무, 바다 같은 피조물 자체를 숭상하지만 여호와는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다스렸습니다. 이젠 자연현상마저 손쉽게 바꿔가며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 인도하는 신입니다. 니느웨로선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입니다.

그런데 그 신의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어떤 신상도 지니지 않고 특별한 주술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기도도 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의 말씀만 선포합니다. 가뜩이나 여호와에게 간담이 녹아져내려 있는 판국이라 그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도 심령에 깊은 울림이 생기고 저절로 회개하려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들 사회에선 여호와를 믿으려 개종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비겁하며 연약한 짓이자 자기들 나라와 신들을 배반하는 최고 큰 죄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서 회개했습니다. 더 놀랍게도 아무도 서로 비방 멸시하지 않았고 그 사회에서 소외

추방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이가 진심으로 여호와의 권능 앞에 항복했기 때문이며 또 그러자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평강과 안식이 임했던 것입니다.

최고의 기적

초등학생들은 객관식이나 단답형 문제로 시험을 치릅니다. 본문에서 객관식 문제는 니느웨를 회개시킨 것은 여호와, 아누, 벨, 에아 중에 누구인지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단답식 질문은 니느웨를 회개시킨 신은 누구인가입니다. 둘 다 정답은 당연히 여호와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원론적 진리에만 머물면 초등학생 수준의 믿음입니다.

성경에 언뜻 동화처럼 여겨지는 요나서가 포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하는 힌트가 곳곳에 숨겨져 있으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의 인생은 물론 그를 통해서 인간사회를 통치하는 원리를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자들더러 하나님의 깊이, 높이, 길이, 넓이를 최대한 정확히 재어서 그분에 대해 논술 형으로 진술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선 어떤 논술 형 답변을 작성할 수 있습니까? 우선 하나님이 오래 동안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니느웨로 회개할 마음이 들도록 미리 만들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국제정세를 주관하여 아라랏과 전쟁으로 앗수르의 국력은 소진시킨 대신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 세는 강성케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최고로 큰 피조물이자 지구 전체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물의 삶과 죽음에 영향을 미치는 해와 달조차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때에 맞춰서 일렬로 세우셨습니다.

그와 정반대로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일까 말까 하는 바이러스 하나로 당시 세계 최강국 앗수르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요나가 틀림없이 상을 찌푸리면서 메시지를 전할 것까지도 아시고 고래 위액으로 화장해서 신비감을 보태었습니다. 요나가 어눌한 아람어 말투로 메시지를 전해도 성령의 권능이 실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밀하기로 치면 세균 하나로 그 강대국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듯이 인간이 도저히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세밀하십니다. 광대하기로 치면 해와 달을 맘껏 움직였듯이 인간이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수백 수천 년 동안 그 세밀하심과 광대하심이 결코 서로 상충하지 않고 완벽하게 조화롭게 작동하여 단 하루 만에 모든 이들로 당신 앞에 항복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임을 실감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런 분이 지금 일생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과 일생을 거룩하게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최소한 온전히 믿고는 있습니까?

무엇보다 그분이 일으키신 모든 기적 가운데 본문의 기적이 가장 경이롭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상에서 최고로 완악하고 악독하며 잔인했던 민족이 억지로 전하는 요나의 메시지 한 번 듣고는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당신 앞에 엎드렸습니다.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도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그 마음을 일순간에 뒤집어버렸습니다. 한 개인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뒤집는 것도 불가능한데 인간끼리 서로 합의 의논해선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순응하도록 만들어졌으나 인간만은 끝까지 당신을 거역하고 원수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당신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긍휼로 인간을 진심으로 회개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간 요나를 회개시키고 또 그를 사용해서 니느웨로 회개케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공의의 기준으로는 요나는 처음 거역했을 때에 심판받았어야 했고 니느웨도 그대로 두어서 멸망당해야 마땅한데도 말입니다. 인간의 눈에 백 퍼센트 정상적인 일을 거꾸로 백 퍼센트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바꾸었으니 이만한 기적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도 우리 눈에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고 여겨지는 일들에 사실은 하나님의 더 오묘하고 거룩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가장 비정상적인 일이자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논술형 답안의 결론

하나님에 대한 본문의 논술 형 답안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 하나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의 헌신된 종을 찾고 또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주 믿음이 좋아서 당신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능숙하게 전할 자여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자면 충분합니다. 유일한 자격 조건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비방 반발 수모 미움 학대를 받더라도 담대히 실천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신학적 지식과 기독교 교리에 능통한 자는 불신자들과 말싸움 밖에 하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요나는 소리통의 역할만 했습니다. 소리통을 우습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들어온 목소리를 단순히 볼륨과 음색만 조절할 뿐 그대로 다시 내봅니다. 받은 계시를 철자 하나 틀리지 않게 선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2 절)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전할 때 틀릴 수 없도록 아주 간단하게 명했습니다. 회개하여 당신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사십 일 내에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더러 소리통 역할만 하라는 것은 사람들로 그 소리에 제대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책임 하에 당신께서 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너는 내가 말한 것을 똑같이 복창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렇게 되도록 이미 다 알아서 예비해 놓았습니다.

최근의 코로나 사태는 인간의 죄악과 탐욕으로 인해 지구가 온난화된 것이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이전 바이러스들보다 모든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모두가 당장의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신자들은 불신세상으로부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박해까지 받고 있으니 억울하다 못해 야속하고 미워지기까지 합니다. 세상은 니느웨와 신자는 요나와 판박이처럼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재앙 앞에 신자가 행할 바도 요나서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회개하여 당신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한 가지 단순한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할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통처럼 십자가 복음을 절대로 변개 수정 타협 왜곡하지 않고 순전하게 그대로 가르칠 목회자들은 더 간절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논술형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은 그분과 동행하는 체험뿐입니다. '안다'는 히브리 단어의 뜻도 부부가 살을 맞대고 수십 년을 사소한 것에서 아주 큰일까지 아웅다웅 다툼하면서 서로를 속속들이 다 알 듯이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으나 모든 정황상 고래 배속에서 죽었다 살아나는 체험이 없었다면 쉽게 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메시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면하느냐는 것인데 요나야말로 가장 적임자였으며 요나를 그렇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로 맺어진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살아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무엇보다 그분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 한마디라도 실천하는 것이 제자훈련 지도자 반을 수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경건한 일이며 믿음도 견고해집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여정이 각자 다르고 현재 처한 상황도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과 순종하는 체험의 내용과 의미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모든 신자가 십자가 예수님의 긍휼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죽음 이후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참 인간답게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진리 하나는 철저히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된 자리에서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실제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죽어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고 나에게 기적을 일으킨 그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어집니다.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전한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는 간단한 메시지면 됩니다. 말솜씨가 부족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달리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라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입에서 나간 말씀을 절대로 실현되지 않은 채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리의 말씀이 일단 선포되면 그 말씀 자체에 영적 권위가 있을 뿐 아니라 당신께서 그 진리 됨을 확증해야 하므로 반드시 성령이 강력히 역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먹힐 수 있게끔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생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윤리적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삶의 무게를 못 이긴 정서적 불안정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 사이에 상처를 주고받으며, 중병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며,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가정의 부부 사이의 어려운 문제 등 하나 같이 불쌍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복음이 그 심령을 찔러 쪼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틈새로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진솔한 말로 들려지면 마치 큰 얼음덩어리가 바늘 하나만 꽂아도 둘로 쪼개지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순수성이 교회와 신자에게서 사라지거나 퇴색되는 순간 세상에서는 특별히 코로나 같이 재앙의 시대에는 빛이 더 빨리 사라지고 흑암은 더 많이 설치게 됩니다. 비록 영적으로 미숙하고 수시로 하나님을 거역했었고 이번 사태가 온전히 이해되지 않아도 영원토록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십자가 예수님은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요나 같이 세울 수 있기에 코로나 사태를 허락했습니다. 특별히 논술형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바로 선다면 반드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죄로 타락한 세상이 아니라 신자와 교회가 순전한 복음 위에 바로 서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의 기도에도 계획을 바꾸는가?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재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 떼나 양 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욘 3:6-10)

요나가 하나님이 명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딱 하루만 전했는데도 니느웨에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사십일 후에 이 큰 성읍이 멸망할 것이라는 선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굵은 베 옷을 입고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니느웨의 왕도 조서를 내려서 백성들로 더 적극적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라고 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여호와가 악독했던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준 위에 당신의 심판 계획까지 취소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며 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효율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역사

우선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라고 합니다. 요나가 왕궁에 가지 않고 길거리에서 외쳤으므로 백성들부터 먼저 회개했습니다. 성중의 이상한 동향에 대해선 수시로 왕에게 보고되었을 것이며 어쩌면 수많은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왕궁에까지 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될 것이라면 요나가 왕부터 회개시켰더라면 백성들이 쉽게 따라올 것이므로 며칠 씩 성읍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 미국의 한 기독교 이단종파가 최근 아프리카에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데 그들의 선교전략이 그러합니다. 각 지역의 추장부터 만나서 마을의 숙원 사업이나 골칫거리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당장 해결해주기로 약속합니다. 그 대가로 추장은 종족 전체가 그 종교로 개종하도록 명령하는데 아주 손쉽게 교세를 확장하게 됩니다.

최소의 비용을 투자해서 최고의 효율을 올리는 식은 세상의 경영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이라도 성령이 강력히 역사해서 모든 택한 자를 일순간에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셔서 구원과 심판을 완성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신자로 이 땅에서 연단으로 성숙시키고 불신자는 계속해서 환난으로 힘들게 하시려는 뜻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한데 하나님이 최대한 능률만 높여버리면 신자가 행할 일이 하나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모든 인간을 당신을 대리해서 이 땅을 거룩하게 다스릴 청지기로 세웠고 타락 이후는 신자로 그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 10:14)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 1:21)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선교사로 바꾸어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신자는 그분의 전권대사입니다. 대사가 하는 말과 행동은 자기나라의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외교관과 그 관저는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률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나라의 법에 따릅니다. 마치 한 나라 안에 다른 나라가 있는 격입니다.

신자도 거주는 세상나라에서 하지만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늘나라 외교관으로서 세상에 천국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신자가 우선적 궁극적으로 따라야 할 법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서 신자가 언제 어디에 있던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좋은 소식을 전하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선포했습니다.(사 52:7) 니느웨로 보내심을 받았던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갈 때 그 발은 너무나 추악했습니다. 늦게나마 정신 차리고 니느웨의 회개를 외치며 성읍을 돌아다니는 그 발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았기에 성중에 그런 회개가 일어났고 왕까지 동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의 명령으로 강제로 개종하면 참 회개가 아니며 본인들에게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호와에 대해 체험적으로 제대로 알아야만 순전히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성중의 백성들은 요나가 고래에 삼켰어도 살아났음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의 간증은 모두가 사실이었기에 여호와의 크신 권능에 대해 간접적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가 전하는 메시지도 진리라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인류에게 의미가 있었던 개혁과 부흥은 한 연약하고 이름 없는 헌신된 종에게서 시작되어서 세상이 거역할 수 없는 큰 흐름으로 발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똑똑하고 힘 있는 자가 선도하면 외적으로 빨리 성장할 수는 있어도 결국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눈이 멀어 인간 사회를 더 악화시켰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비겁했던 요나부터 당신의 권능을 체험시켜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그 권능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니느웨 백성들로 대대적으로 회개케 했습니다. 마지막에 왕과 권력자들도 따르게 만들었는데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을 따르려면 정말로 큰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신도 회개한다.

그런데 니느웨 왕은 회개는커녕 현재 상황을 이해도 못하는 짐승들마저 금식시키고 굵은 베 옷을 입도록 명했습니다. 아주 미개해 보이고 최대한의 치성을 바쳐서 신의 노여움을 풀려는 우상 종교의 냄새를 풍깁니다. 고대 중근동 지역의 이방족속들은 국가적 대사에 짐승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혀서 회개에 참여시키는 것이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아끼던 가축이나 애완동물이 굶어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봄으로써 주인들이 더 애통해하며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개한 모습이긴 해도 더 간절히 회개하겠다는 동기는 선하다고 봐줘야 합니다.

신자가 하늘나라의 전권대사이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일꾼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왕은 그 나라와 백성 모두가 자기 소유로 신들처럼 매사를 자기 마음먹은 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백성이 먼저 회개했어도 본인이 틀렸다고 생각되거나 기분에 안 들면 곧바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축까지 회개에 동원시켰다는 것은 왕의 회개도 백성들 못지않게 아주 진실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쉽게 넘겨선 안 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호와를 믿거나 그 예언을 따르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는 셈입니다. 그들을 지금껏 식민지로 지배해왔던 나라의 왕으로서 쉽게 행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출애굽 때에 애굽의 바로는 엄청난 재앙을 아홉 번이나 당하고도 완강히 버티다가 마지막 열 번째 자기 아들이 죽자 어쩔 수 없이 모세의 말을 따랐습니다. 일차적으로 다음에는 자신이 죽을 차례이니까 크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전까지는 세계 최강국 애굽이 노예들의 신에게 순종할 수는 결코 없었고 바로는 살아있는 신으로 애굽의 여러 우상 신들보다 최고위 신으로 숭배되고 있었으니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풀어주고도 그 노동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깝기도 했지만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분을 이기지 못하고 홍해까지 쫓아간 것입니다.

니느웨 왕의 신분과 위치도 애굽의 바로와 같은데 지금 성중의 상황만 전해 듣고 회개했습니다. 앗수르라는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에게, 자기들의 모든 신들이 여호와에게 항복하는 것이며, 자신의 신적인 권세도 몽땅 포기하는 일입니다. 왕은 여호와에게 순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십 일 후에 심판이 임할 것이며 살아남을 길은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 뿐이라고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는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재 위에 앉는 일은 자식이 죽었거나 나라가 절대 절명의 위기에 빠져야만 행하는 일입니다. 니느웨에 발생한 역병이 요나가 방문하기 전이었을 가능성을 다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때의 바로처럼 자기 왕위를 계승할 장남이 역병으로 졸지에 죽었다면 요나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역병으로 가축들도 많이 죽었을 것이므로 관습을 떠나서 짐승들도 회개에 동참시켜서 살려보겠다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역병 때문이라면 여호와의 힘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한 것으로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단번에 효율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역병과 관계없이 백성은 물론 왕에게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왕에게 자기는 신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만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선 모든 인간은 공평합니다. 왕의 권세도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죽음 이후의 구원을 염려하게 됩니다. 최소한 요나처럼 살려만 주면 반드시 여호와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진심어린 간구를 한 것입니다.

거기다 왕은 백성과 가축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라는 명령을 구두로 하지 않고 조서로 남겼습니다. 그들의 역사 대대로 개종한 반역자라는 기록이 남아 두고두고 후손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비유컨대 한국의 왕이 조서를 내려 일본에 항복하고 일본의 신사를 참배하게끔 명령한 꼴입니다. 머리에 총을 갖다 대고 협박받지 않는 한 자기 의지로는 결코 하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 왕에게 아무도 강요하는 사람이 없었고 성중의 동향 보고만 받고서 스스로 조서를 내렸습니다. 성령이 강력히 역사했기 때문이라는 설명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회개하는 것은 그 권능에 어쩔 수 없이 항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폭군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분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단 한 치도 제한하지 않고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순전히 깨달아 진정으로 그분께 겸손하게 엎드리게끔 인간 내면에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십니다. 결국 요나서의 결론처럼 하나님은 니느웨 왕도 정말로 사랑했기에 그로 회개하게끔 인도했고 왕도 여호와께 진심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불신자의 기도에 응답하는가?

이제 살펴야 할 주제는 니느웨가 금식하며 뜨겁게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까지도 니느웨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잔혹하기 짝이 없었던 원수였지 않습니까? 그럼 또 지금 코로나 사태도 세상 사람들이 사십 일간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종식시켜주실까요?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불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순전한 믿음이 따르지 않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언제가 비유했지만 남의 집 아버지에게 어떤 일을 해달라고 부탁해봐야 아주 위급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상황의 위급함이나 부탁의 간절함 등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의 아들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는 것처럼 기도 응답도 신자 쪽의 믿음보다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우선적입니다.

본문의 경우는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순전한 믿음으로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써 여호와의 관계는 이미 맺어졌습니다. 흔히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기도의 응답도 잘 되고 그 믿음이 가장 순수했다고 말하듯이 생전 처음 하는 진정한 회개인지라 여호와를 순전히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 데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왕은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명한 후에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8 절)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죄악을 짓지 말고 강포 즉, 폭력에서 떠나라고 명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합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뜨겁게 기도하면 다 이뤄진다고 단순하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도 당신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할 것이며(마 18:20),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이루리라고(요 14:13)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아서, 믿음과 열정이 부족해서 응답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기도에 관해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도 역대하 7:14 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구절의 문자적인 뜻도 정확히 모르고 금과옥조처럼 붙들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여 여호와께 봉헌식을 마친 후에 여호와가 그의 꿈에 나타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행할 일이 하나 있는데 니느웨 왕의 명령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해지라고 합니다. 단순히 기도했다고 응답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도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성전에 와서 혹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죄를 사해달라고 탄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최고의 부귀를 쌓은 솔로몬조차 세상에서 형통과 출세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고난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난이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구약시대의 미숙한 믿음이었다 쳐도 간절한 기도보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또 그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주신다는 약속의 뜻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현실적 형통과 출세를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가난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즉, 이 땅의 삶에서 아무도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병을 고침 받으러 오는 자들을 피해서 다른 동네로 복음부터 전하러 갔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실제로 따르고 있는 신자가 그 길을 잘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진짜 의미입니다. 기도를 마칠 때 반드시 후렴구로 넣어야 하는 종교적 수사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은혜와 권능이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정미한지 아셔야 합니다. 본문 10 절에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재앙을 취소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10 절)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나서 응답했습니다. 단순히 실천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떠났습니다. 사십 일간의 회개 부흥 기간에는 정말로 폭행을 포함한 모든 죄악이 니느웨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영국 웨일즈, 한국의 평양, 미국 엘에이의 아주사 거리 부흥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언 신유 같은 초자연적 은사가 함께 나타났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였습니다. 세 번 다 신자들은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모든 죄를 토설했고, 성도들끼리 자발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 서로에게 용서를 빌었고, 어떤 죄도 범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쉽게 말해 돈 떼먹고 도망갔다든지, 음주로 인한 시비 다툼마저 없어져서 경찰서가 할 일이 없어져 개점휴업 할 판이었습니다.

회개는 행동이다.

회개는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아무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에게 일대일로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잘못을 범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회개만 하면 용서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간단하고 편리합니까? 실제로 그 잘못을 온전히 고쳐야 참 회개입니다. 한자말로 풀이하자면 잘못을 뉘우치는 회(悔)와 바르게 고치는 개(改) 자가 합쳐져야 합니다.

우리 심령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진실로 자기 잘못을 토설하면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시나 그 잘못을 고치려고 내렸던 징계의 형벌은 여전히 계속될 수 있습니다. 신자가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시인했지 고쳐진 증거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용서하신 가시적 증거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도 아이가 잘못했다고 빌어도 예정했던 회초리는 때립니다. 앞으로는 그 잘못에서 완전히 떠나라는 경고의 뜻입니다.

신자가 행동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행동으로 용서해주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니느웨의 회개와 기도는 갓 예수를 믿은 초신자처럼 아주 순수했습니다. 거기다 실제로 모든 악행을 멈췄기에 크게 기뻐하시며 응답해주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해 자신들의 지난 악행과 폭력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철저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작금의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은 두말 할 것도 없고 신자들도 대면 예배로 모여서 합심하고 금식하며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종식시켜주는 기적을 일으켜 주지 않습니다. 지난 잘못을 입술로만 회개해선 안 되고 행동으로 고쳐나가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완전히 고쳐지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던 악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깨닫고 더 이상 반복하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솔직히 신자들과 교회들이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잘못을 범했습니까? 오죽하면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종교와 그 지도자로 기독교와 목사가 뽑혔겠습니까? 개독교라는 별칭으로 비방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는 성경 진리를 말로는 외우면서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한 죄부터 철저히 회개해야 즉, 예수님이 가신 길을 목숨을 걸고 실제로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는 형통과 출세를 보장하는 기복적 기독교는 쓰레기통에 완전히 던져버리고 순전한 십자가 복음만 선포하고 하나님의 참 진리로만 신자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전권대사로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세상에 비춰내야 합니다. 단순히 전도에 힘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해결책까지 강구해야 합니다. 예컨대 지구 온난화를 지연시키는 일에 당장의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실현 가능한 일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로 현실적으로 궁핍해지고 영적으로도 피폐해진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기도해주어야 합니다.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마다 신자들이 앞장서 자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는가?

니느웨 왕에게는 정말로 우리가 본받을만한 믿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9 절)고 말했습니다. 심판을 거두지 않는다고는 아무도 말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보다는 강렬한 소망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그 반대로 니느웨가 악한 길에서 떠난 후에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말하자면 요나 사건의 자초지종을 듣고 여호와의 큰 권능에는 완전히 항복했으나 그분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껏 헛된 우상들만 음란하게 섬긴데다 이스라엘에게 오래 동안 강포를 행한 죄를 생각하면 유대인들의 신 여호와에게 긍휼을 바란다는 것이 도무지 염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한다고 해서 심지어 악행을 그친다고 해서 그분의 용서를 받을 자격은 자기들에게는 없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은 없어도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회개는 해야 했던 것이며 모든 결과는 오직 여호와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로 니느웨 왕의 회개는 진실했고 스스로 자기를 낮춘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면 땅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불합리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면 더 이상 고쳐줄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자에게 진정한 회개를 바라신다는 뜻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한 대로 실천하면 사실상 문제가 해결되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재앙도 멈춰진다는 뜻입니다.

작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나라들마다 분열과 분노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종교 갈등이 폭발했고 이번 주에는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미국이 완전히 세계의 망신감이 되었습니다. 종말이 실제로 다가온 것처럼 여겨져서 모든 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이 사태를 어서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만 해선 안 됩니다.

그런 기도 이전에 혹은 동시에 세상이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으로 또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야할지 바른 길을 비춰주는 빛의 역할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불신자들로 사람들이 자기 탐욕만 채우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으며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세상 전부를 바꾸겠다고 거창하게 덤비지 마시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그 공동체의 문제의 대부분이 해결되고 영적으로 순전해지기에 하나님이 은밀히 베푸시는 축복도 자연히 찾아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한국 신자들은 가뜩이나 성질이 급한데다 지금껏 잘못 배워서 신앙에서 마저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새벽 모임에 나와서 어서 빨리 고난에서 꺼내 달라고 빌고 응답을 빨리 받으려는 의도로 입술로만 잠시 용서를 빌고 치웁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붙드는 것밖에 할 줄 모르고 그분의 뜻과 계획도 아예 자기의 것으로 대체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기도인지라 신자가 반드시 본 받아야 할 기도입니다. 그런데도 신자들이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이나 생업으로 돌아가선 세상 사람과 똑 같이 때로는 더 영악하게 뒷구멍으로 호박씨 까는 식으로 살아가는데 기도 응답이 될 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악에서 뉘우치고 떠난 분명한 증거를 신자에게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할 사항은 인간의 믿음이 순수하고 회개한 증거가 확실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바꾸거나 영향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적 이해 수준에 맞춰준 표현일 뿐입니다. 니느웨의 회개도 당신의 뜻과 계획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기에 요나를 고래에서 살려주면서까지 니느웨로 오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진정한 회개와 부흥을 일으키는데 있었습니다. 요나로 당신의 전권대사로서 당신의 메시지를 단 하나 가감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게 했습니다. 니느웨 왕으로 여호와에게 긍휼을 받을 자격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음을 절감하게 해서 모든 처분은 여호와께 맡기겠다는 진정한 고백을 하게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특별히 기도하는 모습을 진솔하게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무런 행동의 변화도 없이, 아니 시도도 안 해보고, 단지 그렇게 오래 뜨겁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에도 기독교에 대한 실제적인 종교 박해는 없는데도 교회로 못 모이게 하는 세상 권력을 고쳐달라고 마치 핍박 받는 순교자 코스프레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자신의 안락을 보장 받고 기독교의 교세를 효율적으로 확장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를 믿은 후에도 심지어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도 그분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로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특별히 그분이 주시는 소명을 실천하고 있으면 구태여 기도하지 않아도 신자에게 재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어떤 고난이 닥쳐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자면 작금의 코로나 사태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은 신자들더러 최소한 니느웨 만큼이라도 진정한 회개와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욘 4:1-4)

분노의 두 가지 원인

요나서의 주제는 하나님이 니느웨 같은 최고로 악독한 이방 족속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대한 기사는 3 장 한 장으로 그치는 반면에 나머지 세 장은 요나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본문도 니느웨가 진정한 회개를 하자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는 모습을 본 요나가 분노에 차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요나서의 더 중요한 주제는 요나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과연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화까지 냈는지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성을 낸다는 것은 겁이 나서라도 감히 하지 못할 일입니다. 요나도 실은 하나님께 직접 대놓고 화를 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화내느냐고 하지 않고 단지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4 절)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떤 일을 시행했는데 자기 계획이나 기대대로 되지 않고 더 악화되거나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때입니다.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 만만했던 일이 실패하면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직접 개입되지 않았으나 아주 불합리하거나 악한 일을 목격했을 때입니다. 예컨대 돈 많다고 갑질하거나 자기 자식에게 폭행을 일삼는 부모를 보면 분노가 치솟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대대적인 회개와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을 보고 화를 냈는데 두 가지 경우에 다 해당됩니다. 첫째 니느웨가 회개한 것이 자기 기대 밖이었고 둘째 아주 불합리하고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서원하여 다시 생명을 얻었기에 어쩔 수 없이 메시지를 전했지만 니느웨가 회개할 리가 없다고 믿었는데 악에서 완전히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중지만 한 것이 아니라 더 의롭게 만들었는데 여태껏 이스라엘에게도 거의 베푼 적이 없는 은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역사해선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뜻입니다.

요나는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일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모순되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고국에 있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처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할 때부터 만약 이런 결과가 된다면 너무 싫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니느웨가 살아날 수도 있을 텐데 목숨 걸고 다시스로 도망가면서까지 그것에 반대한다는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자가 많아도 여호와는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어야지 왜 심판 받아 마땅한 악독한 니느웨 편에 서느냐는 것입니다.

요나의 잘못된 분노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따질 자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선지자인 주제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거역하고 고국 이스라엘을 떠나 땅 끝으로 도망가려 했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 노릇하지 않겠다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대화마저 단절되어도 좋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 따지면 당장 심판 받아 마땅했습니다. 실제로 풍랑이 이는 바다에 던져졌을 때나, 또 고래에 통째로 삼켜졌을 때는 심판받아 죽는가보다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래 배속에서도 삼일 간이나 멀쩡히 숨을 쉴 수 있었고 고래가 해변까지 헤엄쳐 와서 토해내었습니다. 심판 받아 마땅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를 받았습니다. 역사상 어느 누구도 이런 극적이고도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요나로선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일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동일하게 심판 받아 마땅한 니느웨에 동일한 인자를 베풀었는데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니느웨는 절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선 안 된다고 인간인 자기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는 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자기는

인자를 받아도 되고 니느웨는 인자를 받아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고국을 떠나기 전이나 고래 배속에서 살아난 지금이나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다 요나는 차라리 나를 죽여 달라고 탄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고 싶은 의욕도 살아가야 할 의미도 다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니느웨가 회개하여 용서받느니 차라리 내가 용서 받지 않고 죽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취소하고 다시 생명을 주었는데도 지금 자신에 대한 심판마저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아니 신자라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요나는 지금 거꾸로 더 이상 순종하지 않을 테니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니느웨가 심판받는 것에만 자기 목숨을 걸었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셈입니다. 그가 현실적 수단과 능력이 없으니 니느웨와 맞서 싸워 이기겠다고 노력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고국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에게 빨리 심판해달라고 끈질기고도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니느웨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겠고 그 일을 자기더러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것만은 아니다 싶어서 목숨 걸고서라도 수행하지 않겠다고 다시스로 도망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왕에 한번 죽다 살아났으니 다시 죽는 것은 겁나지 않는다고 덤비고 있습니다.

요나의 진짜 불만

자신을 죽여 달라는 요나의 간구를 너무 불경하다고 쉽게 정죄해선 안 됩니다. 엘리야도 바알 선지자와 갈멜산의 대결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으나 이세벨이 죽이려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쳤으나 탈진해서 자신을 차라리 죽여 달라고 여호와께 탄원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온갖 고난과 세파에 시달려서 어서 빨리 천국에 갔으면 싶을 때가 많고 실제로 가끔 그런 기도까지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경우는 그 대적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왕비였고 엘리야 한 사람만 죽이려 들었으며 아직 광야로 추격해오기도 전이었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고달픈 일이 겹칠 뿐 외부의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며 실제로 죽음의 문턱에 이른 것도 아닌데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니느웨는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고 당시 세상의 최고 악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니느웨는 일본이고 그 왕은 임진왜란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니느웨는 나치 제국이고 그 왕은 히틀러인 셈입니다. 그런 자를 어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대대로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들을 단순히 살려만 주지 않고 천국까지 보낸다면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기꺼이 믿고 따를 수 있습니까? 아니 수용 혹은 이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보면 미운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런 반응입니다. 정치적으로 거창하게 애국심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사회에 암적인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히 형통해선 안 되는 사람들이 정치권력과 결탁하여서 재물과 권세를 함께 누리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괄시 천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따져도 자기 인생을 망가트렸거나 큰 장애가 되었던 한두 명의 원수는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원수가 아니라도 평소에 남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므로 상종하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꿔 말해 지금 요나의 불만은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항상 품고 있는 불평이었습니다. 일차적으로 하박국이 여호와께 따진 질문과 같습니다. 악인은 온 세상을 장악하여서 활개치고 있고 반대로 의인은 억울하게 손해 보며 핍박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왜 가만 버려두시느냐는 것입니다. 요나는 한걸음 더 나아가 왜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서의 결론대로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당신이 지으신 당신의 자녀이니까 사랑하시므로 신자도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행했으니 신자도 그와 똑같이 행해야 한다면 솔직히 뱁새가 황새를 쫓다가 가랑이만 찢어지는 셈 아닙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원죄 하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죄악으로 달려가는 걸음은 아주 빨라도 선을 향해선 젖 먹던 힘까지 다 동원해도 느리기 짝이 없습니다.

거기다 인간은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존재입니다. 여러 감정 중에서도 더 강렬한 것이 더 힘을 발휘합니다. 원수에 대한 분노만큼 센 감정은 없습니다. 도덕적 종교적 의무감으로 원수를 사랑하려 해선 거의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우리가 매번 체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푸신 긍휼의 참 뜻

여호와가 니느웨에게 베푸신 긍휼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일로 우셨다고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1 장의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울었다는 것은 당신의 긍휼이 최고로 드러난 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경위를 살피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지만 곧바로 그를 되살릴 것이므로 사실은 죽은 나사로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닙니다. 그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피 우는 모습을 보고 우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위 사람의 격해진 감정이 함께 느껴져서 우신 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 앞에 너무나 무력한 모든 인간의 상황을 슬퍼하신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삼 년간 그렇게 가르치고 사역하면서 보여주었는데도 영생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더라면 나사로의 병을 고쳐서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내심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치유의 은사를 가진 한 능력 있는 선지자로만 알고 있는 것이 당신께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 본체이신지라 예수님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전혀 문제될 것 없었습니다. 실제로 베다니에서 온 종에게서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주님은 그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틀을 더 지체해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후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죽은 후 나흘이 지나면 그 영혼이 완전히 음부에 들어가서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무한정 아무 의식 없이 잠만 잔다고 믿었습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되살리면 영계인 음부마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아가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삼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날 것이라는 예언도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는 가시적인 증거가 됩니다.

나사로가 되살아나자 베다니 온 동네에 큰 잔치가 열렸을 것입니다. 인간이 갖는 최고의 슬픔으로 가득 찼던 장례식이 인간이 갖는 최고의 기쁨으로 충만한 새 생명의 잔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곧바로 퍼져 유대종교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계획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틀을 지체했듯이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당신의 죽음을 계획하여서 주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당신의 장례를 당신께서 기꺼이 거행하고 무덤에 들어가시면서 무덤 속에 있던 인간에게 당신의 생명을 심어주어 걸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오묘하고도 크신 긍휼입니까? 어떤 인간 철학자 사상가 종교가라도 상상도 못할 하나님만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한다"(요 11:25,26)고 선포했습니다.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에게 지어진 죄의 삯인 죽음의 형벌을 벗길 것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나사로가 이 땅에서 소생한 것보다 더 귀한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천하의 죄인입니다. 세상의 권력, 재물, 명예의 많고 적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인간 사회에서 최고 악독한 죄인이나 모두가 칭찬하는 최고 의로운 사람이나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겸비하게 엎드리는 것 외에 그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은 전혀 없습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 모인 모든 사람은 육신의 죽음으로 인생이 완전히 끝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생명 연장에만 급급했습니다. 이제 죽었으니 장례식을 경건하게 치르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의라고 여길 뿐입니다. 주님은 인생들이 천국의 부활 생명을 모르는 그 영적 무지함이 너무 안타까웠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아등바등 다투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우셨든 것입니다.

니느웨를 용서하신 까닭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팔복 강화에서 불치병과 불구에서 당신께 고쳐주신 자들을 상대로 그보다 엄청 더 귀한 좋은 복을 알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첫째 복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인데 너희부터 십자가 앞에서 죽어 마땅한 천하 죄인 중의 괴수임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에 가서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가 받을 복을 말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도 한참 후에 신앙이 제대로 성숙되어져야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도망간 제자들이나, 당신을 세 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한 베드로나,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외국까지 기세등등하게 가고 있는 바울에게 화는커녕 도리어 크신 긍휼로 용서해주셨습니다. 심지어 당신을 은 삼십 냥에 팔러나가는 가룟 유다를 전혀 제지하지 않고 네가 하려는 일을 빨리 하라고 했으며 당신을 십자가에 매단 유대 지도자들의 용서를 위해 기도까지 해주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당신의 십자가 사랑을 알기 전에는 당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고 또 그럼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은 절대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쉽게 비유하자면 사형이 확정되어서 같은 감방에서 다 함께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것은 오직 하나 언제 사형이 집행되느냐 뿐입니다. 사형수끼리는 먼저 처형당한 자를 두고 더 악독한 죄인이라고 절대 비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에 원수 사이였다 해도 사랑까지는 못해도 저나 나나 참 기구한 운명이라고 여기고 저주와 분노를 그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려면, 아니 최소한 미워하지 않으려면 원수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가 나에게 행한 지난 악독은 결코 지워지지 않고 쉽게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용서하려 들면 들수록 원수와 그가 행한 일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오히려 미움만 늘어납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나도 원수 못지않게 너무나 치사하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해야 합니다. 똑같은 사형수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시시비비 따질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불쌍하다는 사실이 실감나야만 원수 또한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조금씩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인간의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은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각 개인이 가장 먼저 행할 일은 자기가 그분의 긍휼의 품 안에 들어가 거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미워하는 원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들의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주관하실 문제입니다. 그들이 벌을 받아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주실 것이고 그들을 살려내야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낼 것입니다.

여호와는 요나에게 네가 내게 화를 내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단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고 반문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를 원수처럼 미워하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며 오죽하면 당신에게 원망을 퍼붓는지 그 이유도 다 꿰뚫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를 야단친 까닭은 "너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니느웨가 아무리 최고로 악독한 죄인 같아도 너도 그들과 하나 다를 바 없는 악독한 죄인일 줄 제발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요나더러 원수를 미워하기 이전에 네 자신의 영적 실상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니느웨를 용서하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그들도 당신이 지어셨기에 사랑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당신의 대적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에게 어떻게 간구했습니까? 저들이 자기들을 하는 것을 모른다고 했습니다.(눅 23:34) 니느웨 백성들이나 요나나 똑같이 자신들이 당신께 원수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이 불쌍하게 여긴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죄를 도무지 씻을 길이 없는데도 서로를 비방 정죄 심판하면서 인간끼리 원수 삼는 것이 너무 어리석고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나나 니느웨나 똑같이 무덤 속에 누워있는 영적 시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모든 인간에게 갖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구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최악의 상태로 있는데 그 위에 또 심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구원해줄 지는 오직 당신의 절대적 권한과 은총에 달렸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라도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에 은혜를 주시는 일에 대해서 싫어서 화를 내는 것은 아예 말도 안 되며 그만큼 큰 죄도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지금 말로만 자기를 꾸중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긍휼을 자기에게 베풀고 있는지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선지자인 주제에 그마저 모르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입니다. 사실은 요나가 더 어리석고 불쌍했으며 그래서 요나서의 3/4 이 요나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의미는?

작금 한국이나 미국을 보면 정치적 색깔과 종교적 믿음과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지도자들부터 요나처럼 '내로남불' 천국이 되었습니다. 불과 수십 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에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간음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하면 거의 다 동의했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죄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비방 멸시 정죄하고 있는 죄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데 남에게만 해당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죄인입니다. 지금은 절대적 진리가 없어진 것을 넘어서 자기만 절대적 진리가 된 시대입니다.

그 필연적인 결과로 세상은 지금 누구나 피부로 느끼듯이 끝이 없고 어디로 튈지 모를 분열과 대립에 휩싸여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모두가 모두에게 원수가 되어 가는 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죄 심판하지 못해서 난리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하나인데 나는 절대 선이고 너는 절대 악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선과 구원을 전부 자신이 판결하고 시행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리타분한 기독교의 신조일 뿐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하나님의 점수에 합격하려고 노력하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자기들에게 충성하면 복을 받는다고 세뇌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단 교주가 하나님 행세를 하거나 종교적 광신자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던 시대는 그나마 순진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는 도무지 못 살 것 같아서 하루 속히 천국을 가고 싶은 생각이 종종 듭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고, 아니 기도할 것도 없이 가끔은 지금 바로 재림하여 몽땅 심판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나 본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바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꾸중만 들었지 않습니까? 이미 한 번 사면 받은 요나이므로, 아니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구원과 심판에 대해 시시비비를 따질 수 없습니다. 요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집어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작금의 사태에서 기독교 신자라고 특별히 의로울 것 하나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행위구원을 넘어서 원시적인 기복신앙으로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세상에서 편 가름하고 원수를 무찌르는 싸움에 간접적으로 편승하다 못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했더라면 천하의 비겁하고 치사한 요나를 넘어서 최고로 악독한 니느웨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장례식에서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 붙들고 서글피 우는 문상객들과 같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속 울고 계셨을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바울, 베드로, 스데반, 빌립보 감옥의 로마 간수,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남편을 다섯이나 두고도 다시 젊은 남자와 사는 여인 등등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 그분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만의 긍휼로 다시 살려주었고 다시 요나처럼 당신의 메신저로 세상으로 돌려보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유일하게 바라는 사항은 이 짧은 시간의 땅의 삶에서는 서로 사랑까지는 몰라도 절대로 원수 삼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악인들에게 화가 나고 그래서 당신에게 원망을 터트릴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다시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자신에게서부터 눈곱만큼도 없다는 진리 아니 사실을 다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절대로 원수 삼을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신자 본인부터 다시 하나님의 원수 자리에 떨어지지 않는 것만도 하나님의 너무나 큰 긍휼임을 매일 매순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세상에서의 악인들에게 분을 내거나 불쌍히 여기기 전에 신자에 대해서 먼저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에겐 이 땅에서 육신의 형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죽음 후의 심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미 영생을 소지했기에 세상에서 아무리 손해보고 핍박 받아도 하나님 안에선 가장 형통한 자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것이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형통하고 권세를 누려도 하나님 안에선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이 땅으로 인생이 전부이기에 사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구태여 원수를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 세상에선 도리어 원수를 갚는 것이 최고의 선으로 칭찬 받습니다. 그러나 죽어 마땅한 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 받은 신자는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까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광스런 부활생명을 받지 못한 그들을 향해 최소한 불쌍히 여기고 분을 내지는 말아야 합니다. 원수를 자기 의지와 믿음으로 사랑하려고만 노력하면 종교적 의인입니다. 자기부터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절실하기에 더 이상 원수가 남아있지 않아야 신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신자가 평생토록 행해야할 한가지 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매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욘 4:5-9)

엄청난 요나의 고집

니느웨가 진심으로 회개하자 하나님이 용서해주었는데 요나는 그것이 너무 싫고 화가 나서 차라리 자기를 죽여 달라고 소원했습니다. 악독한 이스라엘의 원수는 반드시 심판해야지 용서해주어선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만의 절대적 주권사항이므로 아무리 당신의 충성된 종이라도 왈가왈부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야단치셨습니다. 그 후에 박 넝쿨을 하루 만에 무성하게 했다가 다시 시들게 함으로써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물의 살고 죽음이 당신의 절대적 주권에 속한다는 사실을 그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전혀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에게 또다시 박 넝쿨을 핑계 삼아 화를 내며 죽여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또다시 화내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꾸짖었는데 그래도 요나는 자기가 옳다고 말대꾸까지 했습니다(9 절). 요나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우리로선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깊고 견고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본문 사건이 일어난 시기와 장소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앞서 니느웨가 회개하도록 40 일 간의 유예기간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성읍 모든 백성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악에서 떠난 모습을 보자 계획했던 재앙을 취소했는데 성경은 그 후에 요나가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욘 4:1)

그럼 요나는 지난 사십일 내내 입술로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고 외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제발 이들이 회개하지 말고 심판받으라고 빌면서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소원과는 달리 니느웨가 첫날부터 회개하자 크게 놀라며 혹시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한 것은 아닌가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쩌다 일부만 회개했겠지, 이러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지 기대해보았으나 왕도 조서를 내리며 동참했고 온 백성이 정말로 악에서 떠났습니다. 사십 일의 작정 기간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심판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이렇게 되도록 다 계획하고 주관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배반하는 최고 매국노 역할에 하필이면 자기가 뽑혀서 쓰임 받고 있다고 여겨지니 크게 원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결국 41 일째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하나님께 화를 내었고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성이 잘 보이도록 시야를 가리는 나무가 없는 평지에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뜨거운 햇빛에 노출되고 땅에선 더운 기운이 올라오므로 더위를 피하려고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소돔 때처럼 어서 빨리 유황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니느웨를 분노와 증오에 가득차서 노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 나치 제국이며 우리에겐 나라를 빼앗은 일본인데 그들의 멸망을 바라지 않을 이스라엘이나 한국 백성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요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를 살려주었고 지금도 당신께 두 번이나 화를 내며 대들어도 말로만 야단쳤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에게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주려고 박 넝쿨을 하루 만에 무성하게 자라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늘이 만들어질 만큼 잎이 무성하려면 한두 달은 걸려야 합니다. 뜨거운 한낮이 되기 전까지 몇 시간 만에 그렇게 되었으니 줄기가 쑥쑥 자라고 잎이 열리는 것이 눈으로 보일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고래를 보내어 구해주었듯이 지금 나를 시원하게 해주려고 이런 기적을 베풀고 있다고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나서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기적적인 은혜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시원한 하루가 지난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은 넝쿨을 마르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벌레가 무성한 잎을 다 먹어치우려면 수십 마리가 동원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결코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또 박 넝쿨이 마르자 바로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불어 일으켰습니다. 중동지역의 열풍은 밤에도 한낮의 더위가 지속되고 낮에는 습기가 다 말라버려 피부가 당겨질 정도라고 합니다. 요나가 지은 초막만으로는 이틀째의 무더위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계속 더 버티고 있다간 혹시라도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해도 요나는 보지도 못하고 일사병에 걸려 먼저 죽을 것입니다.

그럼 요나로선 하나님이 그렇게 순식간에 넝쿨을 나게 했다가 다시 또 순식간에 마르게 한 뜻이 과연 무엇일까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새겨봐야 하는데도 화를 내고 차라리 자기를 죽이라고 덤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요나더러 니느웨를 지켜보는 것은 하루 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싫고 화가 나도 니느웨는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났으니까 결코 심판하지 않을 것이므로 장막을 걷으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니느웨에 대한 모든 미련과 분노와 증오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엡 4:26,27)고 경고했습니다. 분노에 휩싸이면 이성이 합리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사리분별과 판단이 자기 기분에 따라 왜곡되어 죄를 짓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바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은 해가 지면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요나는 하루가 지나자마자 하나님께 화를 내었습니다. 그 전에 사십일이나 분노와 증오에 휩싸여 있었으니 시쳇말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져 하나님에게마저 불경한 짓을 대놓고 행한 것입니다.

요나는 오직 하나님이 어서 빨리 몽땅 불태워서 제 2 의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어달라고 하루 종일 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소돔의 심판 때에 같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에 대한 심판을 확정해놓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려고 세 천사를 보냈습니다.(창 18:17-19)

그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곳에도 의인이 오십 명은 있을 텐데 심판해버리면 부당하지 않느냐고 따졌고 천사는 그렇다면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곰곰이 소돔의 상황을 생각해보니 의인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십 명에서, 사십 오명, 삼심 명으로 낮추다가 결국 열 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선 어떻게든 심판을 취소시켜보려고 끈질기게 노력한 것이었습니다.

고대에선 열 명이면 한 가구 숫자 밖에 안 됩니다. 아브라함으로선 최악의 경우에 조카 롯 가족이라도 구출시켜보려는 눈물겨운 시도였습니다. 당시 롯 부부와 두 딸뿐이었지만 각기 몸종들이 있었으니 롯의 식솔은 열 명은 충분히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열 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국 심판 했으니 소돔에는 의인이 열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롯 가족은 물론 롯도 전혀 의인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세 천사에게 소돔의 남자들이 남색을 행하려들자 롯은 시집가지 않은 자기 두 딸을 대신 내어주려 했습니다. 롯도 소돔의 죄악에 많이 물이든 것입니다. 결국 소돔은 정말로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어서 심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 천사를 보내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미리 알려준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평소에 소돔에서 악에 물들어가는 조카 롯을 돌보지 않았던 잘못을 깨닫게 해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방 앞에 복의 근원이 되라는 소명을 주었는데도 아무리 소돔이라도 그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전혀 전하지 않았고, 최소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았던 잘못도 가르쳐주려는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믿음으로 잘 가르쳐서 정말로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헌신된 종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세 천사와 밀고 당기기를 했던 순서와는 거꾸로 롯을 통해서 소돔 성에도 의인이 열 명에서 삼십 명, 삼십오 명, 사십 명, 오십 명으로 늘어났을 것입니다. 최소한 자기 가족만이라도 여호와의 자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소돔은 그 의인 열 명을 통해서 심판을 면했을 것이며 나아가 오십 명으로 인해 사악한 사탄의 도성 소돔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마저 소돔에 미련을 떨치지 못했으니 소돔이 멸망에서 구출 받지 못한 일차 원인은 롯이었고 더 궁극적인 원인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니느웨의 심판을 요나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시기가 무더운 여름이 틀림없습니다. 요나가 성읍을 걸어서 사십 일간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 친절하게 물과 음식을 나눠준 니느웨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스라엘에 호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며 무엇보다 사십 일간 그들 모두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증오심에 불탄 요나는 그 모든 것을 시커먼 색안경을 끼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게만 사십일의 회개 기간을 준 것이 아닙니다. 요나더러도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라고, 최소한 소돔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니느웨를 용서해주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의인들까지 몽땅 심판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따지고 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분노에 스스로 넘어져 사탄에게 틈을 내어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종이 되어 성령의 역사를 훼방하고 있는 꼴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할 이유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세상에선 원수를 갚는 것은 의로운 일로 칭송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라와 민족의 원수를 갚는 자는 최고의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선 나라의 원수를 갚는 일이 사실은 최고의 죄악이 됩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만이 주관하는 생명을 인간이 없애려 했거나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데 인간이 앞장서서 그 일을 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는데 일등공신인 이등박문은 한국의 원수이며 그를 할빈에서 암살한 안중근의사는 한국의 국민적 영웅입니다. 반대로 따지면 일본 국민에겐 명치유신을 일으켜서 일본을 세계의 강국으로 도약시킨 이등박문은 영웅이며 그를 죽인 안중근은 원수가 됩니다. 그럼 어느 쪽의 판단이 옳은 것입니까? 둘 다 옳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각각 그 나라에서 그 나라 국민에게만 옳습니다. 절대적 선이신 하나님이 빠진 인간사회의 윤리 기준은 이처럼 부분적이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침략한 악을 먼저 범해 원인 제공을 한 것이며 안중근 의사는 약소국으로서 최선의 저항을 한 것이니 일률적으로 비교해선 안 된다고 반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과거 역사에서 가장 되돌아가고 싶은 때가 언제인지 물어보면 거의 다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때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드넓은 만주 벌판 전부 우리 영토였기 때문인데 고구려도 일본처럼 그 지역을 침략하여 차지한 것 아닙니까? 광개토대왕은 만주 사람들에겐 철천지원수가 됩니다. 이스라엘도 따지고 보면 가나안 땅을 침공해서 차지했고 미국도 인디언들과 흑인들에게 너무나 엄청난 잘못을 범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일본과 중국 사람보다 더 선한 것도 그들이 한국 사람보다 더 악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를 최고로 높이려드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이 선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악이 되었을 뿐입니다. 자기만이 유일한 선입니다. 그래서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젠 윤리가 상대적이다 못해 완전히 왜곡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명하면서 만약 그러면 정녕 죽으리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먹지 않으면 그분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선의 기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분을 배제하고 따먹으면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 결정 집행하는 자가 되어서 상대적이고 왜곡된 선만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자 아담과 이브는 서로 평생을 사랑해도 모자랄 부부사이인데도 서로 자기가 옳다고 다퉜습니다. 그 아들 가인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에게 아무 잘못한 일 없는 친 동생을 죽였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한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살인자나 강도 같은 흉악범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무조건 자기가 최고이자 선이라고 고집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악이 파생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원수라곤 하나도 없이 모든 인간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도왔던 적이 딱 한번 있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고 귀찮으니 그분을 없애버리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 같이 본성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내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절대 모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 죄가 가장 크게 확장된 것이 인간끼리 원수가 되어서 서로 증오 복수하는 것입니다. 그 증오가 다른 나라와 민족으로 향하면 전쟁입니다. 그러면 타국을 침략한 광개토대왕, 이등박문, 히틀러 등이 자기들 나라에선 최고의 영웅이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분의 뜻이 비록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반드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시원케 해줄 때는 아주 기뻐하다가 박 넝쿨이 시들자 금방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할 때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감사하지만 자기에게 불리하고 귀찮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원망했습니다. 분노에 휩싸이자 믿음도 이성도 아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가인처럼 자기 개인에겐 잘못을 범하지 않은 니느웨 백성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고, 하나님도 틀렸으니 필요 없다고 바벨탑을 쌓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는데 그분의 종은 원수를 갚는데 자기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박 넝쿨이 순식간에 무성했다가 다시 벌레가 파먹어 순식간에 시들어죽은 것 두 번 다 인간의 눈에는 우연의 일치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기적이란 자연계가 차질 없이 잘 운행되도록 당신께서 심어 놓은 규칙과 체계를 당신께서 스스로 깨트린 것입니다. 요나서의 열 개 가량 되는 우연의 일치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에게 생명을 연장해주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만큼 당신께서 요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이자 당신의 종에게 당신의 당신다우심을 보여주신 계시였습니다.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이 죽어 마땅한 요나를 계속 살려주어야만 지금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고 재앙을 거두는 일에도 합당한 명분이 섭니다. 공의로만 따져도 당신에겐 전혀 하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박 넝쿨은 니느웨와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거기다 요나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선을 제공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선을 받았고 그 선이 없어졌으면 원상복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차라리 죽여 달라고 하나님께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가한 악한 세력에게 정의를 세우려고 항거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을 먼저 받았음에도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그것도 내가 죽어야할 만큼 나빴다고 떼를 쓰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한갓 식물을 구실 삼아서 말입니다.

본문의 박 넝쿨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두 가지 점에서 예표합니다. 첫째 도무지 자격도 없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긍휼을 보이시고 나아가 선까지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을 받을 자격은 우리 모두에게 없었습니다. 그 은혜는 생전 처음 체험해보는 세상에 없는 하늘나라의 선이었습니다.

둘째로 요나는 박 넝쿨로 시원해지자 아주 기뻐하다가 시들어버리자 화를 내며 하나님께 죽어도 좋다고 덤벼들었습니다. 요나의 후손들도 예수님이 처음에 많은 이적을 베풀자 열광하다가 로마를 무찔러주지 않는다고 싫어하다 못해 저주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무고한 피를 자기들에게 돌리라고 즉, 자기들은 죽어도 좋다고 대들며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바도 결국 모든 인간에게 예수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도무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와 똑같은 신자들

지금 요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전부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압니다. 아주 드물게 하나님께 감사하긴 해도 까마득 잊고 있다가 한참 후에 그와 비슷한 일이 또 생겨야 겨우 그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만 고난이 닥치면 금방 하나님께 의심 원망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대부분이 사실은 자기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계획을 불완전하게 세웠거나 요나처럼 과도한 욕심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탓인데도 말입니다.

신자가 되어서도 선악의 판단 기준이 자기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하나뿐입니다. 거기다 자기감정이 좋은지 나쁜지가 더 우선적 잣대가 됩니다. 아니 제대로 분별 판단하지도 않고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얕은 생각이나 욱하고 치미는 기분에 따라서 행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자기 기분에 들지 않으면 싫고 귀찮아집니다. 단적인 예로 하나님의 계명에 의롭지 않은 것 하나도 없음에도 그 일이 신이 나서 기쁘게 충성하려는 신자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실현하는 일은 뒷전이고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으로 대충 때우고 그저 자신의 안락과 형통만 뜨겁게 기도해 얻어내려 합니다.

아주 완악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범하는 불신자를 볼 때에 어떤 생각이듭니까? 당장 감옥에 처넣고 큰 벌을 주어서 뜯어 고치거나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고 여겨집니까? 그것은 세상 윤리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조차 예사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내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의 지푸라기만 집어내는 큰 죄입니다. 불신자들을, 심지어 원수를 볼 때 하나님을 몰라서 아직도 저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니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야만 참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면 어느 누구도 선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선을 공급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마저 수시로 예수님을 멀리하거나 잊어버려 죄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는 것은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서로 돕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인간에게 가능성이 없으니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구원을 주는 방향으로만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인간 사회를 향한 뜻이 재앙이 아니라 구원이라면 주의 종도 그래야만 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심판하려는 징조가 보이면 도시락 싸들고 따라다니며 말려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언뜻 그렇게 보이는데 신자들은 요나처럼 행해선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더러 당신이 구원과 심판에 관여하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은혜, 긍휼. 구원과 그 반대로 징계, 형벌, 재앙, 심판을 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인간끼리는 서로 사랑할 의무와 책임만 있습니다. 주의 종은 아니 십자가 복음의 은혜 안 거하는 모든 신자는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평생을 두고 올인(all in)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서로 진실로 사랑하기에도 턱없이 시간이 모자랍니다.

작금 세상이 죄악으로 너무 타락해져 가니까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입에 달고 다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온갖 고난에 처하자 그런 자들이 더 늘어났는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곧바로 다시 오시면 불신자들 모두를 심판해야 하는데 신자가 본문의 요나처럼 그들을 어서 빨리 죽여 달라고 간구하는 셈입니다.

신자가 복의 근원으로 세워진 까닭은 예수 믿는 복을 주변에 나누는 일에 일생을 바치라는 뜻입니다. 우리부터 불신자 아니 소돔과 니느웨 못지않은 천하 죄인의 괴수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재림을 재촉하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신자의 사명은 땅 끝까지 끝 날까지 복음을 전함으로써 최대한 재림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원수란 항상 나보다 힘이 더 세고 형통한 자입니다. 나보다 약한 자가 원수가 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열심히 노력하여 원수 갚을 실력이 되어서 찾아갔는데 막상 그 원수가 이미 완전히 망해서 아무 힘도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를 심판했거나 스스로의 죄로

망한 것입니다. 그럼 그 원수가 오히려 불쌍해지거나 원수 갚는 일이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는 정의를 세운다고 외치지만 속으로는 그들은 형통하는 대신에 나는 고생하고 궁핍했던 것이 너무 싫고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나도 저 원수들처럼 형통하여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광개토대왕처럼 반드시 나도 남에게 원수가 되어야만 한다는 진리를 전혀 모릅니다.

한 두어 달 전에 이곳의 일본 NHK 국제방송에 흥미 있는 스토리를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이 해방되자 일본인들은 남아 있다간 큰 곤욕을 치를지 모르므로 황급히 일본으로 철수했습니다. 한 일본 소년이 그 난리 통에 부모와 떨어져 혼자 한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연락할 길도 일본으로 돌아갈 길도 사라졌습니다. 자기 아이도 이미 셋이나 있는 한국인 젊은 과부가 그를 자기 친자식처럼 키워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박 넝쿨을 통해서 요나에게 깨우쳐주고 싶은 가르침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벨탑 사건 때처럼 모든 나라가 역사상 두 번째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끼리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설령 그런다쳐도 또 다른 더 큰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신자들부터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소돔을 위해, 최소한 내 개인의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행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의 신앙을 솔직하게 점검해보길 원합니다. 불신 세상에 주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거의 모두의 대답이 '아니요'일 것입니다. 원수까지는 몰라도 악행을 일삼는 불신자들을 정말로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대답은 '아니요'일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 공로이고 나쁜 일은 하나님이 뭔가 잘못 내지 실수한 것 같은 생각이듭니까? 이번에는 틀림없이 '예'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긍휼 외에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신자의 어쩔 수 없는 숙명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 하였고 재배도 아니 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 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욘 4:10,11)

하나님이 요나를 꾸중하신 뜻

요나가 한낮의 무더위를 이기도록 하나님은 박 넝쿨로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주었다가 하루 만에 시들게 한 후에 뜨거운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마디로 장막을 걷으라는 뜻인데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모든 생명의 살고 죽음은 당신의 절대적 주관사항이므로 인간이 시비를 걸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진정으로 회개하고 악에서 떠난 니느웨에 대한 재앙은 완전히 취소했으므로 더 이상 지켜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증오심에 불타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옳다고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당신의 뜻을 간단하게 정리해 그를 꾸중하는 것으로 요나서는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박 넝쿨은 요나가 심지도 재배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나던지 죽던지 요나의 계획이나 뜻과 전혀 무관한 일이므로 하루라도 시원했으면 감사하고 치울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들어져 그늘이 없어진 것이 분명 아쉽긴하겠지만 죽기까지 화를 낼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느웨 성읍의 수많은 백성과 가축들은 하나님 당신께서 심고 재배했다는 뜻입니다. 농부가 자기가 심은 작물은 스스로 말라죽거나 다른 작물에 큰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뽑아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박 넝쿨을 아끼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심은 니느웨를 아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니느웨 백성들은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정미하지 않습니까? 니느웨 백성은 아무 이성이 없이 생존만 하는 박 넝쿨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요나 너는 좌우를 분변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나를 알고 모세의 거룩한 율법을 배워서 실천할 뿐 아니라 다른 이에게 가르치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네가 박 넝쿨을 아꼈던 그 마음을 니느웨 백성에게 조금이라도 적용했더라면 두 번이나 화를 내며 죽겠다고 덤비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루아침에 났다가 시들었지만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식물과 아무리 악독해도 인간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은 당신의 뜻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했는데 너는 내가 어떤 생각인지 전혀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박 넝쿨로 시청각 교육까지 시켰는데도 네 고집만 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 넝쿨은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어보지도 못하고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를 시원케 하고 그로 당신의 뜻을 깨우쳐주려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속으로 잔뜩 불만과 원망을 품고서 억지로 수행했고 다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이 틀렸다고 대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는 회개한 니느웨 백성은 둘째 치고 이 박 넝쿨보다도 좌우를 분변하지 못한다고 꾸짖고 있는 셈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요나의 니느웨에 대한 증오심이 좌우를 분변하지 못할 만큼 뼈에 사무쳤기에 일방적으로 정죄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만약 그와 같은 입장이었다면 요나보다 더했을 것입니다.

미아가 된 요나의 억울한 입장

요나를 위해 변명할 사항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로선 이 일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니느웨는 심판받아 마땅한 원수입니다. 그런데 요나로 인해 예정되었던 재앙이 취소되었다면 이스라엘에선 더 이상 선지자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과 요나 둘 사이만 아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자신의 사정을 선원들에게 다 실토했고 니느웨에 요나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잔인하고 사악한 니느웨가 자기들 식민지 나라의 신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당시의 모든 민족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뉴스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 배후에 요나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니느웨가 멸망당할 절호의 찬스인데 요나가 들어서 무산시켜버렸습니다. 격랑이 이는 바다에 뛰어들 정도의 용기라면 고래가 살려주었어도 자결해버리면 니느웨의 회개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에게 두 번이나 죽겠다고 대든 것도 내가 죽도록 가만 버려두지 왜 살려냈느냐는 항변일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진토 같으며 그 정신은 더더욱 미약합니다. 요나는 막상 사방이 컴컴하고 비릿한 냄새만 진동하는 고래 배속에 사흘간 삼켜져서 음부의 문턱까지 갔더니 죽음이 너무 두려워졌습니다. 처음 다시스로 도망갈 때에 품었던 이스라엘을 위해 내 한 몸 바쳐야지 하는 용기는 싹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거기다 여호와의 엄청난 권능을 실제로 겪어보니까 자살 시도를 해도 다시 막을 것이며, 설령 자기가 죽어도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다시 맡길 것이라는 점을 잘 알게 된 것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하여 심판이 무산되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으나 울며 겨자 먹기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이 취소한 재앙을 번복할 리 없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조국이 자기를 완전히 버릴 것이며 돌아가자마자 돌에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이스라엘에선 일제 강점기 때의 이완용 이상으로 평생토록 민족의 배반자로 몰리고 자손 대대로 손가락질을 당할 것입니다.

그로선 조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니느웨에 들어가서 그들과 살 수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올데갈데없는 미아가 되었습니다. 바꿔 말해 죽지 못해 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성 밖에 장막이나 짓고 은둔 생활하는 것이 낫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박 넝쿨 때문에 화를 낸 것은 어쩌면 핑계였을 뿐입니다. 내 신세가 이렇게 된 원인을 하나님 당신이 제공했고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주관했으니 뭔가 책임져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투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요나의 그 억지 같은 항변이 단순히 헛소리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회개는 역사상 이 한 번으로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하나님도 결국은 니느웨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럼 요나의 말이 옳았거나 억울하게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부려먹은 것 아닙니까?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2 세는 BC780 년경에 즉위했습니다. 그가 죽고 BC 752 년경에 앗수르 왕 불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는데 당시 므나헴 왕은 앗수르에 은 일천 달란트를 바쳐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왕하 15:20) 따라서 최고로 길게 잡아도 28 년 즉,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 앗수르는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요나가 그 사건 때까지 생존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장막을 짓고 니느웨를 지켜보려는 데에 또 다른 뜻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기에 비록 이번에는 니느웨가 진심으로 회개해 심판이 취소되었지만 곧바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리라 기대한 것입니다. 어차피 조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으니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테니 끝까지 장막에서 지켜보겠다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그런 의도까지도 아시고 동풍을 불어서 장막을 소용없게 만들면서 당신의 뜻을 명백히 밝혀준 것입니다.

혹시라도 요나 때에 재앙을 겪지 않은 니느웨 백성 십이만 여명이 구원받았다고 여겨선 안 됩니다. 영원한 운명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일은 오직 개인적으로 행해집니다. 한 나라 전체가 구원 받거나 심판 받는 법은 없습니다. 요나서도 그래서 니느웨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전체 4 장 중에서 3 장 한 장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구원여부에는 신경 쓰지 말고 요나서가 더 강조하려는 다른 주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나서의 진짜 주제

나머지 세 장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 요나의 의견이 서로 달라 사사건건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제발 알아달라고 했고 요나는 그 마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따졌습니다. 결론도 니느웨의 좌우를 분변하지 않는 백성을 아끼는 당신의 마음을 요나더러 이해하지 못한다고 야단치며 끝납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평생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종종 우리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역사한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처럼 내 신세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살펴본 대로 요나 나름의 이해해줄

만한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힌 가해자이고 이스라엘은 계속 당하기만 한 피해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니느웨를 심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잊고 있거나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절대로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대해서도 예정했던 재앙을 취소한 것은 이번 한 번뿐이며 결국 심판해서 역사의 기록으로만 남게 만들었습니다. 심판의 방식과 시기만 우리의 생각과 다를 뿐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죄악이자 유대인에게 최고의 원수였던 나치제국도 결국 멸망했고 독일 후손들에겐 너무 부끄러워서 지우고 싶은 흑역사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신자들이 자기 생애 안에 악인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악한 세력들이 맘껏 형통하도록 내버려둔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반드시 벌주어서 공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거룩한 분노라면 사줄만 합니다. 그러나 요나같이 원수들이 철저히 패망하는 모습을 보아야 속이 시원하겠다는 비뚤어진 복수심이라면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만사를 이끌어가는 첫째 원칙은 당신의 관심과 사랑을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일차적으로 또 중점적으로 베푼다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주제에 비추어서 쉬운 말로 바꾸자면 원수에 대해선 신경을 완전히 끊으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요나가 개인적으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억울하게 여겨지겠지만 하나님으로선 그에게 당신의 거룩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세상 앞에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증거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당신을 싫어하고 대적하므로 그분의 일에 충성하는 종에게는 핍박이 반드시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세상은 끝까지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려 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세상을 당신의 품 안으로 되돌리려 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실체입니다.

그분의 일이 편안하고 멋진 경우는 우리끼리 교회에서 종교적 의식과 관습을 행할 때뿐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준비 연습 훈련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을 더 완악하게 대적할 것이므로 진정으로 헌신된 당신의 종에게는 희생과 수고와 박해도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의 좌우도 분변 못했던 십이만여 백성들이 일시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회개한 것은 역사상 최고의 부흥사건이었습니다. 보잘 것 없이 연약한 유대인 선지자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외치자, 그것도 억지로 전하는 메시지임에도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켜주었습니다. 그 결실을 맺기까지 하나님은 요나에게 열 번 가량이나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기적도 동원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뜻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오직 인간을 창조하셨던 목적 그대로입니다. 당신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기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세상에 실현시키는 그분의 종에게 베푸는 당신의 권능은 요나서에 보다시피 전혀 예상도 못할 만큼 엄청나고 신묘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뜻이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형통 내지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완악한 본성상 현실적으로 번영할 때는 솔로몬 왕의 경우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벌을 더 쌓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오직 당신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진행시켰습니다. 당신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 언약에 따라 오직 하나입니다. 당신의 율법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모든 열방들 앞에서 여호와를 알게 만드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에게 요구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전혀 얼토당토 않는 아주 이상한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한 번도 이방 족속에게 여호와를 제대로 증거한 적이 없으니 이번 한번만이라도 니느웨에 직접 가서 제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애굽에서 불러낼 때 시내 산에서 피의

제사를 지내며 죽기까지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출 24:1-8) 그럼 이방인의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하지 말고, 아니 그들이 완악할수록 더 그래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에게 네부터 맹세를 어겼으니 억울해할 것 하나도 없고 오히려 너부터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핍박 받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마저 그 본성은 거룩한 삶을 싫어하거나 귀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나는 원수의 나라에서 혼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데도 아무도 박해는커녕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가정이긴 하지만 따져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니느웨에 일어난 역병과 요나의 사역 시기가 겹쳤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 또 다른 변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가 급해도 코로나 확진자들을 만나러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반면에 니느웨 백성들로선 죽음을 눈앞에 두었기에 회개할 마음이 쉽게 생겼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역병마저 영적부흥의 기회로 삼았고 또 그 일에 수고하는 당신의 종 요나는 끝까지 안전하게 보호해준 것입니다.

반면에 당사자인 요나는, 우리라도 틀림없이 그랬겠지만, 사십일 내내 이 역병으로 니느웨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으라고 그것이 안 되면 비록 죽음이 두렵긴 해도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고 빌고 또 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두 번이나 죽여 달라고 덤빈 것을 보면 무리한 추측은 아닐 것입니다. 요나의 항변이 겉으로는 악인을 심판해야 한다고 의로워 보이지만 정작 그 속내를 시쳇말로 바꾸면 네 죽고 나 죽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도저히 맞닿을 수 없는 "동(東)과 서(西)만큼 멀리 떨어져"(시 103:8)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선인데 반해 여호와의 종인데도 그 생각은 최악으로 원수끼리 서로 치고받아 서로 망하자는 것입니다.

욥은 성경 인물 중에 최고로 큰 고난을 아무 이유 없이 당했음에도 입술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의심과 불만을 지울 수 없어서 하나님에게 따졌지만 결국에는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욥 42:2,3)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동과 서로 떨어질 만큼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위치

지금 예수를 믿어 신자가 되었다는 의미를 정말로 심각하고도 진지하게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준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 하나님 앞에 요나와 같은 위치와 신분으로 서는 것이며 그래서 11 절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꾸중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니느웨 같이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호와처럼 아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에 찌들어 세속의 음란한 풍속을 따르는 자들까지, 예컨대 게이나 공산주의자들도 불쌍히 여기고 십자가 복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 구속사역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가룟 유다의 밀고로 대제사장의 관원들과 로마 군인들이 주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 때에 베드로가 관원 중의 하나인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마저도 참아야 한다면서 그 귀를 만지셔서 원상대로 회복시켜주었습니다.(요 18:10, 눅 22:51)

그 종은 전혀 믿음이 없었고 치료를 해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체포하러 검을 들고 온 대적이라 아예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치료해주었습니다. 단지 주님은 귀가 떨어져 피가 흐르는 그가 불쌍해서 고쳐준 것입니다. 그의 신분, 직책, 인종, 교육, 사상, 종교 등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써 힘든 일을 겪고 있고 그대로 두면 앞으로 계속 힘들어질 것만 안타까이 여겼습니다. 여호와가 박 넝쿨, 니느웨의 생축까지 당신께서 심고 재배하는 당신의 피조물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고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가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은 믿었으나 자신이 천하의 죄인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에게 천하 죄인 중의 괴수인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은혜를 믿으라고 아무리 권해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화만 냈을 것입니다.

신자가 불신자들에게 심지어 주변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처럼 아끼며 사랑으로 섬겨도 돌아오는 것은 칭찬 보상 감사보다는 정반대일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에 너희도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요 15:19,16:33) 신자가 혼자서만 교회나 집에서 거룩하게 종교생활에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처지와 여건과 사건으로 인도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어둠을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이 싫기 때문에 신자도 싫어해서 그런 것입니다.

요나는 어쩔 수 없었지만 원수의 구원을 위해 일했는데도 거꾸로 나라와 민족과 가문과 가족에게 원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족끼리도 당신으로 인해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가 되면 맞게 될 평생의 숙명입니다.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섰고 그 협착한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넌 것입니다. 상징적이긴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한 후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고 바다로 막음으로서 애굽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듯이 말입니다.

결론이 없는 요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기도가 언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모든 이로부터 온갖 조롱을 당하며 죽어갈 때였습니다. 그 내용은 당신의 원수들이 자기들 하는 짓을 모르니 즉, 오늘 본문대로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불쌍히 아끼는 자들이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기도니까 신자들이 더더욱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비록 우리의 감정상 쉽게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끼시기에 원수의 구원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고 최소한 기도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았으나 오직 예수님의 긍휼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새 생명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너무 귀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풍성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주변에 나눠주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원수를 증오하는 마음은 점점 주는 대신에 연민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평생 행해야 할 씨름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할 때입니다. 이 사태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까닭 없이 서로 증오하고 정죄하며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지 않는 저쪽 편 모두는 반드시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난리칩니다. 신자들마저 왜 저런 천하의 악독한 자들을 그냥 두고 보시느냐고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기 바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오늘 본문 11 절입니다. 저들이 좌우를 분변 못하니까 내가 아끼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간절히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너희가 왜 아직도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들을 너희 곁에 붙여두는 이유는 너희더러 좌우가 어디인지 가르쳐 주라고 맡긴 양떼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코비나 균에 대항할 백신이 개발되어서 크리스마스 전까지 이천만 명에게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환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둘째로 기저질환이 있어 요양시설에 수용된 노인층에게 셋째는 경찰관 소방관 공무원 교사 같은 공공의 봉사자들 순서로 접종할 것이라고 합니다. 직업상 사람을 많이 접촉해야 하므로 코로나 병균에 감염되기 쉬운 자들입니다.

신자에게 원수란 사탄에게 가장 가까운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백신을 가장 먼저 맞지 않으면 가장 먼저 멸망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도 우리가 복음의 백신을 가장 먼저 놓아줄 자가 바로 우리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 일에 게으르면 그만큼 세상에는 코로나 이전처럼 원수들만 자꾸 생기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일만 자꾸 늘어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에 결론이 없이 유야무야로 끝나는 책이 두 권인데 사도행전과 요나서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자들이 바울의 선교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나머지 페이지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잘못을 범하지 말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원수의 땅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반드시 임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못 헤아렸기에 매번 말다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불신자나 교회 안의 쭉정이 신자들을 아끼는 것 하나뿐입니다. 신자가 평생 영혼 속에 간직해야 할 마음입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신자의 마음도 함께 가는 것이고 그분이 생각하는 그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고 행할지는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십니다. 나아가 요나처럼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기적을 그때그때 예비하여서 끝까지 보호 주관해주십니다.

하나님께 받을 신자의 진정한 복

"여호와의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 하였고 재배도 아니 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 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욘 1:1,2 & 4:10,11)

열린 결론에 이어질 두 마디

요나는 아주 특이한 선지자였습니다.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대적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요나만 반대로 원수 니느웨의 구원을, 그것도 그 나라로 가서 선포하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요나로선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는 했지만 끝까지 진심으로 승복할 수 없었던 까닭입니다. 또 그래서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을 아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요나서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열린 결론으로 끝나버립니다. 후대의 신자더러 하나님이 꾸중하신 의미를 잘 헤아려서 그 다음 구절을 연결해보라는 뜻입니다. 그 결론이 의미하는 바부터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 같은 악한 백성을 진정으로 회개시켜서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당신이 미리 택해 은혜를 베푼 종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신자로 부름 받은 목적도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로 좌우를 분변하게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 일을 게을리 하면 하나님이 신자에게 마련해준 은혜를 보류 내지 회수하고 이 땅은 그만큼 박 넝쿨처럼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 말해 요나는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터트리거나 억울하게 여기기 전에 그분의 종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부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의 악행을 묵인한 목적도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징계하여서 당신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시키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자녀들을 산 채로 불에 살라 우상 신에게 바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매로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판국에 요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대우를 받아야 하고 니느웨는 절대로 용서해주면 안 되며 그럼 차라리 자기가 죽겠다고 두 번이나 대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을 속이 시원하도록 철저히 멸망시켜야만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절대로 회개할 리 없다고 속으로 비하 멸시했던 니느웨를 진심으로 회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성을 내는 것이 전혀 합당치 않다고 두 번 다 야단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니 내 모든 관심과 사랑을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었다. 너희의 정작 더 크고 좋은 복은 바로 나의 일에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십이만 명이나 악에서 떠나 진정으로 회개하는 역사상 최대의 부흥이 그 비천하고 연약한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원수였더라도 그 경이로운 모습을 사십 일간 지켜보게 되면 그들을 향한 증오심은 점점 줄어드는 대신에 감동이, 최소한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서서히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이 열린 결론에 이어질 첫마디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심고 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따로 택한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물며 얼마나 더 아끼겠느냐? 곰곰이 잘 생각해보라. 니느웨도 악에서 떠났기에 용서해주었다. 너희도 우상숭배에서 떠난다면 구태여 니느웨를 들어서 너희를 징계하는 그런 수고는 당장에 그칠 것이다. 이 간단한 진리를 요나 너는 왜 사십 일이 지나도록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박 넝쿨을 시들게 한 후에 열풍까지 불어제친 뜻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당장 장막을 걷어치우고 조국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그 악독한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여호와가 재앙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상을 파괴하고 여호와께 순전한 제사를 드리며 율법대로 거룩하게 살면 하물며 더 큰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럼 니느웨에서처럼 하루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에서 떠나는 부흥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이 부흥은 한 번으로 끝나고 얼마 안가서 다시 이전의 사악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부흥은 사실상 니느웨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로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려는 반면교사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나서의 열린 결론에 이어질 마지막 마디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처음 계시(욘 1:2)와 같되 그 대상만 달라질 것입니다. 자기 동족을 향해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회개하라."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니느웨 같은 이방족속을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베풀었고 그들로 이방에게 전하라고 했으며 신약시대는 로마서 9-11 장이 말하듯이 이방이 먼저이고 이스라엘이 뒤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의 순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신자들부터 순전한 믿음으로 세상 앞에 빛과 소금으로 서지 않으면 이 땅은 흑암의 세력에 넘어가 썩는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요나의 차이

성경에 요나의 경우와 여러모로 대비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삼차 전도여행을 마감하면서 에베소를 비롯해 두로와 가이사랴 등에 들려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 후에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건입니다.(행 20,21 장)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성령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바울 본인이 아니라 각 교회의 형제들이 똑같이 그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다시는 바울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고 울면서 함께 기도했고 바울더러 올라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행 21:13) 앞으로 어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릴지라도 죽음을 각오하겠다고 합니다.

요나와 바울 둘 다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하고 그러면 고난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또 두 사람 다 음부의 문턱에까지 갔다 온 경험들이 있어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듣고도 자기 생각과 달라 전혀 수긍하지

않고 죽어도 좋다고 고집 부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서원한 일인데도 죽어도 좋으니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사역의 자세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믿음이 약해 불순종했고 바울은 믿음이 강해 순종했다고 쉽게 판단해선 안 됩니다. 믿음을 그렇게 만능통치약으로 무슨 일에나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고 게으름 부리면서도 믿음이 약해서라고 변명하면 끝입니다. 지금껏 우리들이 계속 써먹은 허울 좋은 핑계입니다. 평생 그러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을 직접 대면해서도 그 핑계를 대다간 주님의 게으로고 악한 종이라는 꾸중을 들을 것입니다. 아무리 부끄러워도 천국 보좌 앞에는 숨을 만한 쥐구멍이 없습니다.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형제들이 만류하는데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울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고집을 세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이사랴의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선 이 띠의 임자인 바울을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고 예언했습니다.(행 21:11)

알다시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극적으로 회심하고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그 때 주님께 받은 평생의 소명이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행 9:15) 세 번의 선교 여행으로 각지에 세운 교회에는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 뿐 아니라 이방인 교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도 이방인 선교와 관련된 목적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첫째 당시 기근 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헌금을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받아서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방 지역의 교회들에 맺힌 선교의 열매들에 관해 교단본부격인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할 작정이었습니다. 모교회와 곳곳의 이방인 교회들이 땅 끝까지 선교하는 일에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라는 아가보의 예언을 듣자 앞으로 닥칠 핍박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가운데도 이방인 전도의 소명을 실현할 기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실제로 결박당할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 계기가 되어서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택에 연금되었지만 이년 동안이나 로마의 이방인 지도층들에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이 성령으로 예고해준 것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을 각오하라는 사랑어린 경고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니느웨를 아끼는 여호와의 마음을 바울도 품고 있었기에 담대히 핍박에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족이 자기를 결박해서 이방인에게 넘긴다는 경고를 들었을 때에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의 공사역을 마감하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던 모습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달리는 것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이므로 자원해서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바울도 자신의 사역을 주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마감할 수 있다면 그만한 영광이 없다고 여기고 가슴이 떨렸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눈물어린 만류에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한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성경 기록에는 없지만 요나도 처음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자 가까운 지인들과 의논했을 것입니다. 동료들은 틀림없이 이구동성으로 원수 니느웨는 심판 받아 마땅하니 그 명령에 따르지 말라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랍시고 자기들끼리 니느웨는 절대 용서 받지 못할 천하의 죄인으로 정죄하고 심판을 확정해버린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의 뜻을 이해 못했을 리는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끝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니느웨를 아끼는 마음에 자기 마음이 도무지 따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바울과 달리 하나님의 불신자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자신의 소명으로 실현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서가 말하는 진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가슴에 가득 채운 자만이 소명자로서 충성된 삶을 살 수 즉, 주의 자녀로서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한 소명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는 아주 잘못된 신앙으로 목회자들이 믿음에 대해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탓입니다. 모든 신자에게 예수님은 세상 끝 날까지 땅 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대로 행하게 하라는 소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 동일한 소명을 실현하는 방식만 사람마다 다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직업으로 삼아 평생 동안 헌신하는 사역자와 세속의 직업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실현하는 일반신자입니다.

그런 확고한 소명 의식을 갖고 헌신하는 목회자와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현실적 고난과 세상으로부터의 핍박까지 포함해서, 당연히 주님께서 그 소명이 달성될 수 있는 모습과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신자는 그래서 바울처럼 현재의 모든 상황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중심으로 묵상 판단하면 하나님의 징조, 뜻, 계획 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와 고난을 두고 기도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 역사해주십니다. 문제는 그 응답되는 시기와 방식이 우리 생각과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야만 한다는 고집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그분이 인도하시는 모습이 어떠한지 천천히 잘 따져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것은 요나처럼 모든 사건과 여건을 자기 욕심과 감정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이끌고 싶어 하는지 그분의 관점에서 천천히 따져보면 그전까지 보이지 않던 그분의 길과 목적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찬란한 빛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삼일간 눈이 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방불한 체험을 통해서 그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특별히 눈을 멀게 한 것은 율법의 최고 권위자였지만 막상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선 영적으로 봉사라는 사실을 깨우쳐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어리석고 지혜가 없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관계 속에 반드시 드러내주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 뜻대로 살기로 헌신하고 있다면 다른 모든 길은 다 막으시고 한 가지 길만 열어서라도 당신을 따라가게 만들어 수십니다. 요나처럼 고집스럽게 거역해도 당신의 뜻에 필요하다면 강제적으로도 당신의 일에 참여시킵니다.

말하자면 작금의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에게 계시하려는 하나님의 뜻도 그로 인해 발생한 여러 현상 가운데에 특별히 가장 두드러진 일 안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깨닫고 계시고 그간의 강해에서도 조금씩 말씀드렸지만 크게 네 가지만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네 가지 특성

누구나 알 수 있는 가장 뚜렷한 현상은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는 언택트(Untact) 시대가 된 것입니다. 최대한 외출하지 말아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마스크를 쓰고 6 피트 이상 떨어져서 잠시 만나고 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피부를 맞대고 교제하고 함께 일을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 절감했습니다.

미국에서 애완동물 사업이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불황 가운데도 크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동물과도 교통하고 싶었던 것이며 애완동물은 주인에게 순전한 사랑과 충성을 보이기 때문에 더 그럴 것입니다. 지난 추수감사절에 미국 정부의 전염병관리 총책임자가 올해만은 제발 가족들 만나러 여행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으나 한국의 추석처럼 예년 수준으로 전국적인 대이동을 감행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자 죽음의 냄새에는 둔감해지는 대신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냄새가 너무 그리워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잠복기간이 지난 지금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또 큰 걱정입니다.

언택트 시대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사랑의 컨택트(contact) 시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신자부터 교회 안에서 분쟁한 것, 이웃은 물론 성도들과 화목하지 못한 것, 그래서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크게 훼손되게 만든 것,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도 두지 않고

원수를 용서하지 못한 것, 이방에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지 못한 것 등등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언택트로 본의 아니게 교회가 소규모 모임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된 것도 이웃은 물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요나서의 가르침을 실현하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이번 사태의 궁극적인 원인은 국가 간의 무한 경쟁으로 인해 자연을 훼손시킨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최근 북극지방의 얼음이 녹으면서 그동안 냉동되어 있던 고대 바이러스가 녹아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드디어 개발되어 금주부터 접종이 시작되었기에 이 사태는 언젠가 종식될 것이지만 오염된 자연을 빨리 회복시키지 못하면 더 심한 바이러스가 또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만 행하면 된다는 폐쇄적인 종교기관으로 남아 있어선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 가장 먼저 지켜내야 할 것은 생명의 고귀한 의미와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명령도 당신을 대신하여 이 땅을 아름답게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세계관은 성경에만 명시된 기독교 특유의 소명입니다. 교회와 신자는 지구를 아름답고 활기차게 보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특별히 또 시급하게 젊은 청년들에게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르쳐서 무신론과 진화론에 따라서 돈이 최고이자 전부가 된 이 완악한 세태에 맞서도록 양육시켜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이 땅을 외면하고 천국으로 도피하려는 시도가 아니며 남이야 어떻게 되던 나 혼자 구원 받으면 된다는 이기적이고 영악한 종교 수단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진심으로 겸비하게 자기 전부를 바치는 순간 천국은 이미 보장되었습니다. 성령님이 평생토록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신령한 인생으로 반드시 바꿔주십니다. 신자가 행할 일은 이 땅을 정말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기에 아름답고 의미가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변모시키는 것입니다.

셋째는 많은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인생에 대한 무상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자들마저 자신의 삶의 안전을 염려하고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허망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드디어 코로나가 미국의 사망률 일등으로 올라섰고 이번 주는 하루 사망자가 911 사태나 진주만 기습 때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누차 강조한대로 십자가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쳐선 안 됩니다. 우선 저는 가능한 빠른 시간에 백신을 맞을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고는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뿐입니다. 그 은혜가 실감나게 전해지려면 바울처럼 옛 자아는 완전히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 새 생명으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궁핍하든 부요하든 주님의 권능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도 힘들고 때로 외부 핍박도 받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겪는 환난이나 죽음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흑암의 세력에 맞서 싸워라.

넷째로 두드러진 현상은 불신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우울증 같은 심각한 정신 질환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그런 현상이 만연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겉으로 확연히 드러나고 또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일 년 가량 언택트가 지속되니까 믿음이 좋은 신자마저 정서적 불안이 심각해지고 일부는 실제로 심각한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뇌도 피가 통하는 세포로 구성된 육신으로 분석과 실험이 가능한 생체조직입니다. 외부에서 지속적이고도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서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면 뇌 안의 호르몬 분비에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관장하는 생리적 체계에 잘못이 생기면 당연히 정신적으로도 이상 현상이 발생하여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으로 발전합니다.

지금까지는 정신질환을 무조건 사탄의 장난에 의한 영적 현상으로 여기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려 했습니다. 비유하자면 맹장염을 기도로 고치려는 시도와 다름없기에 그럴수록 시간만 낭비하여 증상을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현격한 증세 중의 하나도 환각과 환청으로 밤새 고통을 겪는 것이라고 합니다. 뇌에까지 바이러스가 침투했거나 종합적인 생리활동의 부조화로 뇌 조직에 심각한 이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신적으로 이상한 증상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엡 4:26)고 경고한 대로 사회에서 고립된 채로 한 가지 감정이나 생각에 예민하게 함몰된 사람들에게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또 그런 우울증이 생기면 필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스스로 사회와 단절합니다. 이웃끼리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면 사회에서 격리되는 정신질환자들이 자꾸만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로 누구를 만나서 진정한 교제를 나눴는지 신자라면 잘 알지 않습니까?

작금 사람들이 까닭도 대상도 확실하지 않는 미움과 증오를 쌓고서 아무 것도 아닌 일로 우리 편 너희 편으로 나눠 원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이자 참소자인 사탄이 배후에서 작동한 것입니다. 사람들로 소외감 자격지심 공허감 무력감 등을 심어주고 그것에 묶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흔드는 여우처럼 공동체마다 사탄이 개입해 사람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시키고 있습니다. 정신적 질환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궁극적이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인입니다.

사탄이 교회 안에서 설친 것은 항상 있었던 일이지만 이젠 본격적으로 정신질환에까지 마수를 뻗은 것입니다. 미국에선 정신질환이 사망률 일등이 되었기에 미국교회들은 그에 대한 교육 상담 치유를 정식 사역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그 부정적인 이미지와 소문날까 두려워 다들 쉬쉬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전문적인 사역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와 신자들에게서 순전한 십자가 복음의 생명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고 세속의 인본주의적 가르침들이 설교나 성경공부를 대체했습니다. 예컨대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신자들마저 조금만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나 음모론인 줄 알 수 있는데도 무작정 SNS 로 퍼서 나르고 있습니다. 사탄이 마음 놓고 설칠 수 있는 바탕을 교회와 신자들이 자진해서 깔아주고 있는 셈입니다. 순전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해야 합니다. 거짓의 아비요 참소자인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넷 외에도 코로나 사태로 신자 개인에게 또 각 개별교회에 주는 은혜, 각성, 가르침, 회개, 감사, 경배, 기도할 내용들은 셀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가 서있는 자리에서 십자가 복음의 소명의식으로 살펴본다면, 아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안다면 어떻게 그대로 순종 헌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던 요나서의 결론대로 하나님이 불신 세상을 아낀다는 그 마음에 동참하고 그 마음을 실제 자기 삶에서 구현해 내는 씨름입니다. 목회자이든 일반 신자이든 그 대상이 동족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다른 모임에 비해서 유독 교회모임만 통제 관리 받는다는 억울하고 불공평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장 죽어도 마땅한 요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타이르기만 하고 열린 마음으로 요나서를 끝마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활짝 벌린 두 팔 안에선 세상의 모든 죄악을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신자도 세상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교회는 절대적 진리에선 끝까지 세상과 타협해선 안 되지만 그 외의 일상적 삶에선 예수님처럼 모두를 품고서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바울처럼 손해 보며 희생할 수 있으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게 신자가 받을 진정한 복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정말로 감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앞으로 더 심한 바이러스가 나타나겠지만 이번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잘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훈련한 셈입니다. 신자들로선 이번 같은 전 지구적인 재앙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고쳐나가면 앞으로 언젠가 닥칠 대환난도 십자가 복음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록 - 코로나 이후에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다리오 왕 제 이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 1:1-4)

학개서의 배경

암울했던 2020 년이 지나고 새해가 밝았으나 터널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태껏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 혼돈의 와중에도 백신이 속속 개발 보급되고 있어서 언젠가는 언택트(un-tact) 사회가 종식되고 이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오기에 새로운 계획과 각오로 희망차게 새해를 맞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에게 네 번에 걸쳐 백성들로 성전재건을 독려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것은 코로나 재앙이 끝이 나서 정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자 바로 성전을 재건한 일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교회로 다시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새해 첫 주일 아침에 학개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그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지침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 계시가 바사의 다리오 왕 이년 즉, BC 520 년 유월 초하루에 임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의 역사적 배경부터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BC 586 년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했으나 그 바벨론도 BC539 년에 바사의 고레스에게 멸망당합니다. 고레스는 피정복민에게 유화정책을 시행했는데 BC 538 년에 칙령을 내려 유다백성을 본토로 돌아가고 성전도 재건하도록 허락했습니다.(스 1:1)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솔 하에 일차 포로귀환이 이뤄졌는데 학개도 이때에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크게 회개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은데다 우상을 숭배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면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단단히 결심했고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성전 건축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마리아의 총독들이 고레스 왕이 죽자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유다가 성전과 성읍을 중건하고 나면 반역할 것이라고 음해하여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러다 다리오 왕 2 년인 유월일일에 학개가 여호와의 첫 계시를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그 24 일 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성전재건공사를 재개했습니다.(학 1:14,15)

그러자 다시 유브라데 강 서편의 총독들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스 5:6-17) 그러나 다리오는 왕궁의 서고에서 포로귀환과 성전재건을 허락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고 경비까지 대주며 그 공사 재개를 다시 적극적으로 허락해주었습니다. 결국 고레스 사후 다리오까지 14 년 간 성전은 공사가 중지된 채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학개의 메시지로 공사를 재개하고 4 년 후 BC516 년에 완공했는데(스 6:15), 그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의 마지막 봉사

우선 에스라서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스 5:5)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개의 첫째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이 다리오의 정식허가를 받기 전인데도 공사를 재개했고 그럼에도 사마리아의 총독들은 그 공사를 훼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유다장로들을 돌보셨다고 해서 호위 천사를 보내준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그들로 훼방할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한 것이고 또 그 전에 장로들의 굳건한 믿음과 뜨거운 열정이 겉으로 확연히 드러났기에 감히 대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4 년 전에는 왜 그렇게 과감하게 공사를 계속하지 못했는지 의아해집니다. 식민지에게 자치권을 주었던 고레스 왕이 죽어서 정치적 환경이 바뀐 탓도 있지만 유대인들의 믿음이 시들해진 것입니다.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다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처음 귀환했을 때 모든 사정이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했는데도 성전 재건에 열심을 내었으나 차츰 생활이 안정되자 게을러졌던 것입니다.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스룹바벨, 여호수아, 학개 같은 지도자들도 함께 손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나태해지자 하나님의 계시도 그 기간 동안 중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사 년의 침묵을 깨고 이스라엘에게 던지신 첫마디(4 절)가 이스라엘의 그 나태한 정신 상태를 야단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도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고 외쳤는데(스 5:1,2) 학개보다 두 달 후인 다리오왕 이년 8 월이었습니다.(슥 1:1) 그럼 학개의 첫 메시지만 듣고 공사를 재개했는데 장로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 만큼 강렬했다는 뜻입니다.

학개는 또 백성들에게 성전의 이전의 영광을 상기해보라고 강조했는데(학 2:4) 그도 느부갓네살에게 파괴되기 전의 성전을 보았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럼 지금 그의 나이가 최하 70 세는 되었습니다. 그가 활동한 기간도 이년 남짓으로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결국 학개는 인생 말년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불꽃은 마지막 사그라질 때가 가장 밝게 빛난다고 합니다. 학개로선 그 나이에 남의 눈치를 보거나 외부의 핍박이 두려울 리 없으므로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을 만큼 격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가 비록 지난 14 년간 외부 압력에 굴복했지만 그 기간 내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두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때가 되었다고 보고 이 늙은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격려하는 동시에 도전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이 그의 말에 청종했고(1:12) 또 여호와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하나님의 전의 역사를 시작했다라고(1:14)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개의 메시지는 아주 직설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질문이나 관용구를 반복한 것이 특징입니다. 백성들로 성전재건이라는 한 가지 주제에만 생각을 집중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외부여건에 핑계대지 않고 진심으로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만든 것입니다.

코로나로 모든 이들이 흑암에 눌려 있는 지금 세대에 이런 선지자적인 소명에 자기 전부를 걸 수 있는 목회자가 절실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 동행하는 신실한 종들이 그분께

받은 진리의 말씀을 가감 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자신의 현실 상황은 어떻게 되든 이 타락한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실현되기를 소원하는 순전한 믿음의 목자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도 강력히 임하고 그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도 학개 때처럼 감동받아 주님의 일에 기꺼이 동참할 것입니다.

학개서의 하나의 주제

학개의 그 강력했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바로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4 절)입니다. 학개서 전체의 주제이자 결론이기도 합니다. 도덕적 종교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청중에게 진지한 회개와 엄숙한 결단을 요구하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질문만 던졌지 답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답은 너무나 명백해서 누구나 알 수 있으며 다른 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답은 "그럴 수 없다(No)"는 것입니다.

너희들만 그럴싸한 집에서 안락하게 지내지 말라고 합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 하여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며 다스릴 처소는 짓다말고 버려져있지 않느냐? 너희가 성전에 모여 제사도 기도도 드리지 않으면서 감히 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고도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판벽한 집이라고 해서 화려한 집이 아니라 원어로는 단순히 지붕을 이었고 벽을 판자로 가렸다는 뜻입니다. 성전이 파괴되어 지붕과 벽도 없는 비참한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말씀에 빗대어서 교회 건물을 신축 내지 증축하면서 무리해서라도 헌금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문자적으로 확대해석해서 판벽한 집에 거하면 안 되니까 집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서라도 건축헌금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며 죄송하지만 성경을 전혀 해석할 줄 모르는 무식한 소치입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과 오늘날의 교회건물은 여러 차원에서 판이하게 다르므로 일대일로 그것도 문자적으로 비교 적용해선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각 지역에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성경으로 따지면 회당에 해당되기에 이스라엘 전국에 하나뿐인 성전과 견줄 수 없습니다. 만약 오늘날에도 기독교 전체를 통 털어 서울에 교회가 하나뿐이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부터 힘에 부치도록 헌금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한곳에 모여 예배드리도록 하신 여호와의 뜻은 여럿입니다. 우선 매일 아침저녁으로 또 수시로 동물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율법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집전해야하므로 각 지역에서 임의로 행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성전에만 안치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중보해야 하는 일을 수행하는 대제사장도 한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에 하나가 되어서 당신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주변 이방 족속들의 온갖 죄악과 우상숭배의 악습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두 지파가 시기 분쟁 분열 없이 온전한 제사장 나라를 당신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기업으로 주셨던 그 땅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당시의 제사장 제도는 오늘날로 치면 행정 사법 입법 모든 권세를 행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는 체계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이고 성전은 대통령 궁인 셈입니다. 그럼 성전이 완성되어야만 나라가 온전히 서고 백성들의 삶도 율법에 따라 공평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구약 율법은 십자가 복음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히 9:10) 성전이 맡았던 고유의 역할은 끝이 났습니다. 본문 말씀을 핑계로 교회 건축에 최우선적으로 매달리라고 강요하거나 심지어 하나님 뜻이라고 은근히 협박하는 것은 성경을 나아가 십자가 복음을 대놓고 거역하는 처사입니다.

장소보다 내용이 중요한 예배

하나님의 이 도전을 오늘날 코로나 사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꾸중이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는데 익숙해져 교회로 모일 필요가 없다고 점차 게을러지지 않느냐?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계속 그렇게 예배를 보고 싶지? 아무 때나 접속해서 설교만 들으면 되니 시간도 절약되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골라서 들을 수 있으니 더 은혜롭게 여겨지느냐? 꼴 보기 싫은 성도들과 접촉하지 않아도 되고 주중에 이런저런 모임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 시간에 다른 취미활동을 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처럼 여겨지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섬기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야 한다는 뜻으로만 받아 들여선 크게 부족합니다. 그것은 신자라면 당연히 항상 지켜야 할 계명이므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할지 질문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요 4:21-23)

우선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하는지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아는 것을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배자가 예배하는 의미와 목적과 은혜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주님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차별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며 그가 십자가 대속죽음으로 이루신 구원을 알아야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로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장소보다 그 내용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선포되고 불신 세상에까지 번져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긍휼과 권능만이 순전하게 선포되고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여 사탄에게 미혹된 죄인의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이 사역에 헌신하고 있으면 신자들로 코로나 사태도 넉넉히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가 이번 한 번으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앞으로도 비슷한 재앙이 계속 일어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완전히 멈추고 인간의 거주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나라끼리 탐욕스런 경쟁이 멈추지 않는 한 새롭고 더 강력한 바이러스는 계속 생길 것입니다. 지금 같은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야 할지 모르고 그럼 교회 건물로 모이는 것이 근본적으로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비까지 하라고 이번에 온라인 예배 훈련을 시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학개의 꾸중을 통해 성전을 재건시켰어도 이스라엘이 처음 율법을 수여하신 뜻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 때처럼 다시 그들을 외면할 것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두지 않고 오직 그분의 계명대로 거룩하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들어와도 나가도 즉,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이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실패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성전은 이전의 모습을 회복했으나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얼마 안 가서 이방족속의 우상을 숭배하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한탄하셨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말 1:10) 하나님의 계시가 학개 때의 십사 년의 삼십 배나 되는 사백년간 침묵했고 성전문은 로마제국에 의해 완전히 닫혔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겉으로는 아주 경건하게 율법대로 제사를 드렸으나 예배의 내용은 여전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예배내용은 알고 있었으나 아는 대로 삶에 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는 문을 닫으라.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당면할 첫째 과제로 예배당으로 대면예배로 모이는 것이 전부이자 본질인지 심각하게 재고해봐야 할 것입니다. 대형교회를 탓하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커지는 데는 땀과 눈물의 헌신이 있었고 설교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많은 자원과 인원으로 다방면의 사역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화려한 교회건물이 이런 시대 상황에 꼭 필요한지 다시 점검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의 중심이 예배일 때는 신자들을 다 수용해야 하므로 큰 건물이 필요합니다. 예배가 교회 사역에서 가장 먼저이고 중요한 것은 틀림없으나 엄밀히 말해서 주일 하루는 나머지 주 6 일의 삶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배로 주님의 은혜와 권능을 재확인하고 가슴에 채워서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나눠주고 알도록 해야 합니다. 신자의 존재와 삶 자체가 산제사가 되어야 하고 그 생활 현장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자더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신자의 착한 행실을 보는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기독교가 그 짧은 기간에 불같이 번져나간 이유는 하나님 쪽에선 성령의 강력한 역사였지만 신자 쪽에선 당시의 음란한 세태와 정반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겼고 그 사랑이 주변으로 누룩처럼 번져 나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학개서의 주제인 본문 4 절의 말씀을 거꾸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코로나 사태를 겪고도 판벽 한 예배당에만 거주하는 것이 가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신자끼리 예배만 드리려면 온라인 예배라도 충분합니다. 일 년 가량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와중에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신자는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더욱 집중했기에 대면 예배 이상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개 당시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지 않고 타 인종과 결혼해 남은 자들도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창조주 여호와께 예배는 계속 드려야 했기에 서서히 회당 예배가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외부적인 제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소그룹 예배가 형성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든 사회 활동이 비대면 체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훨씬 이전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무점포 비즈니스 추세로 들어섰습니다. 이번에 재택근무마저 본격화되었고 교회도 그 흐름을 끝까지 비껴나갈 수 없습니다. 이번에 온라인 예배가 편해진 사람들은 코로나가 끝나도 꼭 교회로 모일 필요가 없다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초점을 개인적인 각성과 성화에만 두는 미숙한 교인이긴 하지만 그들을 교회 밖에 버려둘 수는 없으니 당분간 오프라인 온라인 예배가 병행해야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모든 이가 가장 아쉬워한 것은 사람들과의 진정어린 따뜻한 교제일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 미국 TV 뉴스에서 백신을 맞으려고 기다리는 한 아주머니가 어서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 자식들을 만나고 싶다고 울면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장소와 형식에 관계없이 정말로 진실하게 교제할 수 있는 소규모 모임이 절실해졌고 또 활성화되고 있기에 이 사태가 끝나면 지금 같은 규모의 교회건물의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모임을 통해서 초대교회 때처럼 실제로 예수님의 사랑이 성도 간에 나눠지고 그로 인해 새 생명으로 함께 승리하는 역사를 체험케 해주지 못하면 앞으로 존속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지금껏 예배로 모이는 가장 큰 목적이 솔직히 무엇이었습니까? 설교를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조금 더 착하게 살아야지 결심하는 정도입니다. 그보다 새벽마다 뜨겁게 기도하여서 자기 고난과 문제를 해결 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코로나 사태도 어서 빨리 끝내달라거나 그로 인한 불안감 당혹감을 없애려고만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어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 더 이상 십자가 복음에 내포된 더 깊은 은혜와 권능을 배우고 실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덕적 선행과 종교적 경건을 성부 하나님께 바칠 테니 당신의 큰 권능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 최소한 나쁜 일은 생기지 말게 해달라는 것이 신앙 목표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참 제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모습으로는 교회가 아니라 종교단체일 뿐입니다.

예배당 밖에 있는 예수님

예수님은 오늘날의 교회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강도의 굴혈로 변했다고 야단치면서 제물 장사치와 환전상을 쫓아내었습니다. 나중에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참히 파괴될 것이라고 눈물 흘리며 예언했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에게 AD 70 년에 그대로 된 이후로 이천 년이 지나도 버려져 있다 못해 이슬람의 성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예배로 모이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었고 이스라엘이 아는 것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본체이신 당신께서 오셔서 하늘의 거룩하고 신령을 빛을 비추었으나 당신의 백성들이 어둠이 더 좋아 그 빛을 싫어하며 대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거리나 가정집에서, 때로 거처도 정하지 않고 유대 온 땅을 다니면서 일상시민을 만나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질병을 고치며 상담해주었습니다. 그것도 율법, 정확히 말해선 인간장로들이 만든 유전에 따라 정죄 받아서 성전에 출입할 수 없는 자들을 주로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늘의 새 생명으로 살려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으로 치면 목사인데도 예배당 밖에서 거지, 창녀, 귀신들린 자, 불구자, 불치병자, 고아, 과부, 세리, 외국인 나그네, 우상숭배 자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날 화려한 예배당 안에 정장을 빼입은 사람끼리 모여서 거룩한 얼굴로 경건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에 과연 함께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4 절의 이 짧은 메시지 안에 당신의 분노를 최대한 절제하고 있습니다. 성전공사를 14 년 간 중지했어도 징벌을 내리지 않고 긍휼을 베풀다가 때가 차매 성령으로 간섭하여 사람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권능을 역사했습니다. 그 배후에는 죽음을 앞둔 늙은 선지자의 끈질기고도 눈물어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당연히 예배당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찬양 하고 기도하고 성경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큰 건물도 필요하고 다양한 사역을 효율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님이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일로 함께 계실지 하나만은 정말로 심각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사실은 다들 알고 있으면서도 판벽 한 교회가 제공하는 안락함과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를 믿는다는 영적인 우월감에 취해서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더 솔직히 말해 이웃과 이 세상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천국 가고 이 땅에서 형통하면 그만이라는 생각 아닙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천 년 전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로 모든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에 대해 심각하게 따져보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직접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동안 교회가 맡은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코로나가 끝나 다시 교회로 모이면 처음 얼마간 회개하다가 금방 게을러지지 않을지 심히 염려됩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로 부흥한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함께 하지 않으면 교회만 부흥한 것이지 하나님이 부흥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에서 멸시 소외 받거나 사탄에게 미혹된 자들만 찾아가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함께 가지 않으면 주님은 계속해서 교회 밖에만 머물 것입니다.

"이때에 판벽 한 집과 예배당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학개의 외침이야말로 신자가 새해 첫날 아침에, 아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일 아침마다 들어야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꿔 말해 교회와 신자가 올해의 목표를 거창하게 잡을 필요 없이 행하는 모든 일에 진짜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도록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주님의 심정을 잠시만 헤아려도 주님이 진짜로 동행해주고 계시는지 아닌지 여부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올해 매일 아침 이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실현하는 신자는 주님이 코로나에서도 지켜주시고 반드시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